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연구보고 10-R17-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책임연구원 :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 교수)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지적 도구 활용 영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한국교육개발원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자율적 행동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조선대학교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 - 사회적 상호작용 및 자율적 행동	명지대학교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 - 사고력	중앙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연구위원	장근영 부연구위원 조광수 교수(성균관대) 박현준 교수(University of Pennsylvania)
협력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연구위원	이영민 교수(숙명여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동선 부연구위원	이건남 박사(대교협) 최수정 박사(서울대)
시범운영기관	조선대학교	권해수 교수	김민성 교수(조선대) 강영신 박사(조선대)
	명지대학교	권일남 교수	김태균 교수(성산호대학원대) 김정율 관장(광진청소년수련원) 김지수 관장(당동청소년문화의집) 김영희 차장(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중앙대학교	임영식 교수	조아미 교수(명지대) 정경은 교수(초당대)
			정재천 대표(세계독서코치협회)

연구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차년도에 수집된 청소년기 핵심역량 조사 자료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 자료를 추가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핵심역량 개념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청소년기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개인변인들의 관계를 이론적·실제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 또한 청소년 핵심역량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외국 청소년 역량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비교해보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 역량중심 학습체제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체계

- 기존의 진단도구로는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연구기관 간 협동으로 DeSeCo 프로젝트에서 추출한 세 가지 핵심역량 범주별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 및 측정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동과제로서, 세 가지 역량 중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을 위한 3차년도 연구임

3. 연구내용

- 2차년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세 하위 영역 구성 항목에 대하여 학교급,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학생 학업수준 등의 변인과 여타 하위 영역 구성 항목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파악하고자 하였음
- 38개국이 참여한 국제비교조사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국제 비교하였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수준 진단과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핵심역량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4. 연구결과

-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을 위한 검사는 ‘적극적 경청’, ‘사람신뢰’,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공공에 대한 신뢰’ 등의 네 요소로 구성된 ‘관계지향성’ 영역과 ‘시민의식’, ‘소속감’, ‘만족감’ 등 세 요소로 구성된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마지막으로 ‘문제인식 및 해결’,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다수정당의 존재이유’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영역을 분석함
- 관계 지향성영역에서 개인배경(발달단계, 성별), 가정배경(가정경제수준)이 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특히 ‘경청능력’,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여부’, ‘부모님과 활동참

여정도’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여성의 특성으로 ‘친화성’을 잘 대변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또한, 관계지향성 역량을 위해서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람신뢰’, ‘또래와 모임 및 활동참여’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업 성적 중에서 사회성적이 경청능력, 사람신뢰, 부모님과 활동참여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관계지향 역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사회적 협력 영역에서는 개인배경(성별, 발달단계), 가정배경(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사회, 수학)이 주로 영향력을 미쳤음. 특히, 정치관심에서는 학업성적(사회)이 높게 나타나, 사회성적과 정치관심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시민의식에서는 주로 성별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교이해와 권리책임과 같이 지식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삶의 만족도에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에 가정배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갈등관리 영역에서 개인배경(성별, 발달단계), 학업성적(국어)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문제인식해결,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서 학업성적(국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국어과에서 문제해결력, 국제사회문화이해가 주로 나타났음. 성별의 영향력에서 사회통합, 다수정당 존재이유 지식측정에서 지식을 측정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발달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비교분석(ICCS) 결과, 관계지향성영역에서 한국은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간관계보다는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ICCS 참여국가보다 매우 낮음. 한국에 만연한 공공기관 불신풍조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사회적 협력영역에서 정치관심에 대한 비교문항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

한 토의’에서는 한국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법적
항의 참여’에서는 ICCS 참여국가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
치참여에서 부모, 친구들과 토론은 하지만 직접 참여하는 활동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협력’ 영역에서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갈등관리영역에
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ICCS 참여국가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남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국제평균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됨. 한편 국내 조사결과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청소년
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심리적,
가정, 학교에서의 다양한 환경요인 인만큼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육
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학과목 중심의 학습체제에서 역량중심
의 학습체제로 전환할 것이 요구됨. 또한 이를 위해 가정, 학교 및 지
역사회의 학습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목 차

I.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주요 연구 내용	6
1)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하위 영역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6
2) 한국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수준 국제비교	7
3) 한국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7
3. 연구 방법	7
1) 문헌연구	7
2) 자료 분석	8
3) 조사도구	8
4) 전문가 협의회	13
5)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13
II. 이론적 배경	17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17
1) 타인과 관계 유지(관계 지향성)	19
2) 사회적 협력, 협동	20
3) 갈등 관리와 해결	21
2.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24
1) 사회적 자본 형성의 원천	25
2) 사회적 자본의 측정	26
3) 사회적 자본의 국제 측정도구 비교	28
3.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한 부분으로서의 시민의식	32
1) 1차년도 IEA CIVED	32

2) 2차년도 IEA ICCS 2009	36
III.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결과	43
1. 조사대상자 특성	43
1) 일반적 특성	43
2) 학교급에 따른 응답자 특징	52
2. 사회적 상호작용 중 “관계지향성”	55
1) 적극적 경청	55
2) 사람신뢰	57
3)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59
4) 공공에 대한 신뢰	66
3. 사회적 상호작용 중 “사회적 협력”	68
1) 시민의식	68
2) 소속감	80
3) 만족감	84
4. 사회적 상호작용 중 “갈등관리”	86
1) 문제인식 해결	86
2) 이민자에 대한 태도	88
3)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92
4) 갈등관리	101
IV. 국제비교조사(ICCS) 분석결과	107
1.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107
2.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	111
3.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116
4. 합법적 항의에 참여	121
5.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	126
6.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130
7.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	135

V. 요약 및 결론	143
1.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171
2.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	173
3.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176
4. 합법적 항의에 참여	178
5.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	181
6.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184
7.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	187
참고문헌	152
부록-설문지	157

표 목차

<표 I-1>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세 하위 영역 간 관계 분석	4
<표 I-2>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최종 항목 및 출처	7
<표 I-3>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최종 항목 및 출처	8
<표 I-4>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최종 항목 및 출처	9
<표 II-1>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요소	27
<표 II-2> IEA의 시민의식 문항개발을 위한 구조	34
<표 II-3> ICCS 2009 평가의 내용 영역	38
<표 II-4> 내용 영역, 정서-행동 영역과 인지 영역 사이의 관계	40
<표 III-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43
<표 III-2> 학교급에 따른 응답자의 특징	54
<표 III-3> 회귀분석 “관계지향성 : 적극적 경청”에 대한 분산분석	55
<표 III-4> “관계지향성 : 적극적 경청”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56
<표 III-5> 회귀분석 “관계지향성 : 사람신뢰”에 대한 분산분석	57
<표 III-6> “관계지향성 : 사람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58
<표 III-7> 회귀분석 “주변사람접촉(친척접촉)”에 대한 분산분석	59
<표 III-8> “주변사람접촉(친척접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60
<표 III-9>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61
<표 III-10>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양과 질 :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할 사람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62
<표 III-11> 회귀분석 “주변사람 접촉(사람들과의 만남과 활동참여율)”에 대한 분산분석	63
<표 III-12> “주변사람 접촉(사람들과의 만남과 활동참여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64

〈표 III-13〉 회귀분석 “주변사람 접촉(가족접촉의 양과 질)”에 대한 분산분석	65
〈표 III-14〉 “주변사람 접촉(가족접촉의 양과 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66
〈표 III-15〉 회귀분석 “공공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분산분석	67
〈표 III-16〉 공공에 대한 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67
〈표 III-17〉 회귀분석 “사회협력시민의식_정치관심”에 대한 분산분석	69
〈표 III-18〉 “사회협력 시민의식_정치관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69
〈표 III-19〉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70
〈표 III-20〉 사회협력 : 시민의식 중 종교이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1
〈표 III-21〉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72
〈표 III-22〉 사회협력 : 시민의식 중 권리의식(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3
〈표 III-23〉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74
〈표 III-24〉 사회협력 : 시민의식 중 권리의식(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4
〈표 III-25〉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75
〈표 III-26〉 사회협력 : 시민의식 중 권리의식(3)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6
〈표 III-27〉 회귀분석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민주절차)”에 대한 분산분석	77
〈표 III-28〉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민주절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78
〈표 III-29〉 모형검정 “비 민주적 정부” 분류의 정확도	79
〈표 III-30〉 “비 민주적 정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80
〈표 III-31〉 회귀분석 “사회적 협력_소속감1”에 대한 분산분석 ..	81
〈표 III-32〉 “협력_소속감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82

<표 III-33> 회귀분석 “협력_소속감2”에 대한 분산분석	83
<표 III-34> “사회적 협력_소속감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84
<표 III-35> 회귀분석 “협력_만족감”에 대한 분산분석	85
<표 III-36> “협력_만족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85
<표 III-37> 회귀분석 “갈등관리_문제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87
<표 III-38> “갈등관리_문제인식해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87
<표 III-39> 회귀분석 “갈등관리_이민자태도(1)”에 대한 분산분석	89
<표 III-40> 갈등관리_이민자태도(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89
<표 III-41> 회귀분석 “갈등관리_이민자태도(2)”에 대한 분산분석	90
<표 III-42> “갈등관리_이민자태도(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91
<표 III-43>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양한 가치의 수용(1)”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93
<표 III-44> “다양한 가치의 수용(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3
<표 III-45>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양한 가치의 수용(2)”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94
<표 III-46> “다양한 가치의 수용(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5
<표 III-47> 회귀분석 “공정”에 대한 분산분석	97
<표 III-48> “공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97
<표 III-49> 회귀분석 “인정”에 대한 분산분석	98
<표 III-50> “인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99
<표 III-51> 회귀분석 “조망”에 대한 분산분석	100
<표 III-52> “조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01
<표 III-53> “갈등관리: 다수정당의 필요성”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102
<표 III-54> “갈등관리: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3

〈표 IV-1〉 학교에서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107
〈표 IV-2〉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108
〈표 IV-3〉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08
〈표 IV-4〉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109
〈표 IV-5〉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10
〈표 IV-6〉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110
〈표 IV-7〉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11
〈표 IV-8〉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111
〈표 IV-9〉 시민기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112
〈표 IV-10〉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112
〈표 IV-11〉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13
〈표 IV-12〉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13
〈표 IV-13〉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14
〈표 IV-14〉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115
〈표 IV-15〉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15
〈표 IV-16〉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16
〈표 IV-17〉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116
〈표 IV-18〉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117
〈표 IV-19〉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18
〈표 IV-20〉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18
〈표 IV-21〉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19
〈표 IV-22〉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120
〈표 IV-23〉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20
〈표 IV-24〉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21

〈표 IV-25〉 합법적 항의에 학생들의 참여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121
〈표 IV-26〉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122
〈표 IV-27〉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22
〈표 IV-28〉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23
〈표 IV-29〉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24
〈표 IV-30〉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124
〈표 IV-31〉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25
〈표 IV-32〉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25
〈표 IV-33〉 종교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126
〈표 IV-34〉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126
〈표 IV-35〉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27
〈표 IV-36〉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28
〈표 IV-37〉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29
〈표 IV-38〉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129
〈표 IV-39〉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30
〈표 IV-40〉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30
〈표 IV-41〉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민 참여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131
〈표 IV-42〉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131
〈표 IV-43〉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32
〈표 IV-44〉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32
〈표 IV-45〉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34
〈표 IV-46〉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134
〈표 IV-47〉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35
〈표 IV-48〉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35

〈표 IV-49〉 이민자권리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136
〈표 IV-50〉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136
〈표 IV-51〉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37
〈표 IV-52〉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37
〈표 IV-53〉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39
〈표 IV-54〉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139
〈표 IV-55〉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140
〈표 IV-56〉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	140
〈표 V-1〉 ICCS 국제비교 결과	150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연구 추진계획	4
[그림 II-1] 공정 및 인정행동 판단에서 준거가치 차원	23
[그림 II-2] CIVED 모형(Torney-purta 등, 2001)	33
[그림 III-1] 학교급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45
[그림 III-2]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46
[그림 III-3] 학교특성(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46
[그림 III-4] 설립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47
[그림 III-5]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47
[그림 III-6]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48
[그림 III-7] 부모학력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48
[그림 III-8] 아버지 학력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49
[그림 III-9] 어머니 학력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49
[그림 III-10] 부모 직업유무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50
[그림 III-11] 국어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50
[그림 III-12] 영어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51
[그림 III-13] 수학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51
[그림 III-14] 사회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52
[그림 III-15] 과학 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53
[그림 V-1] ‘관계지향성’ 영역에 독립변인의 영향(요약)	144
[그림 V-2] ‘사회적 협력’ 영역에 독립변인의 영향(요약) ..	147
[그림 V-3] ‘갈등관리’ 영역에 독립변인의 영향(요약)	14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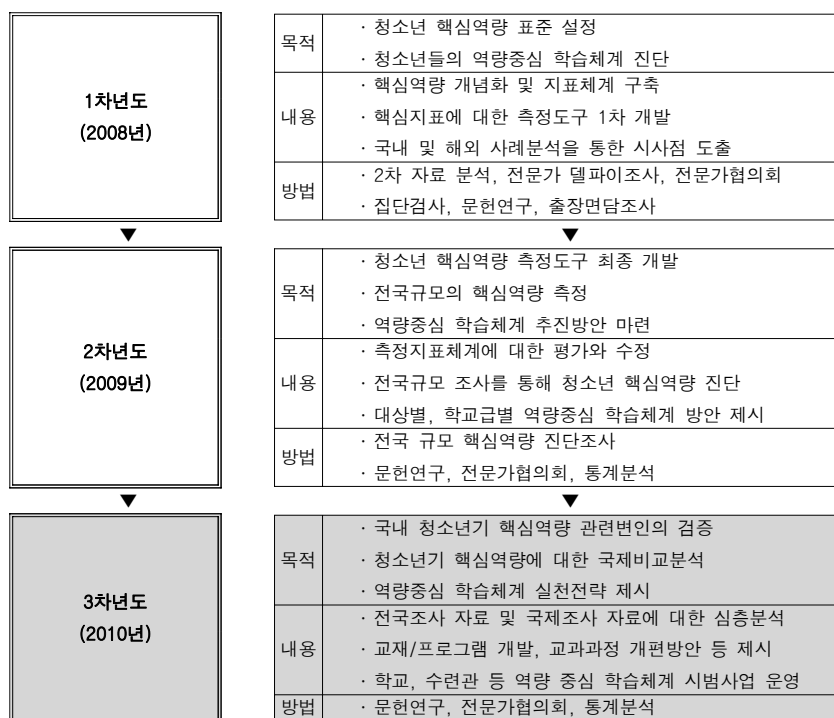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한편 취업 및 진로 불확실성의 증가, 가족구조의 다양화, 소득의 양극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갈수록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그동안 학교교육이 견지했던 입시위주 교육, 주입식 교육, 학력만능주의 교육 등의 성취목표를 지양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삶을 설계할 줄 아는 미래지향적 사회의 인적자원으로서 새로운 청소년의 모습이나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OECD(2005, 2006)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현대인이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역량인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중의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질적 집단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가치지향적이거나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범주로 아직 국제적인 논의에서 아직 개념화 단계이거나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김기현, 장근영, 2008).

한편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은 기존의 진단도구로는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DeSeCo 프로젝트에서 추출한 세 가지 핵심역량 범주별로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김기현 외, 2008).

1차년도 연구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추출한 세 가지 핵심역량 범주별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도구를 개발

하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자율적인 행동 역량’ 부문,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도구 활용 역량’ 부문에 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2차 년도에서 새롭게 추가한 청소년기 핵심역량 영역인 사고력 분야에 관해서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단도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즉, 본 연구는 협동연구과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개발원(KEDI), 명지대학교 등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3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08년 - 2010년까지 3년에 걸친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I - 1] 연도별 연구 추진계획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개발된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 실시와 함께 전국규모 조사 실시, 그리고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을, 3차년도에는 전국규모 조사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핵심역

량에 대한 분석 및 국제비교 연구와 시범사업 운영, 교재/프로그램 개발, 교과과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차 년도에 실시한 측정지표 체계를 평가하고 수정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 분야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문항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핵심역량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전국 실태조사에 사용하였다. 둘째, 전국 규모의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수정된 핵심역량 측정척도를 이용해 전국규모의 청소년 역량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애핵심 역량 현황을 진단하였다. 셋째, 학교급별, 프로그램 대상별 역량 중심 학습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량 개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시행 중인 뉴질랜드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역량개발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올해 3차 년도는 연구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과 관련하여 3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2차년도에 수집된 청소년기 핵심역량 조사 자료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을 추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핵심역량 개념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청소년기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개인변인들의 관계를 이론적·실제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기 핵심역량 관련 정책 제언에 있어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2차년도에 측정된 핵심역량 측정치를 기초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 결과를 외국 청소년 역량조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준거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핵심역량 수준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취약점과 강점을 발견하며,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취약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청소년기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시될 것이다.

2. 주요 연구 내용

1)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하위 영역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2차년도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세 하위 영역 구성 항목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하위 영역인 관계지향성 영역, 사회적 협력 영역, 갈등관리 영역의 각각의 세부 구성 항목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학교급,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학생 학업수준 등의 변인과 여타 하위 영역 구성 항목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파악하였다.

<표 I - 1>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세 하위 영역 간 관계 분석

범주	구성요소
관계지향성 영역	·관계지향성 - 적극적 경청 ·관계지향성 - 사람신뢰 ·관계지향성 -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관계지향성 - 공공에 대한 신뢰
사회적 협력 영역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정치관심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종교이해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권리책임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민주적절차 ·사회적 협력 - 소속감 ·사회적 협력 - 만족감
갈등관리 영역	·갈등관리 능력 - 문제인식해결 ·갈등관리 능력 -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갈등관리 능력 -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갈등관리 능력 - 다수정당존재이유

2) 한국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수준 국제비교

38개국(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대한민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이 참여한 국제비교조사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국제 비교하였다. ICCS 조사 항목 중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관련 항목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시민기관에 대한 인식’ ‘사회적 협력’ 관련 항목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 ‘합법적 항의에 참여’, ‘종교의 영향에 대한 이해’,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갈등관리’ 관련 항목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를 추출하여, 한국과 조사 대상 국가 비교 분석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3) 한국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한국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수준 진단과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핵심역량,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청소년 핵심역량,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념, 범주 관련 국내외 선

행연구 검토,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관련 국내 조사 자료 분석 연구 검토, 청소년 핵심역량 관련 국제비교 조사 연구를 검토하였다.

2) 자료 분석

(1) 국내조사 자료 분석: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자료 분석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는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도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별로 3,000명씩 총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 틀은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으며 비례층화집락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지적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사고력, 배경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미 2차년도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측정 항목에 대한 기초 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 2010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주로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2) 국제조사 자료 분석: ICCS 조사 자료 분석

ICCS 조사에 참여한 38개국 청소년 시민역량을 시민 사회와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 영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ICCS 조사 항목 중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여, 조사 대상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조사도구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을 위한 검사 문항은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의 논의를 근간으로 하여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협동)’, ‘갈등 관리’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 관계지향성 영역

관계지향성 범주의 하위영역으로는 ‘적극적 경청’, ‘사람신뢰’,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공공에 대한 신뢰’ 등의 네 요소로 구성되었다.

<표 I - 2>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최종 항목 및 출처

하위 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적극적 경 청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DeSeCo 참고	III-20-1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III-20-2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III-20-3
	나는 내가 관심 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III-20-4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바라본다.		III-20-5
	나는 상대방의 말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들으며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다.		III-20-6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III-20-7
사람 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ESS	III-24
주변사 람과의 접촉의 질과양	친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나요?	ESS	III-33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 할 사람이 있나요?		III-34
	같은 나이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나요?		III-35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I -10
공공에 대 한 신뢰	아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나요?(국회, 사법기관, 경찰서, 정당, 국제연합)	CIVED	III-26

관계지향성 범주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 경청’ 영역의 문항은 DeSeCo(2002)의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사람실패’ 및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영역의 문항은 2002년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선정된 시민의식 영역의 지표에 대한 개발 내용을 참고로 개발하였다.

‘공공에 대한 실패’ 영역의 문항은 1994년부터 시민교육의 영역 내에서 각국의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 비교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1999년 시민의식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2)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사회적 협력(협동) 범주의 하위영역으로는 ‘시민의식’, ‘소속감’, ‘만족감’ 등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영역의 문항은 2002년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선정된 시민의식 영역의 지표에 대한 개발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민주적 절차’ 영역의 문항은 IEA의 1999년 시민의식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문항 및 1999년 IEA의 시민교육 연구에서 확대된 IEA ICCS 2009(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의 평가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표 - 3>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최종 항목 및 출처

하위 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시민 의식	정치 관심	당신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ESS	Ⅲ-25
	종교 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ESS	Ⅲ-28-1
	권리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	ICCS	Ⅲ-28-2

	책임	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Ⅲ-28-3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Ⅲ-28-4
	민주적 절차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CIVED	Ⅲ-27-1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Ⅲ-27-2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Ⅲ-30
소속감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CIVED	Ⅱ-16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Ⅱ-17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Ⅱ-18
만족감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ESS	Ⅲ-31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Ⅲ-32

(3) 갈등관리 영역

갈등관리 범주는 ‘문제인식 및 해결’,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다수 정당 존재이유’ 등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개발되었다.

<표 I-4>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최종 항목 및 출처

하위 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문제 인식 해결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Heppner & Peterson	Ⅲ-23-1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Ⅲ-23-2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해		Ⅲ-23-3

	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ESS	Ⅲ-21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Ⅲ-22-1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Ⅲ-22-2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살기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Ⅲ-22-3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다음 중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ICCS	Ⅲ-36-1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Ⅲ-36-2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이현남	Ⅲ-37-1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모른 척 눈감아 준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Ⅲ-37-2
다수 정당존재 이유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CIVED	Ⅲ-29

갈등관리 범주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을 위하여 ‘문제 인식 및 해결’ 영역의 문항은 Heppner & Peterson(1982)의 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참고로 하였으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 영역의 문항은 2002년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선정된 시민의식 영역의 지표에 대한 개발 내용을 참고로 하였다.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영역의 문항은 1999년 IEA의 시민교육 연구의 평가 문항과 이현남(1992)의 논문에서 심리적 조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척도를 참고로 개발하였다.

4) 전문가 협의회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모형 수립 및 분석 과정에서 핵심역량, 사회적 자본 등 관련 영역 전문가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협동연구주관기관인 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협동연구 공동수행기관 간 긴밀한 연구 내용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분석 모형 및 결과 등을 공유하였다.

5)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대한 국제적 비교분석 및 의미를 토의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국제컨퍼런스를 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청소년핵심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영역의 연구분야 전문가들이 분석결과와 정책적 학술적 함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2.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3.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한 부분으로서의 시민의식

II. 이론적 배경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현대 지식기반 사회는 급속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개인들이 적응하기 위하여 지난날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능력의 습득에 기반이 되는 기초 문해력을 넘어서 컴퓨터 활용능력, 외국어 능력, 직업전환 능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능력들은 환경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생애 특정 단계에 국한되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습득해야 하는 능력의 범위는 실로 다양하고 방대하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도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나이든 사람도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생산 현장에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경제 구조의 악화로 인한 청·장년 실업 문제는 구직이나 전직을 위한 직업 능력이나 직업 전환 능력이 중요한 능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 탈 이데올로기,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신뢰 구축의 필요에서 개인이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줄 아는 능력, 물질만능주의, 탈법, 이기주의의 확산 등에 대비하여 도덕성, 준법정신, 사회적 정체성 등 시민의식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능력에 관한 논의는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DfES, 2001; EURYDICE, 2002; Hipkins, 2006; ILO, 2003; OECD, 2002, 2005, 2006; Q.C.A, 2007; S.Q.A, 2003; U.S. Department of Labor, 1994; U.S. Department of Education, N.C.E.S, 2001). 또한

이러한 핵심능력은 생애기술(life skills), 핵심기술(key skills), 핵심능력(core competencies)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나 능력들은 전반적으로는 시민생활과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요건으로서 평생학습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능력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평생학습을 통한 전 생애 능력 개발을 도모할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됨에 따라 OECD는 개인의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소년과 성인의 기초능력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핵심 기초능력을 규정하기에 적절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생애 학습과 교육체계의 최선의 목표로서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 개인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언어와 기술, 상징 부호 등)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이질적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핵심역량의 범주는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기관(KEDI)이 수행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는 이들 세 가지 영역 중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에 관한 연구로서,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이 능력의 세부 기초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하게

대응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 기초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 타인과의 좋은 관계 유지 능력
- 사회적 협력, 협동 능력
-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 타인과 관계 유지(관계 지향성)

이 능력은 개인이 가족 구성원, 친구, 이웃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서로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인이 타인의 생애, 가치관, 신념, 문화를 존중하고 감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Stein, 2000b).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의 개발과 관련해서 나라별로 살펴보면 핀란드에서는 1999년 교육평가 결과에 의사소통 능력의 요소 가운데,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적, 비언어적 인식 및 표현’을 담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초·중등 및 성인 교육 핵심 교육과정에 ‘영성적 인간’을 키우기 위해 ‘다른 문화에 개방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 ‘다른 종교와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존중하는 능력’의 두 가지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Equipped for the Future’ 프로젝트에서 시민, 가족 구성원, 노동자로서 참여하는 일상적 활동으로써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정의하고 있다(Stein, 2000a).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응집의 요구조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 요인으로 더 많이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vy and Murnane(2001)은 공장에서의 변화와 경제에서의 변화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포함하여 ‘감성지능’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중 감정이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

각해보고(Ridgeway, 2001), 타인의 역할을 맡아보고,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것(Goleman, 1996)이 필요하다. 감정이입은 광범위한 의견과 신념을 고려하여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타인과 공유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기 성찰을 이끌어낸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누군가의 정서와 내부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런 능력은 자아 인식과 스스로에 대한 효과적인 해석 및 타인의 기본적인 정서적, 동기유발적 상태를 가정한다(Haste, 2001).

상기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계지향성으로서 개인의 적극적 경청 능력, 공감 능력, 도움(희생)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사회적 협력, 협동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내의 상호작용 범주 안에서 두 번째 핵심 능력은 다른 이들과 협동하는 능력이다. 이 핵심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집단이나 팀 안에서 일하는 능력은 거의 모든 국가 보고서에서 핵심 능력으로 언급되고 있다(Trier, 2003).

DeSeCo에서 사용하는 핵심 능력의 정의에서 일관된 점은, 그 초점이 집합적 의미로 집단에서 요구되는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의미로 사회 구성원에게도 요구되는 능력이란 점이다. 협력은 타인을 지원하고 리더십 역할을 공유해야 하는 집단에 대한 균형 있는 실행, 자발적 행위의 기준, 활발한 참여를 위한 균형 잡힌 사회적 책임감을 포함한다.

사회적 책임감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다.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역할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며 사회적 협력이나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책임감의 근원이 된다(Turner, 198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역할 이해,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유대감 등을 사회적 협력(협동) 역량의 주요 측정 요소로 보았다.

또한 사회적 협력, 행동 관련 요인으로 토의 내용과 의제의 역동성 및

경향을 이해하고 연대의 한계를 간파하며 전술적이거나 지속적인 동맹의 구성,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타협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Perrenoud, 2001, pp.140-141). 결국 이 능력은 서로 다른 의견의 미묘한 차이를 허용하는 협상, 동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능력은 다음의 갈등 관리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3) 갈등 관리와 해결

세 번째 능력은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관계를 협상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하여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 일에 매달려야 하거나 갈등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판사, 변호사, 중재인, 옴부즈맨(고충처리원)과 같은 외부의 중재 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갈등에 직면하게 되며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갈등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사회든 간에 삶의 모든 면면에서 발생한다. 갈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반대의견을 가질 때, 규준에서 벗어난 요구, 목표, 가치 때문에 일어난다. 갈등은 사회적 현실이며, 자유와 다원주의의 소산으로서 인간관계 고유의 부분이다(Perrenoud, 2001, p. 142). 구성적 방식(constructive manner)으로 갈등에 접근하는 것은 갈등을 관리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을 완전히 피하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대신, 민감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려 한다.

이런 능력은 개인이 타인의 요구와 이해를 고려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갈등 이익을 양자가 공유하는 것(win-win 해법)을 선호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갈등 관리와 해결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들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의 이슈와 관심사를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갈등의 시작이나 모든 측면의 합리적 이해, 혹은 다른 가능한 해법이 있음을 인식하는 일

등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동의와 불일치의 영역을 확인하는 것,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 필요한 일과 목표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능력은 결국 타인의 요구와 목표가 나의 것보다 우선적일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양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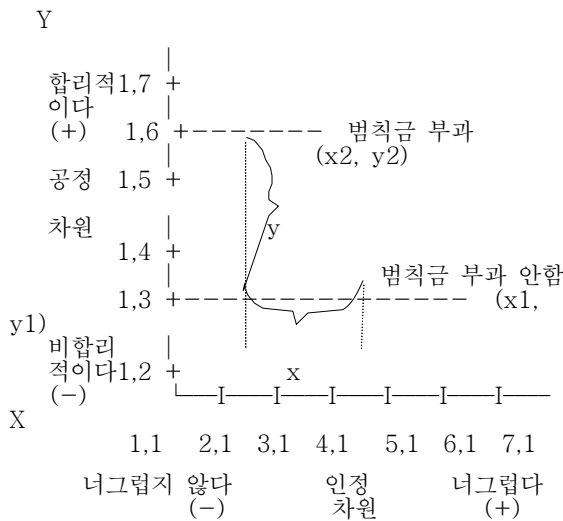
Walton과 Mckersie(1965)는 이러한 갈등 해결 방식을 분배적 협상(distributive negotiation)과 대비되는 통합적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이라 불렀다. 한편 Thompson과 Hastie(1990)는 사람들이 통합적 동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을 협상자들이 지각이나 판단에서 범하는 총화고정오류(fixed-sum error) 때문이라고 보았다. 총화고정오류는 분배자원이 가변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정된 것으로 지각하는 오류이다. 따라서 갈등상황은 상대방의 이익이 곧 자기의 손실로 나타나는 zero-sum, 혹은 win-lose game으로 지각된다. 예컨대, 갈등장면에서 협상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초심자에 비하여 통합적 협상에 도달하기 더 쉽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원을 가변적으로 인식하여 상대와 공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갈등 상대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전체자원을 확대한다. 그리하여 갈등상황을 non zero-sum, 혹은 win-win game으로 지각하여 상대와의 통합적 협상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이 같은 역량은 상대방의 관심이나 기대를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갈등상대에 대한 조망취득 능력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리 및 해결 능력을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 조망취득 수준, 문제 해결 수준(얼마나 win-win 전략을 선택하는지 등)과 같은 개인 역량을 알아봄으로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갈등 문제에 대한 인식, 조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공정을 중요시하는 행동과 인정을 중요시하는 행동이 갈등하는 시나리오(교통위반을 적발한 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여하는 것과 부여하지 않는 것)를 제작하였다. 이때, 공정조

망은 대인관계에서 이해의 교환에 관심을 갖고 원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는 심리적 과정인 반면, 인정조망은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정서나 유대감을 중시하는 심리적 과정이다(이헌남, 1992).

한편, 시나리오의 행동들은 공정조망(예; 비합리적이다 - 합리적이다)과 인정조망(너그럽지 않다 - 너그럽다)을 대표하는 형용사들로 양극이 규정된 의미미분척도 상에서 판단되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공정과 인정이 갈등하는 장면에서 두 판단 준거에 대한 가치지향성 점수 x , y , 즉 두 차원에서 판단된 행동들의 변별값이다.



[그림 II - 1] 공정 및 인정행동 판단에서
준거가치 차원

그림에서 y 는 범칙금 부과와 부과하지 않는 행동을 공정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x 는 인정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각 차원에서의 변별값이 클수록 그 가치나 조망을 가지고 두 대립된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각 준거차원 변별값의 구체적 계산 절차는 이수원과 박영석(1988)이 개발한 것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성

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2.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전 생애동안 인간은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점점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간관계 형성은 개개인의 복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위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기존에 형성된 사회적 연계가 약해지고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새로운 사회적 연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구축은 중요하다.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자본은 인간자본(human capital)과 함께 한 나라의 인적자원이나 자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최근 수 년 간의 연구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복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의 거시적 혹은 미시적인 효과들을 밝혀왔다(OECD, 2000).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자본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며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자본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어떤 한 개인만이 소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며 공공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 관습이나 문화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간자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이나 특성들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집단 간 혹은 집단 내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가치 및 상호이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적인 틀을 넘어

서 협동하고 정보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양한 집단 활동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상호이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의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신뢰 관계를 수립하고 협동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 사회적 자본 형성의 원천

사회적 자본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국가, 하위 국가 수준의 다양한 행정단위나 제도들을 통하여 형성된다.

첫째, 가정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일차적인 원천이다.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부모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신뢰나 협동, 혹은 학교교육에서의 학습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콜맨은 가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 ① 가정에서 부모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의 정도 ② 아이에 대한 주의나 보살핌의 강도와 질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일을 통하여 형성되는 실질적인 장소는 기업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는 점차 협동, 학습,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조직학습, 학습조직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시민사회 조직들이다. 한 지역에서의 경제적 혹은 정책수행 활동들은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시민사회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스포츠클럽, 각종 협의체, 봉사조직, 노동조합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제도들이나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른바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부의 생산과 복지 정책 및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넷째, 성(gender), 인종, 지역감정 등 우리 사회에서 상존하고 있는 편견의 범주들도 사회적 자본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 규정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시민활동,

정치적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 성, 인종, 지역, 학벌 등의 차별과 같은 문제는 조직이나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주요 원천들은 세대 간의 격차, 변화하는 가치체계(포스트모더니즘, 개인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공동체 의식의 약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변화, 가정의 붕괴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사회적 자본의 측정

인간자본이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기술력 등으로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일찍이 푸트남(Putnam, 2002)은 미국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데 ① 지역사회나 조직 생활에 대한 참여의 강도, ② 투표 등과 같은 정치 참여나 관심, ③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④ 친구관계와 같은 비형식적인 사교성, ⑤ 대인간의 신뢰와 같은 지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사회적 자본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예컨대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푸트남은 개인의 태도나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했는데 신뢰의 기준 자체가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들 간 비교나 문화 간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넥과 키퍼(Knack & Keefer, 1997)는 행동수준에서 OECD 국가들 간 신뢰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측정이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시민의식의 핵심요소로서 사람들 간의 신뢰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경제·사회적 효과로 인하여 선진 각국들은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으로써 자국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그 개념을 명료화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육성 전략의 계기로 삼고 있다(OECD & ONS, 2002). 2002년 9월에 OECD와 영국의 국가통계청

이 주최한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OECD에 소속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차원, 요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측정 차원으로서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제(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규범·가치의 공유와 신뢰(shared norms, values and trust), 시민적 참여(civic participation),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views of the local area) 5가지를 들고 있다. 이를 기초로 영국 국가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2)의 사회적 자본 문항 군(social capital question bank)에서는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문항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측정 차원 및 내용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 - 1>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요소

사회적 자본 측정요소	세부 측정내용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관련 요소
시민 참여 (civic participation)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활동 및 강도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장애요인	○
	정치참여 활동(정치, 투표 참여)	○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
	이웃에 대한 친밀감	○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정치결정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	●
지역사회의 구조나 제도 수준(structures or support)	지역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지역 소음 등 환경문제	
	지역의 공공 서비스(교육, 교통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도	○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제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의 질과 양	●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에서 장애요인	○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
신뢰, 사회적 응집성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 수준	●

(trust, social cohesion)	한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
	공공 및 서비스 제도에 대한 신뢰	○
	타인에 대한 신뢰	○
	정치구조에 대한 신뢰	○
	가치의 공유에 대한 인식	●

○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직접 측정하는 요소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관련된 요소는 시민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제(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및 신뢰, 사회적 응집성(trust, social cohesion)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시민참여 요소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활동 및 강도와 같은 요소와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제 요소에서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의 질과 양 같은 요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세부요소들이다. 또한 신뢰, 사회적 응집성 요소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 수준 및 가치의 공유에 대한 인식 등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고 한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공공 및 서비스 제도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구조에 대한 신뢰 등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측정요소로 볼 수 있다.

이렇듯 1차년도 연구에서는 국제 조사 기관의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군 중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문항들을 살펴보았는데,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사회적 자본 측정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조사기관의 사회적 자본 측정에 대한 국제지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3) 사회적 자본의 국제 측정도구 비교

각 나라별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서로간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각 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비교·분석 하고자 하는 시도가 OECD와 영국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앞에

서 언급한 바 있다. 각 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대한 실태 분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국제비교지표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태준(2009)은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에서 OECD 등의 국제기구가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개발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ESS(European Social Survey), WVS(World Values Survey),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등에서 사회적 자본 모듈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국제비교지표를 개발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p.2). 또한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의 국제적인 비교 준거의 부재와 동일한 문항의 개발이 미진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분석을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측정도구를 개발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ESS, WVS, ISSP, WB, CIVED와 같은 국제조사들의 문항들을 비교, 조사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1) European Social Survey(ESS: 유럽 사회 조사)

유럽 사회 조사(ESS)에서 사회 불평등 가치 기준, 국가 정체성, 삶의 질, 정치적 경제적 적응, 유럽화와 대중 매체 행동을 기준으로 유럽인들의 정치, 사회적 신념을 측정하였는데, 최근의 ESS에서는 Citizenship, Involvement, Democracy(CID) 모듈로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CID의 주요 측정의 핵심요소 중에서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련한 요소>

- 시간과 돈의 자발적인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과 협회의 참여활동 정도
- 조직이나 사회와 관련이 없는 비공식적인 사회 활동 뿐만 아니라 협회 구성원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측정

- 지역과 국가, 이웃을 위한 지각된 관심의 정도
- 다른 그룹의 구성원의 관심 지각(다른 사회계층, 언어, 민족, 지역 등)
- 정치적인 사건, 특정한 목적의 지지속의 정치적인 활동과 시민의 약속에 대한 관심 정도
- 비공식 접촉의 정도,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일어나는 사회적 지지와 정신적 도움 정도
- 다른 그룹의 구성원에 대한 관용의 정도
- 신뢰
- 정부, 법률 집행과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신뢰

<그 밖의 요소>

- TV시청의 정도
- 정치의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한 인터넷 사용
- 태도, 가치 그리고 ‘좋은 시민의식’에 관한 지각
- 태도, 가치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에 관한 지각
- 정치적인 효능의 지각 혹은 공공서비스 품질의 변화의 가능성(예, 교육, 건강) 그리고 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전략의 평가

(2) World Values Survey(WVS: 세계가치관조사)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세계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그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연구이다. 1981년 이후, 유럽가치관조사(EVS)와 함께 세계 인구의 90% 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97개국에 걸쳐 조사 결과를 축적해 왔다. 1차 조사는 1981년-1984년에 20개국의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조사는 2005-2008년 54개국의 7만 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측정도구는 259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문항은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

에 이르는 신뢰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미시적 수준의 신뢰: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신뢰
- 중간적 수준의 신뢰: 지역사회, 단체 및 기구에 대한 신뢰
- 거시적 수준의 신뢰: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국제단체에 대한 신뢰

이러한 세계가치관 조사는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사회적 자본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각 나라별 표본 크기, 질문 영역이 제한적인 점과 ‘신뢰’ 등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3)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SSP)은 매년마다 다국적 협업으로 실시되는 조사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두 기관인 독일 만하임의 조사방법론 및 분석센터의 사회과학종합연구조사와 미 시카고 대학의 국가여론연구센터가 시계열 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다. 이 사회조사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 있는 질문은 두 모듈인데, 사회 연결망 1차 조사(Social Networks I, 1986)와 사회참여와 지원 시스템 2차 조사(Social Participation and Support Systems; Social Networks II, 2001)이다. 특히, 사회 연결망 2차 조사에서는 참여, 신뢰,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의 질문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ISSP는 2004년에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데, 시민의식(Citizenship)이 포함되어 있다.

(4) World Bank(WB: 세계 은행)

세계은행(WB)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도출해 내는 등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사회적 자본의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 이르는 많은 연

구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사회연결망과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 자본의 주 영역임을 밝혔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 활동들은 최근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질문문항들을 하나의 도구로 통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Grootaert, Narayan, Jones, Woolcock(2003)이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 통합판(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rgrated Questionnaire: SC-IQ)’을 정리하였으며, 그 구성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집단 및 네트워크(Group and Networks)
- 신뢰 및 유대(Trust and Solidarity)
- 집합적 행동 및 협동(Collective Action and Cooperation)
-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사회적 응집력 및 포섭력(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 권력 강화 및 정치적 행동(Empowerment and Political Action)

이러한 통합적인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의 개발은 다양화된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체계화하고 경험적 연구들의 유사성을 구조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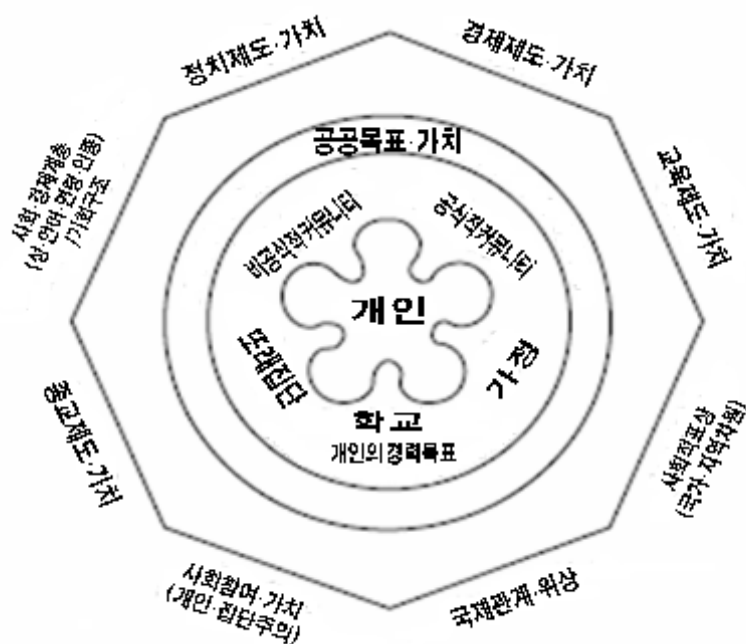
3.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한 부분으로서의 시민의식

현재 우리사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탈법, 불신평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덕성, 준법정신, 상호 신뢰 등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시민의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동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 1차년도 IEA CIVED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교육 국제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1999년에 수행된 시민교육에 관한 IEA 연구(CIVED: Civic Education Study)에서는 Uri Bronfenbrenner의 인간 발달·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근거로 시민의식 측정을 위한 시민교육의 주제 영역을 개념화하였으며(Torney-purta 등, 2001),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약 30개국의 참여국 사이에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II-2] CIVED 모형(Torney-purta 등, 2001)

한편 민주주의, 국가정체성과 지역 및 국제관계, 사회통합과 다양성 같은 세 가지 공통 핵심영역도 도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역 1: 민주주의/시민

- 영역 2: 국가 정체성/국제 관계
- 영역 3: 사회적 유대/다양성

또한 측정도구에 포함될 문항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유형1) 내용에 관한 지식의 측정

유형2) 시민 혹은 정치적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해석하는 기술의 측정
(예: 만화, 전단지)

유형3) 민주주의와 시민의식과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의 측정

유형4) 태도의 측정 (예: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믿음 정도)

유형5)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정치에 대한 참여 행동의 측정

IEA의 시민의식 측정도구는 조사 내용과 문항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I-2> IEA의 시민의식 문항개발을 위한 구조

	지식	기술	개념	태도	행동
영역1 민주주의/시민의식					
영역2 국가적 정체성/국제관계					
영역3 사회통합/다양성					

(1) 시민적 내용의 지식과 정보의 해석 기술

IEA 조사도구에서는 38문항의 내용적 지식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25개의 문항이 내용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13개의 문항이 시민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는 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예를 들면, 세금의 형평성에 있어서의 차별, 비민주적 정부의 행위, 대규모 출판사의 신문 독과점의 결과, 역사책에 관한 만화의 주요 메시지, 전단지의 출처, 민주주의에서 조직이나 단체가 중요한 이유, 복수정당제의 기능 등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2) 민주주의, 시민의식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개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1971년 IEA 시민교육조사에서도 포함된 바 있으며, 이때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부의 민주주의 체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에 응답을 하였다. 1999년 조사에서는 민주주의에 장애가 되는 위협요소(예-정치부패), 긍정적 요소(예-자유 투표) 등을 포함하였고, 대부분의 문항은 첫 번째 영역으로부터 추출되었다.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은 1971년 조사에서는 시민의식에 관하여 훌륭한 시민이 가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16개의 문항을 가지고 평가되었으며, 관습적인 정치 참여(투표, 정당이나 정치적 토론에의 참여)와 사회운동에의 참여(환경이나 인권그룹에의 소속)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1999년의 시민의식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문항이 개발되었다. 정부의 책임은 대체로 경제 관련 정부의 책임(고용의 보장, 가격 조정, 산업지원, 실업대책, 부의 형평 조절)과 사회 관련 정부의 책임(의료보장, 노인복지, 교육 보장, 여성을 위한 정치적 기회의 보장, 환경오염 관리, 순서(order)의 보장, 도덕적 행위의 증진)으로 요인분석 결과 크게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3) 국가, 정부, 이민자 및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태도

시민의식은 지식 외에 공통의 가치와 태도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IEA 조사에서는 첫 번째 영역에서 정부에 대한 믿음, 공공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을 때의 두려움, 두 번째 영역에서 지원이나 소외에 대한 이슈, 국가에 대한 감정, 국가나 정치적 상징에 대한 일체감,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기회 혹은 권리에 대한 지지,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시민단체, 대중매체, 학교 및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고, 대중매체로는

TV, 라디오, 신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국가에 대한 태도는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과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국기에 대한 느낌, 국가에 대한 자긍심, 다른 나라에 살고자 하는 경향성 등) 등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이민자와 여성에 대한 태도는 사회통합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포함된 영역이다. 이민자에 대한 문항은 이민자들의 고유 언어와 관습을 지킬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다른 시민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4) 시민의 참여(civic engagement)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는 특징 중 하나는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정보에 대한 노출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여부는 직접 물어보았고, 정치적 정보에 대한 노출은 정치적 뉴스를 담은 매체(TV, 라디오, 뉴스 및 기사)에의 노출 빈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 예상은 정당에의 참여, 사회적 정치적 관심에 대한 신문 기사를 쓰는 것,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것, 투표참여에의 의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조사되었다. 사회운동에의 참여는 청원서 서명, 비폭력적 항의 집회에 참여 등의 문항으로, 관습적이지 않은 불법적 형태의 정치행동은 벽 등에 항의문을 쓰는 것, 항의의 형태로 교통을 차단하는 것, 건물을 점거하는 것 등의 질문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이 외에 자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나 사회적 목적으로 기금을 모금 하는 것 등도 포함된 바 있다.

2) 2차년도 IEA ICCS 2009

1차년도 청소년 핵심역량연구에서는 IEA의 1차년도 연구인 CIVED의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부분이 중심이 되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2차년도 청소년 핵심역량연구에서는 ICCS 2009 본조사 실시와 함께 더 발전된 평가영역의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에 실시한 IEA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시민교육 국제비교연구)에서는 1999년 국제비교조사에서 사용된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테스트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ICCS 2009는 1999년에 시행된 IEA CIVED의 시민교육의 연구내용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성, 시민의식 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 성취도, 시민참여 및 정치의식과 성향, 태도, 교사의 학생통제, 풍토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인지영역 및 태도에 대한 문항들을 ICCS 2009 평가도구에 포함시켰다. ICCS 2009의 평가영역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내용영역과 정서-행동영역 그리고 두 가지 인지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성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영역과 그와 관련한 지각과 행동 유형 및 사고과정과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인지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체제로 발전되었다.

- 내용 영역 1: 시민사회와 체계
- 내용 영역 2: 시민 행동원리
- 내용 영역 3: 시민 참여
- 내용 영역 4: 시민성

- 정서-행동 영역 1: 가치 신념
- 정서-행동 영역 2: 태도
- 정서-행동 영역 3: 행동 의도
- 정서-행동 영역 4: 행동
- 인지 영역 1: 아는 것
- 인지 영역 2: 추론과 분석

ICCS 2009의 네 가지 내용영역의 하위영역을 보면 <표Ⅱ-3>과 같이 나뉜다. IEA 시민교육 연구의 내용 영역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관련된 시민의식 범주로는 시민사회와 시스템, 시민 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및 시민정체성 등 모두가 포함되는데, 각 범주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면 시민, 평등, 사회 통합,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자아상, 시민유대감 등이 있다.

<표 II - 3> ICCS 2009 평가의 내용 영역

시민 사회와 시스템	시민 Citizens
	국가 조직 State institutions
시민 공동체 원리	시민 조직 Civil institutions
	평등 Equity
	자유 Freedom
	사회 통합 Social Cohesion
시민 참여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영향력 행사 Influencing
	공동체 참여 Community participation
시민 정체성	시민 자아상 Civic self-image
	시민 유대감 Civic connectedness

시민 사회와 시스템의 하위영역인 시민은 다음의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

- 시민 사회에서 시민들과 집단들이 맡아 수행해야 하는 역할
- 시민 사회에서 시민들과 집단들이 맡아 발휘해야 하는 권리
- 시민 사회에서 시민들과 집단들이 맡아 수행해야 하는 책임
-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 시민과 집단의 기회와 능력

시민 공동체에서 평등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이다. 이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조화를 증진시키는 측정요소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평가영역이다. 즉, 시민 사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권리 및 책임이라는 영역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측정요소로 보았다. 또한 사회 통합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소속감, 연결성과 공동의 비전을 의미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측정요소이다.

시민 참여의 하위영역인 의사결정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나 공동체 안에 속한 집단에 관한 직접적인 정책 실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적극적 참여를 측정하며, 조직적인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나 투표 등이 이에 속한다. 영향력 행사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정책 및 관행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타인들의 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이 하위 영역의 측정요소로는 공공 토론에 참여하기, 공중의 지지 혹은 반대 시위에 참여 등이 이에 속한다. 공동체 참여는 공동체의 궁극적 이익을 도모하는 참여, 종교, 문화, 운동 조직에 참여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시민 정체성의 하위영역은 시민 자아상과 시민 유대감이다. 시민 자아상과 시민 유대감은 모두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련성에 대해 측정하는 요소로 개인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가지는 위치에 대한 느낌이나 시민적 역할에 대한 자각을 측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ICCS 2009 평가 틀의 세 범위인 내용 영역, 정서-행동 영역, 인지 영역의 관계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ICCS 2009의 평가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련한 문항의 측정은 이와 같다. 예를 들면, 의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묻는다면, 이는 정서-행동 영역의 E번 영역으로 내용 영역1: 시민사회와 체계, 정서-행동 영역 2: 태도에 해당된다.

<표 II-4> 내용 영역, 정서-행동 영역과 인지 영역 사이의 관계

	내용 영역 1: 시민사회와 체계			내용 영역 2: 시민공동체 원리			내용 영역 3: 시민 참여			내용 영역 4: 시민 정체성	
	시민	국가 조직	시민 조직	평등	자유	사회 통합	의사 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 체 참여	시민 자아상	시민 유대감
인지 영역											
아는 것	I			II			III			IV	
추론과 분석	V			VI			VII			VIII	
정서-행동 영역											
가치 신념	A			B			C			D	
태도	E			F			G			H	
행동 의도							I				
행동							J				

Ⅲ.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2. 사회적 상호작용 중 “관계지향성”
3. 사회적 상호작용 중 “사회적 협력”
4. 사회적 상호작용 중 “갈등관리”

III.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응답자의 특성은, 발달단계(초, 중, 고), 성별, 남녀공학 여부, 학교 설립유형, 수도권 여부, 부모학력, 부모직업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으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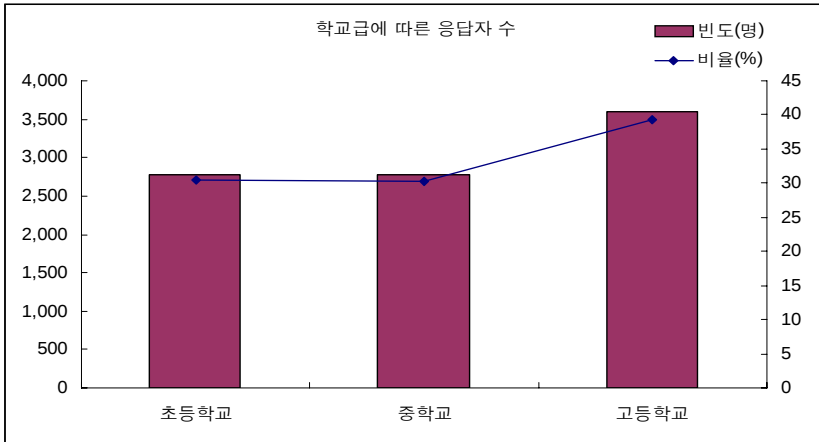
〈표Ⅲ-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빈도(명)	유효 퍼센트(%)
학교(초중고)	초등학교	2,781	30.4
	중학교	2,770	30.3
	고등학교	3,599	39.3
	합계	9,150	100.0
성별	남자	4,799	52.4
	여자	4,351	47.6
	합계	9,150	100.0
남녀공학 여부	남녀공학	6,742	73.7
	남학교	1,201	13.1
	여학교	1,207	13.2
	합계	9,150	100.0
설립유형	사립	2,173	23.7
	공립	6,977	76.3
	합계	9,150	100.0
수도권여부	수도권	4,114	45.0
	비수도권	5,036	55.0
	합계	9,150	100.0
부모님 학력: 아버지 학력	고등이하	486	5.7
	고졸	3,696	43.4
	대학이상	4,341	50.9
	합계	8,523	100.0

부모님 학력: 어머니 학력	고등이하	523	6.2
	고졸	4491	53.1
	대학이상	3451	40.8
	합계	8465	100.0
부모님 직업 : 아버지직업	없음	336	3.8
	있음	8,611	96.2
	합계	8,947	100.0
부모님 직업 어머니직업	없음	3,039	34.0
	있음	5,889	66.0
	합계	8,928	10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1. 매우 못 산다	104	1.2
	2	371	4.1
	3	1,089	12.1
	4 보통 수준	4,658	51.8
	5	2,075	23.1
	6	507	5.6
	7 매우 잘 산다	182	2.0
	합계	8,986	100.0
학업성적 (국어)	매우 못하는 수준	286	3.2
	못하는 수준	1394	15.4
	중간	4262	47.1
	잘하는 수준	2471	27.3
	매우 잘하는 수준	636	7.0
학업성적 (영어)	합계	9049	100.0
	매우 못하는 수준	942	10.6
	못하는 수준	2032	22.8
	중간	3026	33.9
	잘하는 수준	1968	22.1
학업성적 (수학)	매우 잘하는 수준	950	10.7
	합계	8918	100.0
	매우 못하는 수준	1255	13.9
	못하는 수준	2186	24.2
	중간	2901	32.1
학업성적 (사회)	잘하는 수준	1846	20.4
	매우 잘하는 수준	847	9.4
	합계	9035	100.0
	매우 못하는 수준	711	8.0
	못하는 수준	2193	24.7
학업성적 (과학)	중간	3520	39.6
	잘하는 수준	1791	20.2
	매우 잘하는 수준	668	7.5
	합계	8883	100.0
학업성적 (과학)	매우 못하는 수준	805	9.1
	못하는 수준	2098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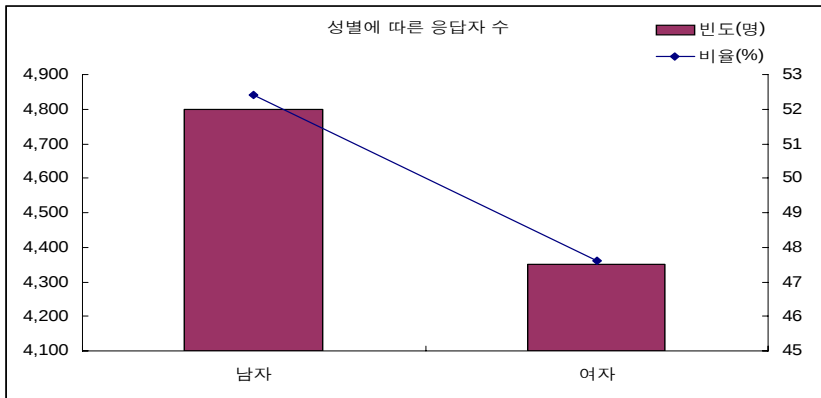
중간	3413	38.4
잘하는 수준	1806	20.3
매우 잘하는 수준	770	8.7
합계	8892	100.0

주: 결측값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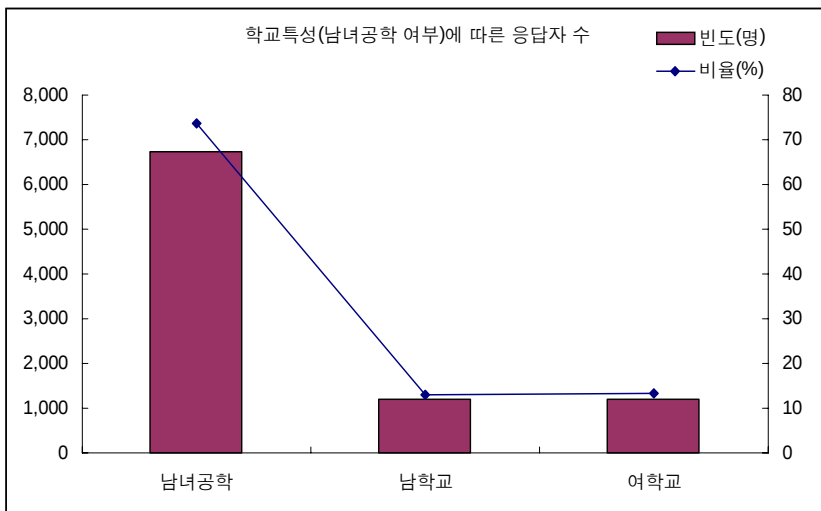


[그림Ⅲ- 1] 연령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초등학생 2781명(30.4%), 중학생 2770명(30.3%), 고등학생 3599명(39.3%)으로 남학생이 4799명(52.4%), 여학생이 4351명(47.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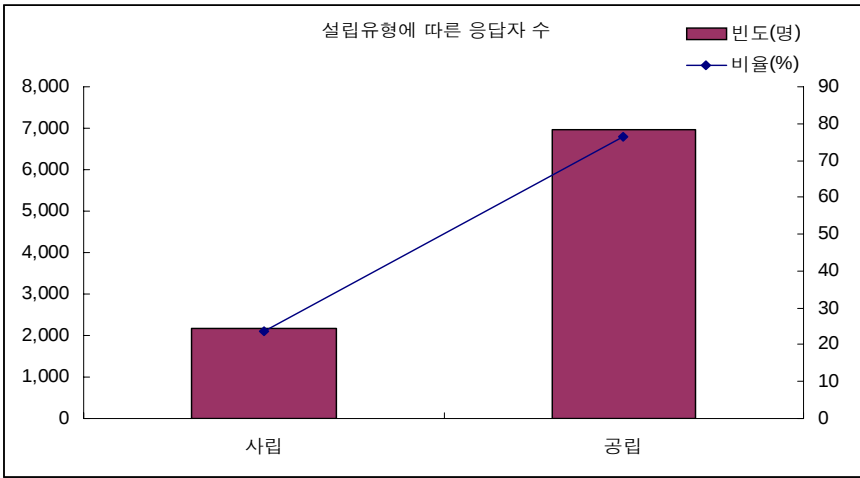


[그림Ⅲ-2]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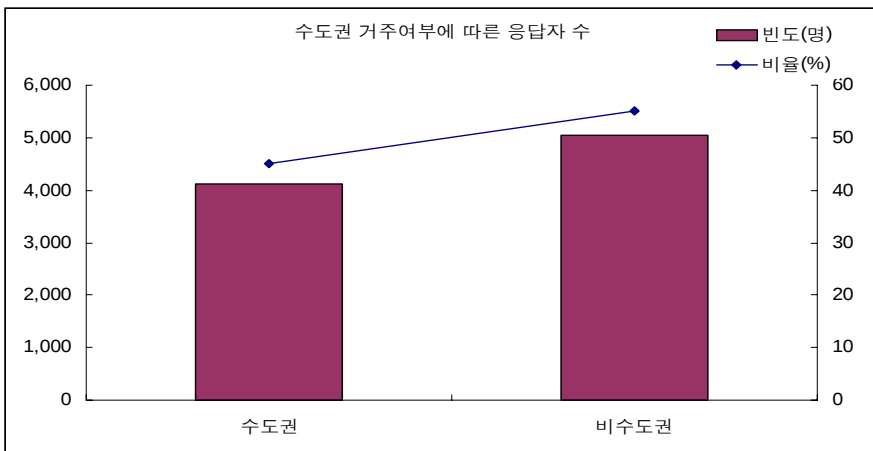
[그림Ⅲ-3] 학교특성(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전체의 73.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남녀공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13.1%(1201명)이 남학교, 13.2%에 해당하는 1207명이 여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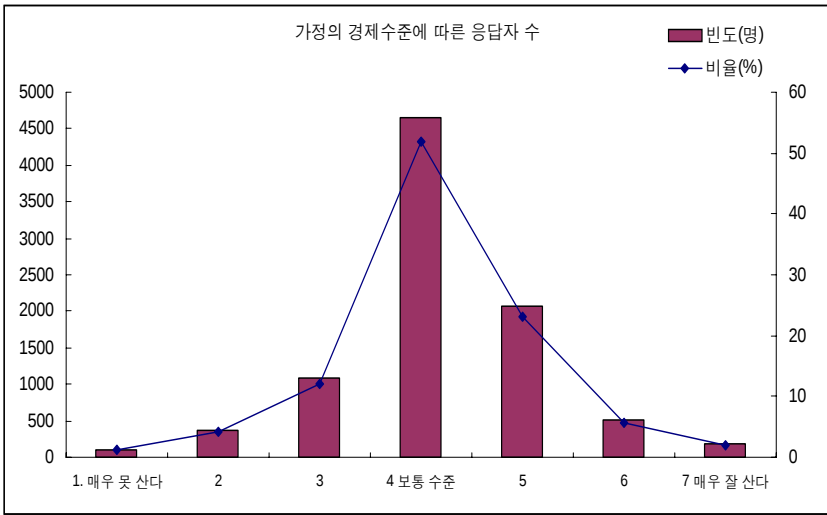


[그림Ⅲ-4] 설립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23.7%가 사립학교 재학 중이며, 76.3%에 해당하는 6977명은 공립 학교에 재학 중으로 서울·인천·경기권인 수도권일대에 거주하는 학생이 4114명으로 45.0%, 비수도권 학생이 5036명으로 5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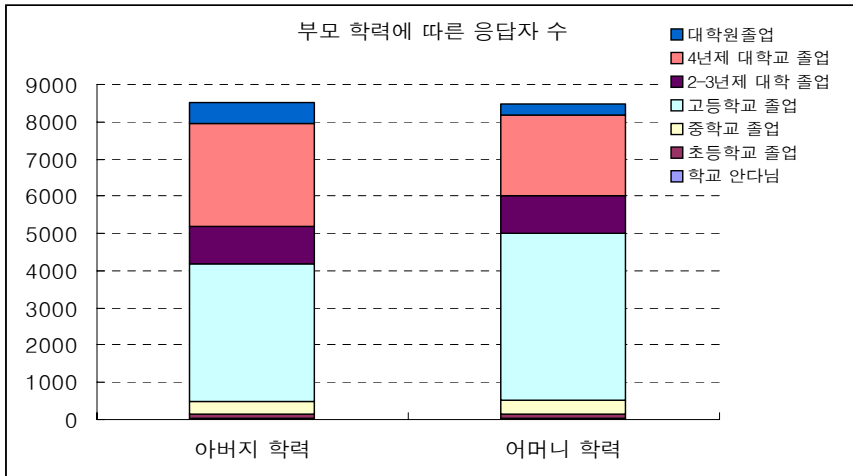


[그림Ⅲ-5]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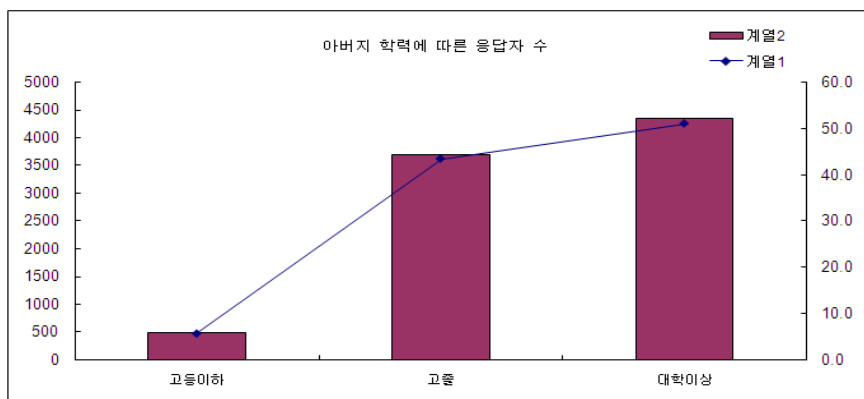
[그림Ⅲ-6]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가정의 경제수준은 응답자의 51.8%인 4,658명이 보통이라는 응답을 보였고, 31%인 2764명이 잘산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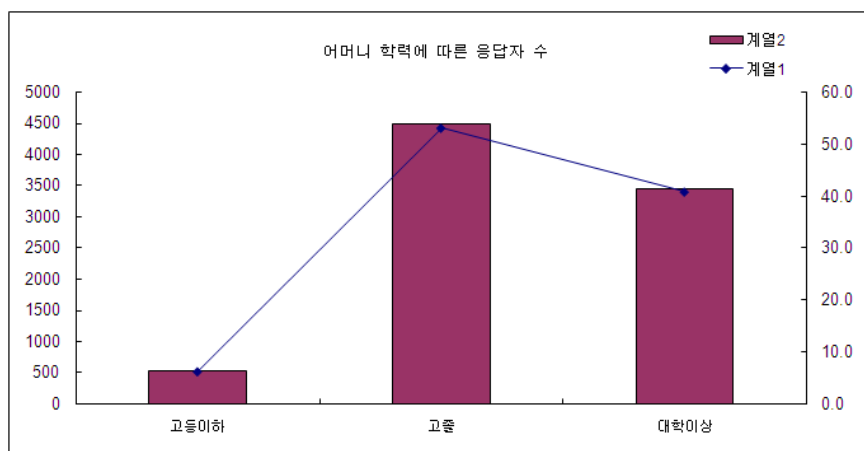


[그림Ⅲ-7] 부모학력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부모님 중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년제 대졸은 32.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 역시 고졸이 53.1%, 4년제 대졸이 2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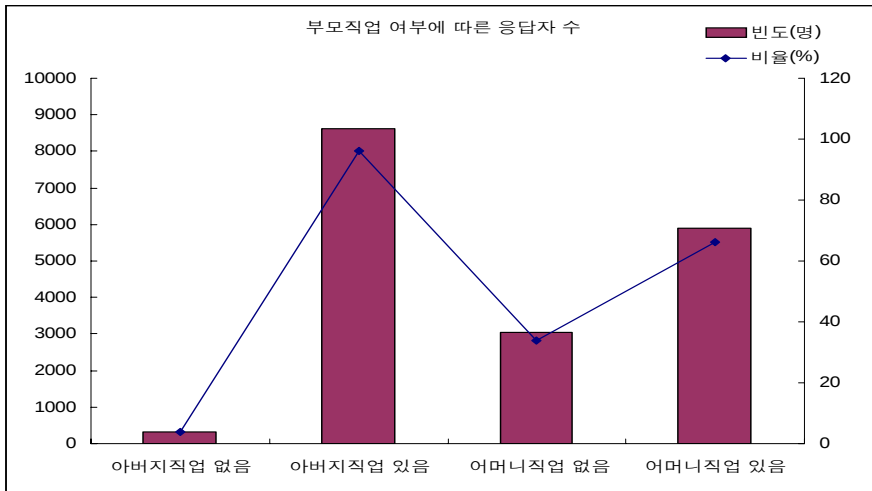
[그림 III-8] 아버지 학력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그림 III-9] 어머니 학력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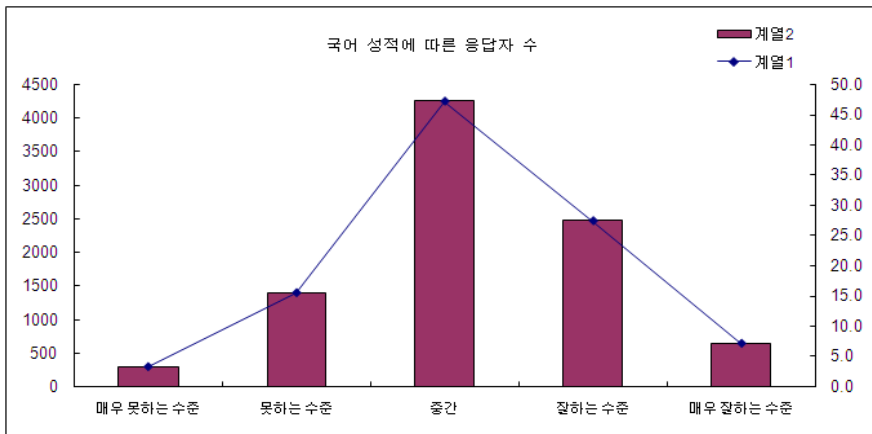
응답자 부모님 중 아버지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결측값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96.2%인 8,611명으로 대부분의 응답자 아버지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응답자의 66%인 5,889명의 어머니가 직

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10] 부모 직업유무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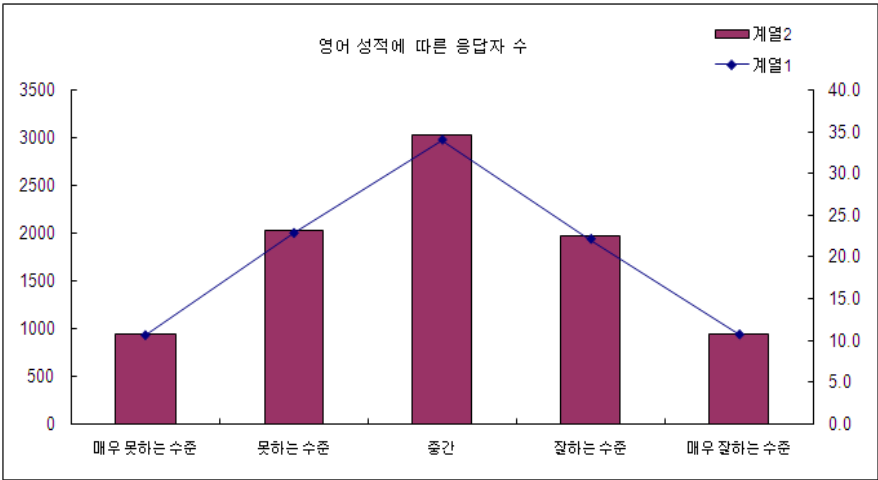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그림Ⅲ-11] 국어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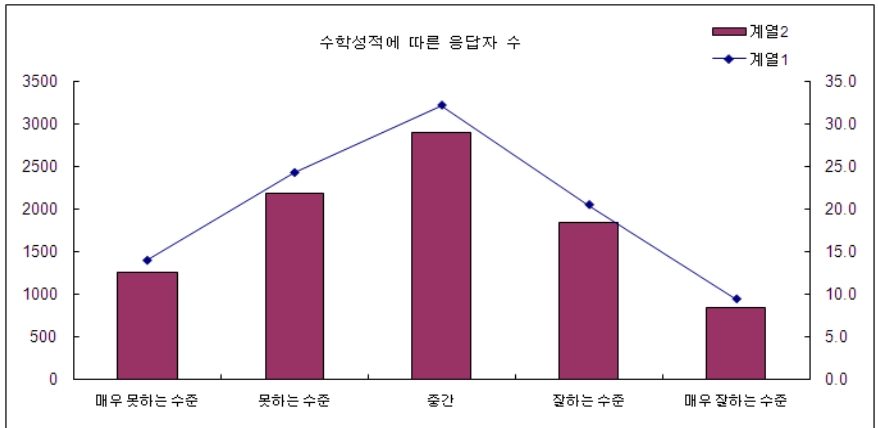
국어성적 46.6%인 4,262명이 보통이라는 응답을 보여 가장 많은 비

을 보였으며, 27.0%(2471명)는 잘한다, 15.2%가 못한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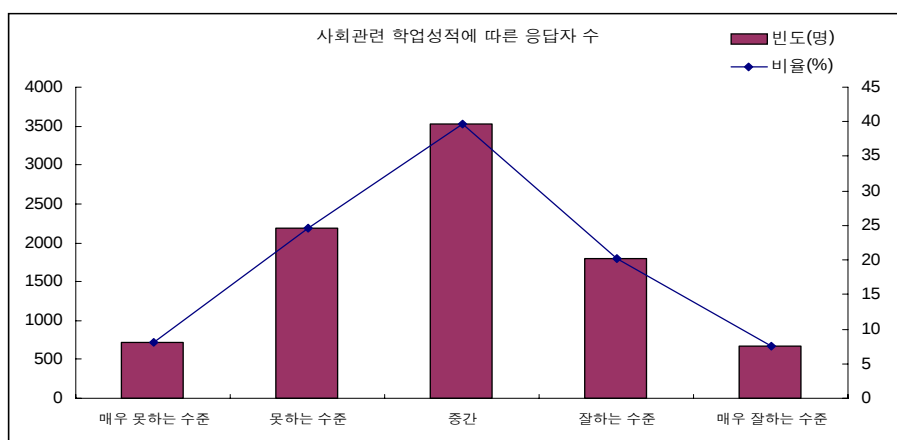
[그림Ⅲ-12] 영어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영어성적 33.1%인 3,026명이 보통이라는 응답을 보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22.2%(2,032명)는 못한다, 21.5%가 잘한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Ⅲ-13] 수학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수학성적 31.9%인 2,901명이 보통이라는 응답을 보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23.9%(2,186명)는 못한다, 20.2%가 잘한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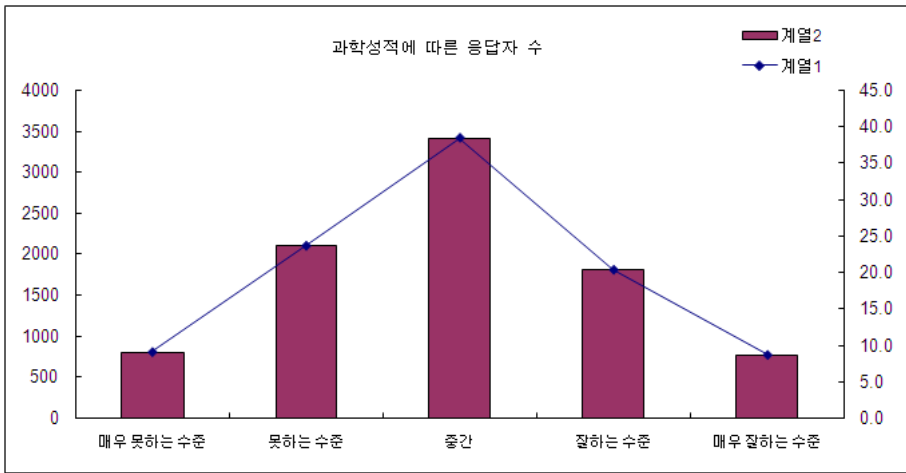
[그림Ⅲ-14] 사회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사회성적 39.6%인 3,520명이 보통이라는 응답을 보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32.7%(2904명)는 못한다, 27.7%가 잘한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성적 37.3%인 3,413명이 보통이라는 응답을 보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22.9%(2,098명)는 못한다, 19.7%가 잘한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2) 학교급에 따른 응답자 특징

학교급에 따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1412명(50.8%), 여학생이 1369명(49.2%)이며, 중학생은 남학생이 1474명(53.2%), 여학생이 1296명(46.8%),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1913명(53.2%) 여학생은 1686명(46.8%)로



[그림Ⅲ-15] 과학 성적에 따른 응답자의 수와 비율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은 4799명, 여학생은 4351명으로 남학생이 52.4%, 여학생이 47.6%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은 모두 남녀공학인데 반하여 중학교는 공학에 다니는 학생이 2049명으로 74.0%, 남학교 학생이 390명(14.1%), 여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331명(14.1%)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남녀공학이 1912명으로 53.1%, 남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811명으로 22.5%, 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876명으로 24.3%를 차지하였다.

학교유형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사립학교가 월등히 많아졌다. 즉, 초등학교의 사립학교 수는 29개로 전체의 1%에 그친 반면, 중학교는 491개로 17.7%가 사립학교 나머지 82.3%인 2279개의 학교는 공립학교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의 23.7%에 해당하는 2173명이 사립학교 출신으로 사립학교 출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 거주여부는 초등학생이 수도권에 1360명(48.9%), 중학생이 1300명(46.9%), 고등학생이 1454명(40.4%)이었으며, 이들의

아버지는 90이상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점점 직장을 가지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Ⅲ-2> 학교급별에 따른 응답자의 특징

		학교급(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412	50.8	1,474	53.2	1,913	53.2	4,799	52.4
	여자	1,369	49.2	1,296	46.8	1,686	46.8	4,351	47.6
	전체	2,781	100.0	2,770	100.0	3,599	100.0	9,150	100.0
공학여부	남녀공학	2,781	100.0	2,049	74.0	1,912	53.1	6,742	73.7
	남학교	0	0.0	390	14.1	811	22.5	1,201	13.1
	여학교	0	0.0	331	11.9	876	24.3	1,207	13.2
	전체	2,781	100.0	2,770	100.0	3,599	100.0	9,150	100.0
학교유형	사립	29	1.0	491	17.7	1,653	45.9	2,173	23.7
	공립	2,752	99.0	2,279	82.3	1,946	54.1	6,977	76.3
	전체	2,781	100.0	2,770	100.0	3,599	100.0	9,150	100.0
수도권거주유무	수도권	1,360	48.9	1,300	46.9	1,454	40.4	4,114	45.0
	비수도권	1,421	51.1	1,470	53.1	2,145	59.6	5,036	55.0
	전체	2,781	100.0	2,770	100.0	3,599	100.0	9,150	100.0
아버지직업유무	없음	81	3.0	79	2.9	176	5.0	336	3.8
	있음	2,629	97.0	2,643	97.1	3,339	95.0	8,611	96.2
	전체	2,710	100.0	2,722	100.0	3,515	100.0	8,947	100.0
어머니직업유무	없음	957	35.5	934	34.3	1,148	32.7	3,039	34.0
	있음	1,739	64.5	1,786	65.7	2,364	67.3	5,889	66.0
	전체	2,696	100.0	2,720	100.0	3,512	100.0	8,928	100.0

2. 사회적 상호작용 중 “관계지향성”

사회적 상호작용 중 “관계지향성”을 나타내는 항목은 ① 적극적 경청, ② 사람실패, ③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④ 공공에 대한 실패 분야 등 네 가지 변수로 나뉠 수 있다.

1) 적극적 경청

사회적 상호작용 중 적극적 경청은 설문지의 7개 문항 응답의 평균값으로 재 코딩하여 하나의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종속변수를 연령, 성별, 수도권 거주여부, 남녀공학 여부, 설립유형,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유무, 학업성적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55.804,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관계지향성 : 적극적 경청”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함수 총 변화량의 11.1%(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0.9%)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Ⅲ-3> 회귀분석 “관계지향성 : 적극적 경청”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01.502	17	17.735	55.804	0.000
잔차	2405.858	7570	0.318		
합계	2707.360	7587			
$R^2(\text{adj.}R^2) = .111(.109)$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적극적 경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초등학교 $t=-7.441$, 고등학교=9.090), 성별($t=13.599$), 수도권 거주여부($t=-3.828$), 가정의 경제적 수준($t=3.724$), 성적(국어 $t=3.724$, 영어 $t=7.802$, 사회 $t=5.082$)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르면 중학생을 학력급 더미변수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초등학교생($B=-0.134$)은 적극적 경청능력이 떨어졌으며, 고등학교생 일수록($B=0.151$) 적극적 경청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적극적 경청을 잘했으며, 비수도권학생보다 수도권 학생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경청을 잘하였다. 또한 국어, 영어, 사회 성적이 뛰어나수록 적극적 경청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성별, 연령_고등학교, 국어성적, 연령_초등학교, 영어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순으로 적극적 경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 관계지향성 : 적극적 경청”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상수)	2.657	0.057		46.657	0.000
중등기준_초등	-0.134	0.018	-0.100	-7.441	0.000
중등기준_고등	0.151	0.017	0.124	9.090	0.000
성별(남=0, 여1)	0.213	0.016	0.178	13.599	0.000
남녀공학_남	0.008	0.023	0.004	0.334	0.739
남녀공학_여	0.015	0.023	0.009	0.660	0.510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07	0.018	0.005	0.379	0.705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51	0.013	-0.042	-3.828	0.000
부학력	0.020	0.014	0.020	1.405	0.160
모학력	0.004	0.015	0.004	0.301	0.763

부직업(무=0, 유=1)	-0.033	0.035	-0.010	-0.920	0.358
모직업(무=0, 유=1)	-0.013	0.014	-0.010	-0.956	0.339
가정의 경제적수준	0.027	0.007	0.045	3.724	0.000
국어성적	0.075	0.010	0.111	7.685	0.000
영어성적	0.058	0.007	0.110	7.802	0.000
수학성적	0.009	0.007	0.018	1.259	0.208
사회성적	0.041	0.008	0.071	5.082	0.000
과학성적	0.014	0.008	0.026	1.694	0.090

2) 사람신뢰

관계지향성 중 사람신뢰에 대한 질문은 1개 문항으로 10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연령, 성별, 수도권 거주여부, 남녀공학 여부, 설립유형,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유무, 학업성적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25.747,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관계지향성 : 사람신뢰”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사람신뢰 총 변화량의 6.6%(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6.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다.

<표Ⅲ-5> 회귀분석 “관계지향성 : 사람신뢰”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2529.899	17	148.818	25.747	0.000
잔차	35755.596	6186	5.780		
합계	38285.495	6203			

$$R^2(\text{adj.}R^2) = .066(.064)$$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적극적 경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초등학교 $t=-4.361$, 고등학교 $t=-2.075$), 성별 ($t=3.506$), 가정의 경제적 수준($t=8.507$), 성적(국어 $t=2.491$, 영어 $t=4.164$, 사회 $t=4.393$, 과학 $t=2.125$)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초등학생($B=0.372$)이나 고등학생($B=0.163$)은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성적이 높을수록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연령_초등학생, 사회성적, 영어성적, 연령_고등학생 순으로 사람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6> “관계지향성 : 사람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2.768	0.270		10.243	0.000
중등기준_초등	0.372	0.085	0.067	4.361	0.000
중등기준_고등	0.163	0.078	0.032	2.075	0.038
성별(남=0, 여1)	0.259	0.074	0.052	3.506	0.000
남녀공학_남	0.046	0.108	0.006	0.423	0.672
남녀공학_여	0.095	0.109	0.013	0.870	0.384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82	0.085	0.014	0.961	0.337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08	0.063	0.002	0.128	0.898
부학력	-0.003	0.068	-0.001	-0.043	0.966
모학력	0.095	0.068	0.022	1.388	0.165
부직업(무=0, 유=1)	-0.061	0.166	-0.005	-0.365	0.715
모직업(무=0, 유=1)	-0.098	0.065	-0.019	-1.511	0.131
가정의 경제적수준	0.292	0.034	0.117	8.507	0.000

국어성적	0.114	0.046	0.040	2.491	0.013
영어성적	0.144	0.035	0.066	4.164	0.000
수학성적	-0.010	0.035	-0.005	-0.283	0.777
사회성적	0.166	0.038	0.069	4.393	0.000
과학성적	0.083	0.039	0.036	2.125	0.034

3)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관계지향성 중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은 항목별로 점수 척도가 달라 친척과의 관계,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여부, 또래에 비하여 모임 및 활동참여 정도, 부모와의 접촉의 양과 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친척들과의 접촉의 양과 질

먼저 친척들과의 접촉의 질과 양을 통한 주변사람들과의 접촉 정도는 F통계값이 48.403,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관계지향성 : 주변사람들과 접촉의 양과 질(친척들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주변사람들과의 접촉의 양과 질(친척들과의 접촉의 양과 질) 총 변화량의 8.1%(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7.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다.

<표Ⅲ-7> 회귀분석 “주변사람접촉(친척접촉)”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023.472	17	60.204	35.267	0.000
잔차	11690.223	6848	1.707		
합계	12713.695	6865			

$R^2(\text{adj.}R^2) = .081(.078)$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주변사람들과의 접촉의 양과 질(친척들과의 접촉의 양과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초등학교 $t=9.042$, 고등학교 $t=-10.495$), 수도권여부($t=2.262$), 어머니 직업유무($t=2.261$), 가정의 경제적 수준($t=5.506$)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르면 중학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초등학생은($B=0.396$) 친척들과의 접촉비율이 높았으며, 고등학생으로 진학하면 친척들과의 접촉정도($B=-0.425$)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여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 거주 학생이,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친척과의 접촉의 양과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연령_고등학생, 연령_초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 수도권 거주 여부, 어머니 직업유무 순으로 친척들과의 접촉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8> “주변사람접촉(친척접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 률
	B	표준오 차			
(상수)	2.612	0.140		18.678	0.000
중등기준_초등	0.396	0.044	0.131	9.042	0.000
중등기준_고등	-0.425	0.041	-0.153	-10.495	0.000
성별(남=0, 여1)	-0.070	0.038	-0.026	-1.829	0.067
남녀공학_남	-0.051	0.055	-0.013	-0.922	0.357
남녀공학_여	-0.098	0.057	-0.025	-1.726	0.084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29	0.045	0.009	0.642	0.521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73	0.032	0.027	2.262	0.024

부학력	-0.044	0.035	-0.019	-1.242	0.214
모학력	0.037	0.035	0.016	1.043	0.297
부직업(무=0, 유=1)	0.156	0.088	0.021	1.788	0.074
모직업(무=0, 유=1)	0.075	0.033	0.026	2.261	0.024
가정의 경제적수준	0.098	0.018	0.071	5.506	0.000
국어성적	-0.002	0.024	-0.001	-0.064	0.949
영어성적	-0.020	0.018	-0.016	-1.086	0.277
수학성적	0.014	0.018	0.012	0.753	0.451
사회성적	-0.008	0.020	-0.006	-0.405	0.686
과학성적	-0.023	0.020	-0.018	-1.126	0.260

(2)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여부

관계지향성 중 주변사람 접촉 중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유무에 대한 질문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만 응답을 찾을 수 있었다. 질문의 응답이 “있다 혹은 없다”의 범주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인 비밀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없다 0.8%, 있다 99.8%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74.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Ⅲ-9〉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관측		예측값			분류정확(%)
		없다	있다	전체	
개인적인 비밀문제를 상의할 사람 유무	없다	11	1397	1408	0.8
	있다	7	4047	4054	99.8
	전체	18	5444	5462	74.3
-2LL=6024.243					
X2(절편모형-이론모형)= 210.3(df=12, p=.00), Nagelkerke R-제곱=.056					

분석결과, 개별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령에 따라서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일수록,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일수록 비밀을 상의할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았으며, 남녀공학 학생들이 여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고민을 상대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이 높을수록, 영어성적이 우수할수록 통계적 .05유의수준에서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주변사람을 확보할 확률이 높았다.

<표Ⅲ-10>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양과 질 :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할 사람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연령 (중학교=0, 고등학교=1)	0.382	0.069	30.667	1	0.000	1.465
성별 (남=0, 여=1)	0.800	0.086	86.539	1	0.000	2.226
남녀공학_남	-0.126	0.090	1.946	1	0.163	0.881
남녀공학_여	-0.217	0.109	3.963	1	0.047	0.805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47	0.077	0.377	1	0.539	1.048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49	0.066	0.545	1	0.460	0.953
부학력	0.030	0.068	0.202	1	0.653	1.031
모학력	-0.040	0.070	0.326	1	0.568	0.961
부직업(없음=0, 있음=1)	0.147	0.159	0.848	1	0.357	1.158
모직업(없음=0, 있음=1)	-0.065	0.067	0.943	1	0.331	0.937
가정의 경제수준	0.143	0.036	16.032	1	0.000	1.154
학업성적_총	0.097	0.200	0.237	1	0.627	1.102
국어성적	-0.084	0.068	1.530	1	0.216	0.919
영어성적	0.128	0.055	5.440	1	0.020	1.136
수학성적	-0.028	0.063	0.195	1	0.659	0.973
사회성적	0.020	0.063	0.105	1	0.746	1.020
상수	-0.448	0.259	2.988	1	0.084	0.639

(3) 또래에 비하여 모임 및 활동참여 정도

관계지향성 중 같은 나이 또래들에 비하여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분석은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만 질문을 하였기에, 중·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또래비교 주변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정도는 F통계 값이 7.403,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총 변화량의 2.3%(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다.

<표Ⅲ-11> 회귀분석 “주변사람 접촉(사람들과의 만남과 활동참여율)”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12.179	16	7.011	7.403	0.000
잔차	4784.798	5052	0.947		
합계	4896.977	5068			
$R^2(\text{adj.}R^2) = .023(.020)$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남녀공학_남학교($t=-2.810$), 어머니의 직업 유무($t=1.989$), 가정의 경제적 수준($t=5.579$) 영어성적($t=3.394$)로 나타났다.

남녀공학에 비하여 남학교 학생은 주변사람들과의 만남에 소극적이었다. 반면,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성적이 높을수록 주변사람들과의 만남과 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영어성적, 남학교, 어머니의 직업 유무 순으로 주변사람들

과의 만남과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2〉 주변사람 접촉(사람들과의 만남과 활동참여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2.321	0.117		19.776	0.000
중등기준_고등	-0.003	0.030	-0.002	-0.112	0.911
성별(남=0, 여1)	0.042	0.036	0.021	1.169	0.243
남녀공학_남	-0.118	0.042	-0.047	-2.810	0.005
남녀공학_여	-0.069	0.043	-0.028	-1.599	0.110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40	0.033	0.019	1.202	0.230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34	0.028	-0.017	-1.190	0.234
부학력	0.019	0.029	0.012	0.644	0.519
모학력	0.017	0.030	0.010	0.549	0.583
부직업(무=0, 유=1)	0.142	0.073	0.028	1.942	0.052
모직업(무=0, 유=1)	0.058	0.029	0.028	1.989	0.047
가정의 경제적수준	0.089	0.016	0.086	5.579	0.000
국어성적	0.003	0.020	0.002	0.128	0.898
영어성적	0.054	0.016	0.060	3.394	0.001
수학성적	0.006	0.015	0.007	0.381	0.703
사회성적	-0.011	0.017	-0.011	-0.650	0.516
과학성적	-0.022	0.017	-0.024	-1.284	0.199

(4)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참여정도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변수는 부모님과
과의 활동정도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는 부모님과 의 일상적인 대화, 함
께하는 여가활동, 함께하는 저녁식사 빈도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7개의
개별 문항의 평균을 “주변사람들과의 접촉의 양과 질 : 부모님과 의 접
촉의 양과 질”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70.969,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관계지향성 : 주변사람들과의 양과 질(부모님과의 활동참여 정도)”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총 변화량의 13.8%(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3.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다.

<표Ⅲ-13> 회귀분석 “주변사람 접촉(가족접촉의 양과 질)”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682.727	17	40.160	70.969	0.000
잔차	4253.224	7516	0.566		
합계	4935.952	7533			

$R^2(\text{adj.}R^2) = .138(.136)$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초등학교 $t=4.409$, 고등학교 $t=-7.121$), 성별($t=11.356$), 부 학력($t=2.230$), 모직업 유무($t=-5.427$), 가정의 경제적 수준($t=10.637$), 영어성적($t=3.633$), 사회성적($t=6.888$), 과학성적($t=2.107$)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을 더미변수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초등일수록($B=0.106$) 가족 접촉의 양과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B=-0.158$) 부모님과의 대화의 빈도나 여가, 식사 공유시간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 사회, 과학분야의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님과의 접촉의 양과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모님과의 대화의 질과 양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성별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가족과의 접촉의 양과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Ⅲ-14> “주변사람 접촉(가족접촉의 양과 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상수)	1.297	0.076		17.035	0.000
중등기준_초등	0.106	0.024	0.059	4.409	0.000
중등기준_고등	-0.158	0.022	-0.096	-7.121	0.000
성별(남=0, 여1)	0.238	0.021	0.147	11.356	0.000
남녀공학_남	0.006	0.030	0.003	0.207	0.836
남녀공학_여	0.047	0.031	0.020	1.518	0.129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15	0.024	0.008	0.634	0.526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25	0.018	-0.015	-1.375	0.169
부학력	0.043	0.019	0.032	2.230	0.026
모학력	0.013	0.019	0.009	0.652	0.515
부직업(무=0, 유=1)	-0.069	0.047	-0.016	-1.468	0.142
모직업(무=0, 유=1)	-0.100	0.018	-0.058	-5.427	0.000
가정의 경제적수준	0.104	0.010	0.127	10.637	0.000
국어성적	0.022	0.013	0.024	1.681	0.093
영어성적	0.036	0.010	0.051	3.633	0.000
수학성적	0.016	0.010	0.023	1.570	0.116
사회성적	0.074	0.011	0.095	6.888	0.000
과학성적	0.024	0.011	0.031	2.107	0.035

4) 공공에 대한 신뢰

관계지향성 중 마지막 변수는 공공에 대한 신뢰로 종속변수는 국회(국회의원), 사법기관(검사, 판사 등), 경찰서(경찰), 정당(정치인, 당원 등), 국제연합(UN) 등 5개 분야에 대해 믿을만한지 여부를 10점 척도로 질문한 문항의 평균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공공에 대한 신뢰는 F통계값이 16.486,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관계지향성 : 공공에 대한 신뢰”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총 변화량의 5.1%(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Ⅲ-15> 회귀분석 “공공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878.137	16	54.884	16.486	0.000
잔차	16283.019	4891	3.329		
합계	17161.156	4907			
$R^2(\text{adj.}R^2) = .051(.048)$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공공에 대한 신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고등학교 $t=-9.875$), 남녀공학_여학교($t=-2.057$), 가정의 경제적 수준($t=3.437$), 영어성적($t=2.063$), 과학 성적($t=2.803$)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르면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들이 여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에 비하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성적과 과학성적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믿을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표Ⅲ-16> 공공에 대한 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3.435	0.222		15.458	0.000
중등기준_고등	-0.567	0.057	-0.150	-9.875	0.000
성별(남=0, 여1)	-0.128	0.068	-0.034	-1.874	0.061
남녀공학_남	-0.065	0.080	-0.014	-0.812	0.417
남녀공학_여	-0.170	0.083	-0.036	-2.057	0.040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117	0.063	0.030	1.860	0.063
수도권여부(수도권=0, 비수도권=1)	0.097	0.054	0.026	1.795	0.073

비수도권=1)					
부학력	0.009	0.056	0.003	0.167	0.867
모학력	-0.002	0.057	-0.001	-0.041	0.967
부직업(무=0, 유=1)	-0.024	0.139	-0.002	-0.172	0.864
모직업(무=0, 유=1)	0.003	0.055	0.001	0.060	0.952
가정의 경제적수준	0.103	0.030	0.053	3.437	0.001
국어성적	-0.066	0.039	-0.031	-1.712	0.087
영어성적	0.063	0.030	0.037	2.063	0.039
수학성적	0.046	0.030	0.028	1.563	0.118
사회성적	-0.059	0.032	-0.032	-1.850	0.064
과학성적	0.092	0.033	0.052	2.803	0.005

3. 사회적 상호작용 중 “사회적 협력”

사회적 상호작용 중 “사회적 협력”을 나타내는 항목은 ① 시민의식, ② 소속감, ③ 만족감 등 세 개 변수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1) 시민의식

시민의식의 경우, 정치관심, 종교이해, 권리책임, 민주적 절차 등 다시 세부적인 4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시민의식 중 정치관심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초등학생들을 제외한 중, 고등학교 설문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연령에 대한 분석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정치관심

사회적 협력 중 정치관심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라는 문항을 통해 4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응답내용 중 “모르겠다”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32.933,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정치관심)” 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적극적인 경청 총 변화량의 7.2%(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7.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Ⅲ-17> 회귀분석 “사회협력시민의식_정치관심”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77.107	17	22.183	32.933	0.000
잔차	4830.924	7172	0.674		
합계	5208.031	7189			

$R^2(\text{adj.}R^2) = .072(.070)$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_고등학생($t=5.565$), 학교설립유형($t=-2.360$), 가정의 경제적 수준($t=2.493$), 국어성적($t=4.574$), 영어성적($t=2.187$), 사회성적($t=13.202$)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사회적 협력분야의 시민의식 중 정치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에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공립학생보다는 사립학생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국어, 영어, 사회분야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정치에 관심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표Ⅲ-18> 사회협력 시민의식_정치관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1.599	0.085	18.710	0.000
중등기준_초등	0.014	0.027	0.007	0.517
중등기준_고등	0.138	0.025	0.080	5.565
성별(남=0, 여1)	-0.022	0.023	-0.013	-0.935
남녀공학_남	-0.001	0.034	0.000	-0.028
남녀공학_여	0.006	0.035	0.002	0.171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64	0.027	-0.032	-2.360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06	0.020	0.004	0.322	0.748
부학력	0.037	0.021	0.026	1.741	0.082
모학력	0.042	0.022	0.029	1.919	0.055
부직업(무=0, 유=1)	-0.089	0.053	-0.020	-1.679	0.093
모직업(무=0, 유=1)	-0.003	0.020	-0.002	-0.144	0.886
가정의 경제적수준	0.027	0.011	0.032	2.493	0.013
국어성적	0.067	0.015	0.069	4.574	0.000
영어성적	0.024	0.011	0.032	2.187	0.029
수학성적	-0.002	0.011	-0.002	-0.138	0.890
사회성적	0.160	0.012	0.194	13.202	0.000
과학성적	-0.004	0.013	-0.005	-0.329	0.742

(2) 종교이해

사회적 협력 중 시민의식의 종교이해에 대한 질문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만 응답을 찾을 수 있었다.

질문의 응답이 “거짓(0) 혹은 참(1)”의 범주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인정할 수 있다”라는 질문의 “참과 거짓”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참 0%, 거짓 100%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92.9%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Ⅲ-19>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관측		예측값			분류정확(%)
		참	거짓	전체	
많은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인정할 수 있다	참	0	390	390	0.0
	거짓	0	5105	5105	100.0
	전체	0	5495	5495	92.9
-2LL=2728.99					
X2(절편모형-이론모형)= 86.096(df=12, p=.00), Nagelkerke R-제곱= 0.039					

분석결과, 개별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성별, 어머니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그리고 국어성적과 과학 성적에 따라 종교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법으로 인정할 만 하다”에 “거짓”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참”이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0> 사회협력 : 시민의식 중 종교이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 도	유의 확률	Exp(B)
연령 (중학교=0, 고등학교=1)	0.113	0.115	0.971	1	0.324	1.120
성별(남=0, 여=1)	0.478	0.139	11.887	1	0.001	1.612
남녀공학_남	0.050	0.152	0.106	1	0.744	1.051
남녀공학_여	0.132	0.193	0.468	1	0.494	1.141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220	0.133	2.720	1	0.099	0.803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02	0.109	0.000	1	0.984	1.002
부학력	0.131	0.114	1.316	1	0.251	1.140
모학력	-0.281	0.118	5.679	1	0.017	0.755
부직업(없음=0, 있음=1)	-0.187	0.301	0.386	1	0.534	0.830
모직업(없음=0, 있음=1)	-0.233	0.117	3.934	1	0.047	0.792
가정의 경제수준	-0.026	0.060	0.186	1	0.667	0.975
학업성적_총	0.062	0.342	0.032	1	0.857	1.064
국어성적	0.246	0.115	4.572	1	0.032	1.278

영어성적	0.012	0.093	0.018	1	0.893	1.013
수학성적	0.079	0.107	0.542	1	0.461	1.082
사회성적	0.075	0.107	0.492	1	0.483	1.078
상수	1.874	0.452	17.227	1	0.000	6.517

(3) 권리의식

① 권리책임 1

사회적 협력 중 시민의식의 권리책임에 대한 질문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만 응답을 찾을 수 있었다. 권리책임에 대한 질문은 3개로 이루어졌으며, 각 질문의 응답이 “거짓(0) 혹은 참(1)”의 범주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라는 질문의 “참과 거짓”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참 0%, 거짓 100%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92.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Ⅲ-21>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관측		예측값			분류정확(%)
		참	거짓	전체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참	0	424	424	0.0
	거짓	0	5070	5070	100.0
	전체	0	5494	5494	92.3
-2LL=2874.770					
X2(절편모형-이론모형)= 111.936(df=12, p=.00), Nagelkerke R-제곱= .048					
거짓=0, 참=1					

분석결과, 개별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령, 성별, 아버지의 학력수준, 국어성적에 따라 권리책임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중학생 학생들에 비하여 “국가의 잘못을 이야기 할 권리가 있다”에 “참”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으며, 여학생들이 남학

생에 비하여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참”이라는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표 III-22> 사회협력 : 시민의식 중 권리의식(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연령 (중학교=0, 고등학교=1)	0.508	0.111	21.034	1	0.000	1.662
성별 (남=0, 여=1)	0.534	0.136	15.442	1	0.000	1.705
남녀공학_남	-0.021	0.146	0.021	1	0.886	0.979
남녀공학_여	-0.007	0.186	0.002	1	0.969	0.993
설립유형 (사립=0, 공립=1)	-0.144	0.130	1.237	1	0.266	0.866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124	0.107	1.360	1	0.243	0.883
부학력	0.225	0.109	4.284	1	0.038	1.252
모학력	-0.025	0.113	0.050	1	0.823	0.975
부직업(없음=0, 있음=1)	0.285	0.247	1.334	1	0.248	1.330
모직업(없음=0, 있음=1)	-0.081	0.110	0.545	1	0.461	0.922
가정의 경제수준	-0.102	0.058	3.100	1	0.078	0.903
학업성적_총	0.057	0.334	0.029	1	0.865	1.058
국어성적	0.305	0.111	7.502	1	0.006	1.357
영어성적	-0.011	0.090	0.015	1	0.901	0.989
수학성적	0.046	0.104	0.201	1	0.654	1.048
사회성적	0.064	0.104	0.370	1	0.543	1.066
상수	0.578	0.403	2.056	1	0.152	1.782

② 권리책임 2

사회적 협력 중 시민의식의 권리책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확률이 자격이 있다는 질문에 “거짓(0) 혹은 참(1)”의 범주형으로 응답하는 질문으로 종속변수를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라는 질문의 “참 거짓” 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참 0%, 거짓 100%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69.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Ⅲ-23>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관측		예측값			분류정확(%)
		참	거짓	전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참	0	1686	1686	0.0
	거짓	0	3810	3810	100.0
	전체	0	5496	5496	69.3
-2LL= 6722.124					
X2(절편모형-이론모형)= 54.342(df=12, p=.00), Nagelkerke R-제곱=.024					
참=0, 거짓=1					

분석결과, 개별독립변수 중 유일하게 성별에 따라서만 응답에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세금을 내는 어른들만 투표에 할 자격이 있다” 에 “거짓” 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4> 사회협력 : 시민의식 중 권리의식(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 도	유의확 률	Exp(B)
연령 (중학교=0, 고등학교=1)	-0.041	0.065	0.402	1	0.526	0.960
성별(남=0, 여=1)	0.350	0.077	20.660	1	0.000	1.420
남녀공학_남	0.043	0.088	0.239	1	0.625	1.044
남녀공학_여	-0.080	0.096	0.687	1	0.407	0.923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117	0.072	2.650	1	0.104	0.890

공립=1)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43	0.061	0.495	1	0.482	1.044
부학력	0.060	0.063	0.887	1	0.346	1.061
모학력	-0.075	0.065	1.338	1	0.247	0.927
부직업(없음=0, 있음=1)	0.080	0.154	0.274	1	0.601	1.084
모직업(없음=0, 있음=1)	0.003	0.062	0.003	1	0.956	1.003
가정의 경제수준	0.038	0.033	1.275	1	0.259	1.039
학업성적_총	-0.021	0.187	0.013	1	0.910	0.979
국어성적	0.142	0.063	5.022	1	0.025	1.152
영어성적	-0.007	0.051	0.021	1	0.885	0.993
수학성적	-0.031	0.058	0.274	1	0.601	0.970
사회성적	0.009	0.059	0.023	1	0.878	1.009
상수	0.237	0.245	0.936	1	0.333	1.268

③ 권리책임 3

시민의식 중 권리책임의 세 번째는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는 질문에 “거짓(0) 혹은 참(1)” 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종속변수를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권리책임의 세 번째 질문의 “참, 거짓” 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참 0%, 거짓 100%가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83.2%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Ⅲ-25>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관측		예측값			분류정확(%)
		참	거짓	전체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참	0	924	924	0.0
	거짓	0	4573	4573	100.0
	전체	0	5497	5497	83.2

-2LL= 4918.926
X2(절편모형-이론모형)= 59.679(df=12, p=.00), Nagelkerke R-제곱=0.018

분석결과, 개별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성별, 학교설립 유형,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 권리책임(3)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에 “참”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학교 학생보다 공립학교 학생일수록 “거짓”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표Ⅲ-26> 사회협력 : 시민의식 중 권리의식(3)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 도	유의 확률	Exp(B)
연령 (중학교=0, 고등학교=1)	0.140	0.079	3.114	1	0.078	1.150
성별(남=0, 여=1)	0.277	0.095	8.511	1	0.004	1.319
남녀공학_남	-0.088	0.107	0.672	1	0.412	0.916
남녀공학_여	-0.048	0.122	0.156	1	0.693	0.953
설립유형(사립=0,공 립=1)	-0.263	0.091	8.451	1	0.004	0.769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18	0.075	0.057	1	0.812	0.982
부학력	0.158	0.078	4.149	1	0.042	1.171
모학력	-0.009	0.080	0.013	1	0.908	0.991
부직업(없음=0, 있음=1)	-0.103	0.199	0.267	1	0.605	0.902
모직업(없음=0, 있음=1)	0.106	0.076	1.944	1	0.163	1.112
가정의 경제수준	-0.065	0.042	2.455	1	0.117	0.937

학업성적_총	0.062	0.233	0.071	1	0.790	1.064
국어성적	0.142	0.078	3.309	1	0.069	1.153
영어성적	-0.011	0.063	0.030	1	0.862	0.989
수학성적	-0.003	0.072	0.002	1	0.963	0.997
사회성적	0.007	0.073	0.008	1	0.928	1.007
상수	0.969	0.306	10.02 6	1	0.002	2.635

거짓=0, 참=1

(4) 민주절차

① 민주절차

사회적 협력의 시민의식 중 마지막 변수는 민주절차로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결정을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와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해주면 된다”는 질문의 응답을 평균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공공에 대한 신뢰는 F통계값이 11.458,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민주절차)”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총 변화량의 3.3%(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

<표Ⅲ-27> 회귀분석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민주절차)”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66.881	16	10.430	11.458	0.000
잔차	4962.092	5451	0.910		
합계	5128.973	5467			

$R^2(\text{adj.}R^2)=.033(.030)$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민주절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별($t=-7.824$), 남녀공학_남($t=-2.425$), 국어성적($t=-4.124$)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남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는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또한 국어과목의 성적이 높을수록 민주적 절차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고 잘살게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을 보였다. 즉, 여학생일수록, 남녀공학 학생이,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8> “사회적 협력 : 시민의식(민주절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3.220	0.109		29.513	0.000
중등기준_고등	-0.045	0.028	-0.023	-1.573	0.116
성별(남=0, 여1)	-0.264	0.034	-0.136	-7.824	0.000
남녀공학_남	-0.096	0.040	-0.039	-2.425	0.015
남녀공학_여	-0.042	0.041	-0.017	-1.031	0.303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26	0.031	-0.013	-0.825	0.410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23	0.027	-0.012	-0.865	0.387
부학력	-0.048	0.028	-0.030	-1.731	0.084
모학력	0.001	0.029	0.000	0.018	0.985
부직업(무=0, 유=1)	-0.040	0.069	-0.008	-0.576	0.565
모직업(무=0, 유=1)	0.005	0.027	0.002	0.170	0.865
가정의 경제적수준	-0.016	0.015	-0.016	-1.096	0.273
국어성적	-0.079	0.019	-0.072	-4.124	0.000
영어성적	-0.012	0.015	-0.013	-0.786	0.432
수학성적	0.015	0.015	0.018	1.057	0.291
사회성적	-0.029	0.016	-0.031	-1.830	0.067
과학성적	-0.030	0.016	-0.032	-1.800	0.072

② 정부의 비민주적인 이유

“어떤 경우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은 4지 선다형으로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으로 나머지 답은 “오답” 으로 설정되었다. 위의 질문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만 응답을 찾을 수 있었다. 질문의 응답이 “오답 혹은 정답” 의 범주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인 비밀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오답을 맞힐 확률 71.7%, 정답을 맞힐 확률 44.4%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59.2%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Ⅲ-29> 모형검정 “비 민주적 정부” 분류의 정확도

관측		예측값			분류 정확(%)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비민주적정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답	2120	837	2957	71.7
	정답	1384	1106	2490	44.4
	전체	3504	1943	5447	59.2
-2LL = 7272.809					
X2(절편모형-이론모형)= 240.248(df=12, p=.00), Nagelkerke R-제곱=.058					

분석결과, 개별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령에 따라서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일수록,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일수록 비민주적인 정부란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

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는 정답에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국어성적이 우수할수록 정답에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표Ⅲ-30> 비 민주적 정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연령 (중학교=0, 고등학교=1)	0.608	0.062	96.906	1	0.000	1.837
성별 (남=0, 여=1)	0.201	0.073	7.604	1	0.006	1.222
남녀공학_남	0.158	0.085	3.420	1	0.064	1.171
남녀공학_여	0.137	0.088	2.427	1	0.119	1.147
설립유형 (사립=0, 공립=1)	0.063	0.067	0.893	1	0.345	1.065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46	0.058	0.639	1	0.424	0.955
부학력	0.241	0.060	16.083	1	0.000	1.273
모학력	-0.025	0.062	0.160	1	0.689	0.976
부직업 (없음=0, 있음=1)	0.020	0.149	0.019	1	0.891	1.021
모직업 (없음=0, 있음=1)	-0.013	0.059	0.050	1	0.823	0.987
가정의 경제수준	-0.037	0.032	1.313	1	0.252	0.964
학업성적_총	0.073	0.176	0.169	1	0.681	1.075
국어성적	0.206	0.060	11.974	1	0.001	1.229
영어성적	-0.025	0.048	0.271	1	0.603	0.975
수학성적	0.008	0.055	0.022	1	0.881	1.008
사회성적	0.103	0.055	3.498	1	0.061	1.109
상수	-2.159	0.240	80.880	1	0.000	0.115
오답=0, 정답=1						

2) 소속감

(1) 소속감 1

소속감에 대한 변수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 먼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 전반적인 만족도(5점 척도)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5개 질문, 5점 척도)을 평균으로 하나의 소속감 변수를 설정하였다. 특히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 중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와 “우리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라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으로 다른 긍정문의 질문내용과는 응답패턴이 달라 응답내용을 재코딩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협력 : 소속감(1)에 대한 F통계값이 151.943,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사회적 협력 : 소속감(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총 변화량의 25.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5.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함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Ⅲ-31> 회귀분석 “사회적 협력_소속감1”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544.201	17	32.012	151.943	0.000
잔차	1593.187	7562	0.211		
합계	2137.388	7579			

$R^2(\text{adj.}R^2) = .255(.253)$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_초등학교($t=27.096$), 연령_고등학교($t=-5.032$), 성별($t=6.967$), 학교설립 유형($t=3.853$), 어머니 학력($t=2.699$), 부모님 직업_아버지 직업유무($t=-3.673$), 부모님 직업_어머니 직업유무($t=-2.253$), 가정의 경제적 수준($t=5.833$), 국어성적($t=2.429$), 영어성적($t=2.429$), 사회성적($t=3.304$), 과학성적($t=4.118$)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비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사립학생들 보다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고,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등의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부모님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교생활의 만족감이나 소속감은 낮아졌다.

<표Ⅲ-32> “협력_소속감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2.229	0.046		48.158	0.000
중등기준_초등	0.397	0.015	0.335	27.096	0.000
중등기준_고등	-0.068	0.014	-0.063	-5.032	0.000
성별(남=0, 여1)	0.089	0.013	0.083	6.967	0.000
남녀공학_남	0.007	0.018	0.005	0.383	0.702
남녀공학_여	0.004	0.019	0.003	0.205	0.838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57	0.015	0.046	3.853	0.000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14	0.011	-0.013	-1.296	0.195
부학력	0.001	0.012	0.001	0.062	0.951
모학력	0.032	0.012	0.036	2.699	0.007
부직업(무=0, 유=1)	-0.106	0.029	-0.037	-3.673	0.000
모직업(무=0, 유=1)	-0.025	0.011	-0.022	-2.253	0.024
가정의 경제적수준	0.035	0.006	0.065	5.833	0.000
국어성적	0.019	0.008	0.032	2.429	0.015
영어성적	0.014	0.006	0.031	2.398	0.016
수학성적	0.011	0.006	0.024	1.809	0.070
사회성적	0.022	0.007	0.043	3.304	0.001
과학성적	0.028	0.007	0.057	4.118	0.000

(2) 소속감 2

소속감의 두 번째 변수는 “학교생활 중 최근 1년 동안 휴학, 지각, 무단결석, 사회봉사 혹은 등교정지 등의 징계경험을 물어보는 것” 으로 각 4점 척도의 질문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26.199,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사회적 협력 : 소속감(2)” 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총 변화량의 5.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5.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Ⅲ-33> 회귀분석 “협력_소속감2” 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58.374	17	3.434	26.199	0.000
잔차	993.728	7582	0.131		
합계	1052.102	7599			

$R^2(\text{adj.}R^2) = .055(.053)$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_초등학생($t=2.500$), 성별($t=-5.627$), 남녀공학 유무(남 $t=-4.489$, 여 $t=-4.197$), 부모님 직업_어머니 직업유무($t=3.370$), 국어성적($t=-1.973$), 영어성적($t=-3.694$), 수학성적($t=-6.326$), 사회성적($t=-4.966$), 과학성적($t=-2.545$)로 나타났다.

휴학, 지각, 무단결석, 징계 등의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적었으며, 남녀공학에 비하여 남학교일수록, 혹은 여학교 일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휴학, 지각, 무단결석, 징계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부모 중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휴학, 지각, 무단결석, 및 징계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34〉 “사회적 협력_소속감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1.627	0.036		44.619	0.000
중등기준_초등	0.029	0.012	0.035	2.500	0.012
중등기준_고등	-0.018	0.011	-0.024	-1.732	0.083
성별(남=0, 여1)	-0.056	0.010	-0.076	-5.627	0.000
남녀공학_남	-0.065	0.015	-0.060	-4.489	0.000
남녀공학_여	-0.063	0.015	-0.058	-4.197	0.000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04	0.012	0.005	0.357	0.721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11	0.009	-0.015	-1.273	0.203
부학력	-0.003	0.009	-0.005	-0.315	0.753
모학력	0.009	0.009	0.014	0.949	0.343
부직업(무=0, 유=1)	-0.007	0.023	-0.003	-0.303	0.762
모직업(무=0, 유=1)	0.030	0.009	0.038	3.370	0.001
가정의 경제적수준	-0.008	0.005	-0.020	-1.616	0.106
국어성적	-0.012	0.006	-0.030	-1.973	0.049
영어성적	-0.018	0.005	-0.054	-3.694	0.000
수학성적	-0.030	0.005	-0.095	-6.326	0.000
사회성적	-0.026	0.005	-0.072	-4.966	0.000
과학성적	-0.014	0.005	-0.040	-2.545	0.011

3) 만족감

사회적 협력 중 마지막 변수인 만족감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정도를 10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응답결과 중 “모르겠음” 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협력 : 만족감”에 대한 F통계값이 58.493,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사회적

협력 : 만족감” 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총 변화량의 12.4%(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2.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됨으로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Ⅲ-35> 회귀분석 “협력_만족감” 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870.586	17	227.682	58.493	0.000
잔차	27301.661	7014	3.892		
합계	31172.247	7031			
$R^2(\text{adj.}R^2) = .124(.122)$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_초등학교($t=10.593$), 가정의 경제적 수준($t=12.817$), 국어성적($t=2.694$), 영어성적($t=5.135$), 수학성적($t=2.001$), 사회성적($t=3.382$)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경제적수준, 성적이었으며, 초등학생들이 중, 고등학생들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성적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36> “협력_만족감”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4.021	0.210		19.170	0.000
중등기준_초등	0.692	0.065	0.148	10.593	0.000
중등기준_고등	-0.080	0.061	-0.019	-1.319	0.187
성별 (남=0, 여1)	0.001	0.057	0.000	0.014	0.989
남녀공학_남	0.098	0.083	0.016	1.174	0.240
남녀공학_여	-0.040	0.085	-0.007	-0.467	0.640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51	0.066	0.010	0.770	0.441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10	0.048	-0.002	-0.209	0.835
부학력	-0.065	0.052	-0.018	-1.249	0.212
모학력	-0.027	0.053	-0.008	-0.520	0.603
부직업(무=0, 유=1)	-0.100	0.131	-0.009	-0.768	0.443
모직업(무=0, 유=1)	-0.030	0.050	-0.007	-0.608	0.543
가정의 경제적수준	0.341	0.027	0.160	12.817	0.000
국어성적	0.095	0.035	0.040	2.694	0.007
영어성적	0.138	0.027	0.074	5.135	0.000
수학성적	0.054	0.027	0.030	2.001	0.045
사회성적	0.099	0.029	0.049	3.382	0.001
과학성적	0.047	0.030	0.024	1.558	0.119

4. 사회적 상호작용 중 “갈등관리”

사회적 상호작용 중 “갈등관리”를 나타내는 항목은 ① 문제인식 해결능력, ② 이민자에 대한 태도, ③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④ 다수정당 존재 이유 등 네 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문제인식 해결

갈등관리 중 문제인식해결에 대한 변수는 문제 인식과 해결에 관련된 3개 문항(문제해결의 방해요소를 생각해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한다, 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한다)을 평균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갈등관리 : 문제해결”에 대한 F통계값이 36.397,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문제인식 해결”을 유의미하

계 설명하였다. 총 변화량의 7.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7.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함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Ⅲ-37> 회귀분석 “갈등관리_문제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280.050	17	16.474	36.397	0.000
잔차	3440.732	7602	0.453		
합계	3720.782	7619			
$R^2(\text{adj.}R^2) = .075(.073)$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_초등학교($t=-3.961$), 연령_고등학교($t=7.593$), 성별($t=2.665$), 수도권여부($t=-3.325$), 어머니 학력($t=3.554$) 국어성적($t=7.587$), 영어성적($t=4.503$), 수학성적($t=3.753$), 사회성적($t=5.771$)로 나타남.

갈등관리 중 문제해결 인식은 중학생에 비하여 초등학생은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고등학생일수록 문제해결 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과 수도권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학업성적이 우수 할수록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국어성적, 사회성적, 영어성적 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38> “갈등관리_문제인식해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2.435	0.068	35.904	0.000
중등기준_초등	-0.085	0.021	-3.961	0.000
중등기준_고등	0.150	0.020	7.593	0.000

성별(남=0, 여1)	0.050	0.019	0.035	2.665	0.008
남녀공학_남	0.014	0.027	0.007	0.512	0.609
남녀공학_여	-0.038	0.028	-0.019	-1.377	0.169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15	0.022	0.009	0.693	0.488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53	0.016	-0.038	-3.325	0.001
부학력	-0.005	0.017	-0.004	-0.301	0.763
모학력	0.061	0.017	0.052	3.554	0.000
부직업(무=0, 유=1)	0.036	0.042	0.009	0.840	0.401
모직업(무=0, 유=1)	-0.016	0.016	-0.011	-0.961	0.336
가정의 경제적수준	0.014	0.009	0.019	1.571	0.116
국어성적	0.088	0.012	0.112	7.587	0.000
영어성적	0.040	0.009	0.065	4.503	0.000
수학성적	0.033	0.009	0.055	3.753	0.000
사회성적	0.056	0.010	0.082	5.771	0.000
과학성적	0.018	0.010	0.028	1.794	0.073

2) 이민자에 대한 태도

(1) 이민자에 대한 태도(1)

갈등관리 중 이민자에 대한 태도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외국인들을 얼마나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고려인 조선족과 같은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 우리민족이 아닌 외국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중 세 개의 영역에 대한 질문 결과를 평균으로 하였다. 응답내용 중 “모르겠다”는 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갈등관리 : 이민자에 대한 태도(1)”에 대한 F통계값이 7.515,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1)”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총 변화량의 1.9%(수정 결정계수

에 의하면 1.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를 설명하였다.

<표Ⅲ-39> 회귀분석 “갈등관리_이민자태도(1)”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43.726	17	2.572	7.515	0.000
잔차	2255.196	6589	0.342		
합계	2298.922	6606			

$R^2(\text{adj.}R^2) = .019(.016)$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_초등학교($t=-3.178$), 연령_고등학교($t=2.070$), 성별($t=2.250$), 수도권여부($t=-2.418$), 가정의 경제적 수준($t=-2.322$), 국어성적($t=5.329$), 영어성적($t=2.493$), 사회성적($t=2.403$)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에 비하여 초등학생들은 이민자들을 허용하는 정도가 낮은 반면, 고등학생들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식이 높았다.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비수도권 학생들에 비하여 수도권 학생들이, 국어, 영어, 사회 등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Ⅲ-40> “갈등관리_이민자태도(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2.701	0.065		41.701	0.000
중등기준_초등	-0.064	0.020	-0.048	-3.178	0.001
중등기준_고등	0.038	0.018	0.032	2.070	0.038
성별(남=0, 여1)	0.039	0.017	0.033	2.250	0.024
남녀공학_남	0.015	0.026	0.009	0.586	0.558
남녀공학_여	-0.012	0.025	-0.007	-0.483	0.629
설립유형(사립=0,	-0.006	0.020	-0.004	-0.285	0.775

공립=1)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36	0.015	-0.030	-2.418	0.016
부학력	0.005	0.016	0.005	0.312	0.755
모학력	0.017	0.016	0.017	1.026	0.305
부직업(무=0, 유=1)	-0.022	0.040	-0.007	-0.546	0.585
모직업(무=0, 유=1)	0.011	0.015	0.009	0.710	0.478
가정의 경제적수준	-0.019	0.008	-0.032	-2.322	0.020
국어성적	0.058	0.011	0.086	5.329	0.000
영어성적	0.021	0.008	0.040	2.493	0.013
수학성적	-0.008	0.008	-0.016	-1.005	0.315
사회성적	0.021	0.009	0.038	2.403	0.016
과학성적	0.002	0.009	0.004	0.208	0.835

(2) 이민자에 대한 태도(2)

두 번째 변수인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경제, 문화수준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에 이바지 하는 지에 대한 인식조사로 10점 척도로 분석한 내용을 평균으로 하여 종속 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이민자에 대한 태도(2)는 F통계값이 6.046,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2)”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총 변화량의 2.9%(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Ⅲ-41> 회귀분석 “갈등관리_이민자태도(2)”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40.379	16	21.274	6.046	0.000
잔차	11365.377	3230	3.519		
합계	11705.756	3246			

$R^2(\text{adj.}R^2) = .029(.024)$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수도권 여부($t=2.207$)와 국어성적($t=3.742$)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영향을 미쳤던 초등더미에 비하여 중·고등학생들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등학생들의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서는 수도권 여부에 따라서는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에 비하여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어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여전히 이민자들의 사회공헌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Ⅲ-42> 갈등관리_이민자태도(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3.894	0.282		13.796	0.000
중등기준_고등	0.031	0.073	0.008	0.430	0.668
성별(남=0, 여1)	-0.004	0.087	-0.001	-0.051	0.960
남녀공학_남	0.187	0.100	0.039	1.871	0.061
남녀공학_여	0.114	0.107	0.023	1.068	0.285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122	0.080	0.030	1.531	0.126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156	0.068	-0.041	-2.282	0.023
부학력	0.125	0.071	0.039	1.750	0.080
모학력	0.132	0.072	0.041	1.827	0.068
부직업(무=0, 유=1)	-0.063	0.170	-0.007	-0.371	0.710
모직업(무=0, 유=1)	-0.009	0.070	-0.002	-0.129	0.897
가정의 경제적수준	0.010	0.037	0.005	0.279	0.780

국어성적	0.172	0.049	0.079	3.522	0.000
영어성적	0.070	0.038	0.041	1.851	0.064
수학성적	0.061	0.037	0.037	1.665	0.096
사회성적	0.012	0.040	0.006	0.299	0.765
과학성적	-0.009	0.041	-0.005	-0.208	0.835

3)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최근에 철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남의 집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석방된 후 철수는 영희라는 사람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영희는 “철수가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갈등관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결과 중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옥에서 석방된 철수가 영희의 옆집으로 이사가려고 할 때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1) 다음 중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은 4지 선다형으로 그 중 정답은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다. 응답 내용 중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은 오답으로 설정하였다. 질문의 응답을 “정답 혹은 오답”의 범주형으로 재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정답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오답을 구분할 확률 99.8%, 정답을 구분할 확률 1.0%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63.9%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Ⅲ-43〉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양한 가치의 수용(1)”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관측		예측값			분류정확(%)
		오답	정답	전체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이유는?	오답	3484	8	3492	99.8
	정답	1975	19	1994	1.0
	전체	5459	27	5486	63.9
-2LL= 7122.642					
X2(절편모형-이론모형)= 68.286(df=16, p=.00), Nagelkerke R-제곱= .017					

개별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령에 따라서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정답에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영어성적이 높을 경우 오히려 다양한 가치의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4〉 “다양한 가치의 수용(1)” 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 도	유의 확률	Exp(B)
연령 (중학교=0, 고등학교=1)	0.265	0.062	18.021	1	0.000	1.303
성별(남=0, 여=1)	-0.135	0.074	3.275	1	0.070	0.874
남녀공학_남	0.136	0.086	2.518	1	0.113	1.146
남녀공학_여	0.129	0.091	2.034	1	0.154	1.138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50	0.068	0.540	1	0.463	1.051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104	0.059	3.120	1	0.077	0.901
부학력	0.169	0.061	7.618	1	0.006	1.184
모학력	0.012	0.062	0.038	1	0.846	1.012
부직업(없음=0,	0.171	0.156	1.202	1	0.273	1.186

있음=1)						
모직업(없음=0, 있음=1)	0.037	0.060	0.370	1	0.543	1.037
가정의 경제수준	0.018	0.032	0.315	1	0.575	1.018
학업성적_총	0.177	0.179	0.974	1	0.324	1.193
국어성적	0.091	0.061	2.239	1	0.135	1.095
영어성적	-0.145	0.049	8.737	1	0.003	0.865
수학성적	-0.006	0.056	0.012	1	0.911	0.994
사회성적	-0.035	0.056	0.388	1	0.533	0.966
상수	-1.625	0.244	44.450	1	0.000	0.197

(2)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은 4지 선다형으로 그 중 정답은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있다. 응답 내용 중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은 오답으로 설정하였다. 질문의 응답을 “정답 혹은 오답”의 범주형으로 재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정답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오답을 구분할 확률 7.9%, 정답을 구분할 확률 97.5%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70.8%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Ⅲ-45>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양한 가치의 수용(2)”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관측		예측값			분류정확(%)
		오답	정답	전체	
철수가 옆집에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답	128	1502	1630	7.9
	정답	98	3754	3852	97.5
	전체	226	5256	5482	70.8
-2LL= 6398.587					
X2(절편모형-이론모형)= 274.003(df=16, p=.00), Nagelkerke R-제곱= .069					

개별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령에 따라서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일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남녀공학 학생보다는 남학교가, 국어, 수학, 사회 학업 성적이 우수할수록 다양한 가치의 수요(2)에 정답을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학생들은 수도권 학생에 비하여 오답에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표Ⅲ-46> “다양한 가치의 수용(2)”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 도	유의 확률	Exp(B)
연령 (중학교=0, 고등학교=1)	0.380	0.066	33.015	1	0.000	1.463
성별 (남=0, 여=1)	0.562	0.079	50.527	1	0.000	1.754
남녀공학_남	0.271	0.091	8.795	1	0.003	1.311
남녀공학_여	-0.009	0.101	0.009	1	0.926	0.991
설립유형 (사립=0, 공립=1)	-0.081	0.075	1.164	1	0.281	0.923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181	0.063	8.162	1	0.004	0.834
부학력	0.087	0.065	1.812	1	0.178	1.091
모학력	0.092	0.067	1.904	1	0.168	1.097
부직업 (없음=0, 있음=1)	0.257	0.156	2.709	1	0.100	1.293
모직업 (없음=0, 있음=1)	-0.091	0.065	1.983	1	0.159	0.913
가정의 경제수준	-0.065	0.035	3.556	1	0.059	0.937
학업성적_총	-0.248	0.196	1.608	1	0.205	0.780
국어성적	0.315	0.066	22.904	1	0.000	1.370
영어성적	0.088	0.053	2.768	1	0.096	1.092
수학성적	0.130	0.061	4.555	1	0.033	1.138
사회성적	0.187	0.061	9.356	1	0.002	1.206
상수	-1.193	0.252	22.469	1	0.000	0.303

(3) 공정과 인정, 조망

어느 날 한 노인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노인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경찰의 친한 친구 부모님이었다. 그 경찰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Q1)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적발하여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Q2)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모르는 척 눈감아 준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황을 설정 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는 조사하였다. 세부변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벌금을 매긴다면, “공적이다, 좋다, 인간적이다, 합리적이다, 인정있다. 공정하다, 너그럽다, 원칙적이다” 등 8가지 종속변수로 설정되었다. 종속변수는 -3에서 3점까지 7점 척도로 설정되었으나, 분석을 위하여 “공정”에 대한 변수를 재코딩하였다.

① 공정

다양한 가치의 수용 중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보고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여부를 분석하였다.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연령, 성별, 거주지의 수도권여부, 학교의 남녀공학여부, 설립유형,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13.236,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공정”을 유의미하

게 설명하고 있었다. 함수 총 변화량의 3.7%(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Ⅲ-47> 회귀분석 “공정”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1434.221	16	714.639	13.236	0.000
잔차	296196.106	5486	53.991		
합계	307630.327	5502			
$R^2(\text{adj.}R^2) = .037(.034)$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별(=7.925), 부 학력(t=3.236), 국어성적(t=4.885), 수학적 성적(t=3.130)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공정” 할 확률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국어,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공정” 할 확률이 높았다.

<표Ⅲ-48> “공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4.116	0.836		4.922	0.000
중등기준_고등	0.076	0.218	0.005	0.350	0.726
성별(남=0, 여1)	2.049	0.259	0.137	7.925	0.000
남녀공학_남	0.477	0.304	0.025	1.567	0.117
남녀공학_여	-0.300	0.316	-0.016	-0.949	0.343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026	0.240	0.002	0.108	0.914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53	0.206	-0.004	-0.257	0.797
부학력	0.691	0.213	0.056	3.236	0.001

모학력	-0.142	0.219	-0.011	-0.648	0.517
부직업(무=0, 유=1)	-0.261	0.528	-0.007	-0.495	0.621
모직업(무=0, 유=1)	-0.107	0.211	-0.007	-0.506	0.613
가정의 경제적수준	-0.165	0.113	-0.021	-1.454	0.146
국어성적	0.722	0.148	0.085	4.885	0.000
영어성적	0.083	0.116	0.012	0.721	0.471
수학성적	0.353	0.113	0.054	3.130	0.002
사회성적	0.087	0.122	0.012	0.714	0.476
과학성적	0.126	0.126	0.018	1.003	0.316

② 인정

다양한 가치의 수용 중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보고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정여부를 분석하였다. “인정” 이라고 생각하는 지 정도를 종속변수로, 학교등급, 성별, 거주지의 수도권여부, 학교의 남녀공학여부, 설립유형,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19.062,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인정” 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함수 총 변화량의 5.3%(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5.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Ⅲ-49> 회귀분석 “인정” 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8108.236	16	1131.765	19.062	0.000
잔차	325717.264	5486	59.372		
합계	343825.500	5502			

$R^2(\text{adj.}R^2) = .053(.050)$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연령($t=12.156$), 성별($t=-2.066$), 남녀공학_남학교($t=3.038$), 모학력($t=1.974$), 국어성적($t=4.868$), 사회성적($t=2.784$)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르면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들이 더 “인정”이 높을 확률이 높았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 보다 남학생들이 더 인정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국어성적과 사회 성적이 높을수록 인정이 높았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고등학생, 국어성적이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50> “인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6.630	0.877		-7.561	0.000
중등기준_고등	2.775	0.228	0.174	12.156	0.000
성별(남=0, 여1)	-0.560	0.271	-0.035	-2.066	0.039
남녀공학_남	0.969	0.319	0.048	3.038	0.002
남녀공학_여	0.463	0.331	0.023	1.399	0.162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465	0.252	-0.028	-1.847	0.065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753	0.216	-0.047	-3.484	0.000
부학력	0.038	0.224	0.003	0.169	0.866
모학력	0.454	0.230	0.034	1.974	0.048
부직업(무=0, 유=1)	0.658	0.553	0.016	1.189	0.235
모직업(무=0, 유=1)	-0.139	0.221	-0.008	-0.628	0.530
가정의 경제적수준	-0.191	0.119	-0.023	-1.606	0.108
국어성적	0.755	0.155	0.084	4.868	0.000
영어성적	-0.083	0.121	-0.012	-0.685	0.494
수학성적	0.132	0.118	0.019	1.119	0.263
사회성적	0.355	0.128	0.046	2.784	0.005
과학성적	0.010	0.132	0.001	0.078	0.938

③ 조망

다양한 가치의 수용 중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보고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망을 분석하였다. “조망”은 위의 공정과 인정을 합한 값으로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령, 성별, 거주지의 수도권여부, 학교의 남녀공학여부, 설립유형,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30.422,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조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함수 총 변화량의 8.1%(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7.9%)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51 회귀분석 “조망”에 대한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5618.414	16	2226.151	30.422	0.000
잔차	401446.552	5486	73.177		
합계	437064.966	5502			

$R^2(\text{adj.}R^2) = .081(.079)$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t=11.251$), 성별($t=4.946$), 남녀공학_남학교($t=4.083$), 수도권여부($t=-3.359$), 부학력($t=2.932$), 가정의 경제적 수준($t=-2.695$), 국어성적($t=8.581$), 수학성적($t=3.696$), 사회성적($t=3.120$)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르면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들이 “조망”이 높았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보다 남학교 학생들이 조망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국어성적과, 수학, 사회 성적이 높을수록 조망이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에 살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조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고등학생, 국어성적이 “조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52〉 “조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2.514	0.974		-2.583	0.010
중등기준_고등	2.851	0.253	0.159	11.251	0.000
성별(남=0, 여1)	1.489	0.301	0.083	4.946	0.000
남녀공학_남	1.446	0.354	0.063	4.083	0.000
남녀공학_여	0.164	0.368	0.007	0.445	0.656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439	0.280	-0.023	-1.571	0.116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806	0.240	-0.045	-3.359	0.001
부학력	0.729	0.248	0.050	2.932	0.003
모학력	0.312	0.255	0.021	1.221	0.222
부직업(무=0, 유=1)	0.397	0.614	0.009	0.646	0.519
모직업(무=0, 유=1)	-0.245	0.245	-0.013	-1.001	0.317
가정의 경제적수준	-0.356	0.132	-0.039	-2.695	0.007
국어성적	1.477	0.172	0.146	8.581	0.000
영어성적	0.000	0.135	0.000	0.002	0.998
수학성적	0.485	0.131	0.062	3.696	0.000
사회성적	0.442	0.142	0.051	3.120	0.002
과학성적	0.137	0.147	0.016	0.932	0.352

4) 갈등관리

청소년 역량분석 중 갈등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응답결과를 알아보았다. 정당

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로, 이에 응답한 학생의 경우 정답, 이외에 “정치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시위하거나 데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로 응답한 내용은 오답으로 재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갈등관리 중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만 응답을 찾을 수 있었다. 질문의 응답이 “오답 혹은 정답”의 범주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정답, 오답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오답확률 65.3%, 정답확률 48.7%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57.5%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Ⅲ-53> 갈등관리: 다수정당의 필요성” 모형검정 분류의 정확도

관측		예측값			분류정확(%)
		오답	정답	전체	
다수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답	1885	1000	2885	65.3
	정답	1322	1256	2578	48.7
	전체	3207	2256	5463	57.5
-2LL= 7411.124					
X2(절편모형-이론모형)= 144.941(df=16, p=.00), Nagelkerke R-제곱=.035					

분석결과, 개별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일수록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남녀공학 학생들이 여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다수정당의 필요성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라고 응답하였다.

<표Ⅲ-54> 갈등관리: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자유 도	유의 확률	Exp(B)
연령 (중학교=0, 고등학교=1)	0.029	0.060	0.236	1	0.627	1.030
성별(남=0, 여=1)	0.587	0.072	67.230	1	0.000	1.799
남녀공학_남	-0.130	0.085	2.327	1	0.127	0.878
남녀공학_여	-0.192	0.087	4.869	1	0.027	0.826
설립유형(사립=0, 공립=1)	-0.124	0.067	3.467	1	0.063	0.883
수도권여부 (수도권=0, 비수도권=1)	-0.014	0.057	0.058	1	0.810	0.986
부학력	0.069	0.059	1.367	1	0.242	1.072
모학력	0.070	0.061	1.324	1	0.250	1.073
부직업(없음=0, 있음=1)	0.062	0.147	0.175	1	0.676	1.063
모직업(없음=0, 있음=1)	0.032	0.058	0.302	1	0.583	1.033
가정의 경제수준	-0.043	0.031	1.894	1	0.169	0.958
학업성적_총	0.198	0.175	1.286	1	0.257	1.219
국어성적	0.042	0.059	0.511	1	0.475	1.043
영어성적	-0.031	0.048	0.410	1	0.522	0.970
수학성적	-0.087	0.055	2.516	1	0.113	0.917
사회성적	0.023	0.055	0.183	1	0.669	1.024
상수	-0.933	0.233	16.016	1	0.000	0.393

IV. 국제비교조사(ICCIS)분석결과

1.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2.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
3.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4. 합법적 항의에 참여
5.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
6.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7.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

IV. 국제비교조사(ICCS) 분석결과

1.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 관련된 ICCS문항(STUTREL: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국가 간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414.343 ,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1>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378874.409	37	37266.876	414.343	.000
집단내	12416052.954	138045	89.942		
합계	362251679.650	138083			
$R^2(\text{adj.}R^2)=.100(.100)$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과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8589)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M=50.2348)으로,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한국 학생들이 ICCS 참여국가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를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Ⅳ-2>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한국	45.8589	8.60038
ICCS 참여국가 합계	50.2348	9.99519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 관계지향성: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 관련 ICCS문항(STUTREL: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161.963,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3>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383630.799	27	14208.548	161.963	.000
집단내	7994287.065	91127	87.727		
합계	223809414.520	91155			
$R^2(\text{adj.}R^2)=.046 (= .046)$					

ICCS에 참여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8589)은 합계 평균(M=48.6143)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프로스, 라트비아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인식이 Europe 학생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4〉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오스트리아	46.6578	10.54960
불가리아	50.5786	9.65766
키프로스	44.7165	10.40982
체코	47.1229	8.67690
덴마크	51.5002	9.46365
에스토니아	47.2729	8.54292
핀란드	47.9043	8.53078
그리스	49.0564	10.13932
아일랜드	48.9053	9.59877
이탈리아	51.2398	9.44573
한국	45.8589	8.60038
라트비아	45.1313	8.27436
리히텐슈타인	46.9796	8.91255
리투아니아	49.6822	8.56634
룩셈부르크	47.1322	10.01724
몰타	52.2643	10.52339
네덜란드	48.0779	8.12138
뉴질랜드	48.6396	9.18168
노르웨이	52.3301	10.53575
폴란드	46.8780	8.80187
러시아	50.9437	9.36367
슬로바키아	47.6372	8.96369
슬로베니아	46.8087	9.13409
스페인	50.1951	9.91760
스웨덴	51.0308	10.00714
스위스	49.4683	9.35617
영국	48.2239	9.25084
벨기에	48.7532	8.80761
합계	48.6143	9.58694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 관계지향성: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 관련 된 ICCS문항(STUTREL: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831.185,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

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5>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481599.918	6	80266.653	831.185	.000
집단내	3283633.561	34003	96.569		
합계	99578575.024	34010			
$R^2(\text{adj.}R^2) = .128 (= .128)$					

ICCS에 참여한 Latin America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8589)은 합계 평균(M=53.0774)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Latin America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인식이 Latin America 학생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6>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칠레	51.1321	10.31924
콜롬비아	53.7819	10.07841
도미니카 공화국	58.4638	10.48337
과테말라	56.3868	9.39715
한국	45.8589	8.60038
멕시코	53.0269	10.03492
파라과이	55.9180	9.64837
합계	53.0774	10.52202

3) Asi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관련된 ICCS문항(STUTREL: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Asia국가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608.041, 유의확률을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7>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98913.202	4	49728.300	608.041	.000
집단내	1912856.978	23389	81.784		
합계	61669851.307	23394			
$R^2(\text{adj.}R^2) = .094 (= .094)$					

ICCS에 참여한 Asia국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8589)은 Asia국가 합계 평균(M=50.4566)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sia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8>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대만	50.5854	11.01606
홍콩	49.0307	9.77077
인도네시아	54.0885	7.82063
한국	45.8589	8.60038
태국	52.2533	7.93780
합계	50.4566	9.50124

2.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 관련된 ICCS 문항(INTRUST: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국가 간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455.125,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9>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1493923.435	37	40376.309	455.125	.000
집단내	12067692.892	136028	88.715		
합계	353391743.441	136066			
$R^2(\text{adj.}R^2)=.110$ (= .110)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과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3.1034)은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M=49.9754)으로,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는 한국 학생들이 ICCS 참여국가 학생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0>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한국	43.1034	9.13111
ICCS 참여국가 합계	49.9754	9.98349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 관련된 ICCS 문항(INTRUST: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329.394,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11〉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767963.060	27	28443.076	329.394	.000
집단내	7794882.997	90271	86.350		
합계	228339195.019	90299			
$R^2(\text{adj.}R^2)=.090 (= .089)$					

ICCS에 참여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3.1034)은 합계 평균(M=49.3343)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Europe 학생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2〉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오스트리아	52.6563	9.89452
불가리아	48.1399	11.50328
키프로스	45.3019	11.17097
체코	48.1478	9.47476
덴마크	52.0212	8.62510
에스토니아	47.9339	8.04489
핀란드	53.3176	8.49219
그리스	44.9825	10.63620
아일랜드	49.2041	9.56030
이탈리아	52.1697	8.05144
한국	43.1034	9.13111
라트비아	44.5649	8.13478
리히텐슈타인	55.0132	10.92727
리투아니아	47.8576	8.32073
룩셈부르크	50.9682	9.64419
몰타	51.8759	9.01703
네덜란드	51.5522	9.02002

뉴질랜드	50.3230	9.12282
노르웨이	52.9426	9.08092
폴란드	45.0061	9.01953
러시아	52.1403	8.34544
슬로바키아	48.2863	9.36832
슬로베니아	48.5168	10.17846
스페인	49.7073	9.06689
스웨덴	52.0262	9.84134
스위스	50.8876	9.58533
영국	50.8002	8.72043
벨기에	49.5073	8.84523
합계	49.3343	9.73801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관련된 ICCS 문항(INTRUST: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481.551,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13>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내	292588.948	6	48764.825	481.551	.000
집단간	3330439.691	32888	101.266		
합계	81364440.816	32895			
$R^2(\text{adj.}R^2)=.081$ (= .081)					

ICCS에 참여한 Latin America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3.1034)은 합계 평균(M=48.6140)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Latin America 중에서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Latin America 학생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4>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칠레	49.7563	9.73941
콜롬비아	49.4182	10.31907
도미니카 공화국	54.1471	11.49608
과테말라	47.1742	9.64854
한국	43.1034	9.13111
멕시코	48.6804	10.44674
파라과이	49.6400	9.44991
합계	48.6140	10.49488

3) Asi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 관련된 ICCS 문항(INTRUST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Asia국가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2534.856,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15>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788624.946	4	197156.237	2534.856	.000
집단내	1814329.053	23327	77.778		
합계	63993724.218	23332			
R ² (adj.R ²)=.303 (= .303)					

ICCS에 참여한 Asia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

(M=43.1034)은 합계 평균(M=51.2951)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sia국가들 중에서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Asia 학생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6>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대만	47.9451	9.03622
홍콩	51.2946	9.05648
인도네시아	58.8148	8.67575
한국	43.1034	9.13111
태국	55.7088	8.27334
합계	51.2951	10.56250

3.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 관련 ICCS문항(POLDISC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에 대한 국가 간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194.335,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17>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687852.414	37	18590.606	194.335	.000
집단내	13186826.617	137847	95.663		
합계	359716056.867	137885			
$R^2(\text{adj.}R^2) = .050 (= .049)$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과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50.2369)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M=50.0818)으로,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한국 학생들이 ICCS 참여국가 학생들보다 토의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8>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한국	50.2369	9.51261
ICCS 참여국가 합계	50.0818	10.03124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관련 ICCS문항(POLDISC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115.622,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19>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296884.866	27	10995.736	115.622	.000
집단내	8674620.225	91215	95.101		
합계	231862148.948	91243			
$R^2(\text{adj.}R^2)=.033$ (= .033)					

ICCS에 참여한 Europe과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50.2369)은 합계 평균(M=49.4249)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28개국 중에서 12위로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벨기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IV-20>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오스트리아	50.8282	9.88356
불가리아	50.4190	10.14962
키프로스	50.0322	10.15954
체코	47.6578	9.17388
덴마크	50.1354	9.93645
에스토니아	49.1884	9.54231
핀란드	45.7733	10.02406
그리스	51.0819	9.78474
아일랜드	48.2665	10.18322
이탈리아	52.1896	9.40521
한국	50.2369	9.51261
라트비아	53.0092	8.94432
리히텐슈타인	51.5517	9.79162
리투아니아	51.3490	8.98349
룩셈부르크	49.8741	9.48220

몰타	51.0204	9.34337
네덜란드	46.3090	9.88034
뉴질랜드	50.3138	10.39009
노르웨이	48.7218	10.25536
폴란드	50.5025	9.63772
러시아	49.9311	9.77148
슬로바키아	49.5337	9.52351
슬로베니아	47.8330	9.27289
스페인	47.8322	9.65254
스웨덴	46.9671	10.61912
스위스	50.6661	9.53936
영국	47.6846	10.43303
벨기에	45.4017	9.79586
합계	49.4249	9.91597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 관련 ICCS문항 (POLDISC: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 간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168.018,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21>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98138.173	6	16356.362	168.018	.000
집단내	3283195.226	33726	97.349		
합계	89059021.347	33733			
$R^2(\text{adj.}R^2) = .029$ (= .029)					

ICCS에 참여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50.2369)은 합계 평균(M=50.3972)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평균은 칠레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Asia국가와의 비교

<표IV-22>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칠레	49.5238	9.92111
콜롬비아	50.8658	10.03968
도미니카 공화국	51.9206	10.28460
파테말라	53.1628	9.97028
한국	50.2369	9.51261
멕시코	47.6199	9.64261
파라과이	51.6037	9.81320
합계	50.3972	10.01205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 관련 ICCS문항(POLDISC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에 대한 Asia국가간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374.361,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Asia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23>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39422.125	4	34855.531	374.361	.000
집단내	2175533.589	23366	93.107		
합계	66144873.841	23371			

$$R^2(\text{adj.}R^2) = .060 \quad (= .060)$$

ICCS에 참여한 Asia국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50.2369)은 Asia국가 합계 평균(M=52.2605)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만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표 24>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대만	49.4835	10.37147
홍콩	51.2862	10.28974
인도네시아	54.6661	9.68533
한국	50.2369	9.51261
태국	55.2588	8.60178
합계	52.2605	9.95272

4. 합법적 항의에 참여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관련 ICCS문항(LEGPROT 합법적 항의에 참여)에 대한 국가 간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269.102,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25> 합법적 항의에 참여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938906.854	37	25375.861	269.102	.000
집단내	12661056.547	134266	94.298		
합계	350428482.578	134304			

$$R^2(\text{adj.}R^2) = .069 \quad (= .069)$$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과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0594)은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M=50.0795)으로,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합법적 항의에 대한 참여는 한국 학생들이 ICCS 참여국가 학생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26>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한국	45.0594	10.41362
ICCS 참여국가 합계	50.0795	10.06297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관련 ICCS문항(LEGPROT 합법적 항의에 참여)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114.197,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27>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92907.886	27	10848.440	114.197	.000
집단내	8511891.691	89601	94.998		
합계	223847607.273	89629			
$R^2(\text{adj.}R^2) = .033 (= .033)$					

ICCS에 참여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0594)은 합계 평균(M=48.9822)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한국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Europe 학생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합법적 항의에 대한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8> 한국과 Europe 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오스트리아	50.4918	9.91605
불가리아	51.3127	9.95374
키프로스	51.2447	11.36948
체코	49.2925	10.21790
덴마크	47.2761	8.92618
에스토니아	48.4266	8.27844
핀란드	49.5331	9.08038
그리스	51.6111	9.35189
아일랜드	51.4335	10.63275
이탈리아	48.5752	8.23621
한국	45.0594	10.41362
라트비아	50.0867	8.89188
리히텐슈타인	48.5039	8.99842
리투아니아	51.6330	9.38056
룩셈부르크	49.6239	9.95251
몰타	48.5348	10.00411
네덜란드	45.6567	9.13910
뉴질랜드	49.5735	10.95330
노르웨이	47.8981	10.11873
폴란드	46.4456	9.82524
러시아	47.5537	9.14992
슬로바키아	50.5641	9.66941
슬로베니아	49.2760	10.11018
스페인	49.7956	9.62603
스웨덴	48.0207	9.56864
스위스	47.8309	9.16265
영국	50.0193	10.48788
벨기에	47.0964	9.43835
합계	48.9822	9.91147

2)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 관련 ICCS문항 (LEGPROT: 합법적 항의에 참여)에 대한 Latin America 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481.551,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29>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415870.166	6	69311.694	707.563	.000
집단내	3127028.098	31922	97.958		
합계	91906117.659	31929			
$R^2(\text{adj.}R^2)=.117$ (= .117)					

ICCS에 참여한 Latin America 국가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0594)은 합계 평균(M=52.6069)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분석결과, Latin America 학생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합법적 항의에 대한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30> 한국과 Latin America 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칠레	53.5017	10.84319
콜롬비아	54.9367	8.58027
도미니카 공화국	57.3721	10.16084
파테말라	53.5470	9.23606
한국	45.0594	10.41362
멕시코	52.9721	10.06441
파라과이	52.4698	9.72716
합계	52.6069	10.53400

3) Asi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 관련 ICCS문항 (LEGPROT 합법적 항의에 참여)에 대한 Asia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481.551,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31>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집단간	129589.842	4	32397.460	348.575	.000
집단내	2157105.340	23209	92.943		
합계	57063401.665	23214			
$R^2(\text{adj.}R^2) = .057 (= .057)$					

ICCS에 참여한 Asia국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0594)은 합계 평균(M=48.5761)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분석결과, Asia 학생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합법적 항의에 대한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32>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대만	49.0395	10.08771
홍콩	47.3103	10.10289
인도네시아	52.0301	7.82853
한국	45.0594	10.41362
태국	49.1294	9.65044
합계	48.5761	9.92518

5.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종교이해 “ 관련 ICCS문항(RELINF: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국가 간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1420.582 ,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33>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집단간	3077100.511	30	102570.017	1420.582	.000
집단내	7777328.338	107715	72.203		
합계	281180927.957	107746			
$R^2(\text{adj.}R^2)=.283 (= .283)$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과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2.3171)은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M=50.0892)으로,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종교이해에 대한 태도는 한국 학생들이 ICCS 참여국가 학생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4>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한국	42.3171	9.69622
ICCS 참여국가 합계	50.0892	10.03702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종교이해 “ 관련 ICCS문항(RELINF: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673.068,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 - 35>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168748.331	21	55654.682	673.068	.000
집단내	5797260.104	70110	82.688		
합계	166273686.109	70132			
$R^2(\text{adj.}R^2)=.168$ (= .168)					

ICCS에 참여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2.3171) 평균(M=47.6607)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체코 다음으로 평균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Europe 학생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종교 영향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6〉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오스트리아	47.4610	9.64384
불가리아	50.7938	8.72954
키프로스	56.8361	8.15341
체코	41.4422	9.30283
덴마크	43.8746	8.79721
그리스	52.5407	8.34368
한국	42.3171	9.69622
라트비아	47.2206	8.87600
리히텐슈타인	45.3718	9.20923
리투아니아	49.3560	7.84546
룩셈부르크	45.0819	10.26410
몰타	55.7984	7.77867
네덜란드	45.6628	9.37770
뉴질랜드	48.8242	9.68781
노르웨이	45.8516	9.74858
폴란드	53.8936	8.11337
러시아	51.5993	7.53840
슬로바키아	49.0062	9.53226
스웨덴	44.9180	9.88703
스위스	45.8423	9.80479
영국	46.8749	9.93423
벨기에	45.4810	8.46303
합계	47.6607	9.96637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종교이해 “ 관련 ICCS문항(RELINF: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2397.220, 유의확률 .000으로 유

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37>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776545.489	5	155309.098	2397.220	.000
집단내	1621169.266	25023	64.787		
합계	71321212.111	25029			
$R^2(\text{adj.}R^2)=.324 (= .324)$					

ICCS에 참여한 Latin America 국가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2.3171)은 합계 평균(M=52.4761)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atin America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분석결과, Latin America 학생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종교영향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표Ⅳ-38> 한국과 Latin America 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칠레	52.2436	9.08942
콜롬비아	54.2573	7.28322
도미니카 공화국	58.4624	7.14808
과테말라	57.0713	6.40520
한국	42.3171	9.69622
파라과이	55.7983	6.78295
합계	52.4761	9.78781

3) Asia 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종교이해 “ 관련 ICCS문항(RELINF: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에 대한 Asia국가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5016.271,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39>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167957.602	4	291989.400	5016.271	.000
집단내	1339492.928	23012	58.208		
합계	63247559.165	23017			
$R^2(\text{adj.}R^2) = .466 (= .466)$					

ICCS에 참여한 Asia국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2.3171)은 합계 평균(M=51.3705)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sia국가 중에서 한국의 평균이 가장 낮음. 분석결과, Asia 학생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종교영향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표Ⅳ-40>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대만	48.2283	7.78962
홍콩	46.3933	8.67601
인도네시아	60.5251	5.64838
한국	42.3171	9.69622
태국	57.9637	5.86215
합계	51.3705	10.43761

6.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소속감 “ 관련 ICCS문항

(PARTSCHL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국가 간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323.062,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41>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102882.444	37	29807.634	323.062	.000
집단내	12733924.305	138013	92.266		
합계	357192001.016	138051			
$R^2(\text{adj.}R^2) = .080 (= .079)$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과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4277)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M=49.8715)으로,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대해서 한국 학생들이 ICCS 참여국가 학생들 비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42>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한국	45.4277	11.09629
ICCS 참여국가 합계	49.8715	10.01151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소속감 “ 관련 ICCS문항

(PARTSCHL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273.032,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43>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708542.953	27	26242.332	273.032	.000
집단내	8763800.330	91181	96.114		
합계	228571362.717	91209			
$R^2(\text{adj.}R^2)=.075 (= .075)$					

ICCS에 참여한 Europe과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4277)은 합계 평균(M=49.0119)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는 한국 학생들이 Europe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44>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오스트리아	49.1180	9.35382
불가리아	47.6128	10.44619
키프로스	51.9818	11.53711
체코	47.7306	9.53167
덴마크	48.2098	10.05776
에스토니아	46.7422	9.00399
핀란드	48.3596	8.89342
그리스	54.9583	9.57157
아일랜드	50.1116	9.32470
이탈리아	47.3005	9.02370

한국	45.4277	11.09629
라트비아	48.8543	9.51713
리히텐슈타인	48.8024	9.87985
리투아니아	48.8730	9.28211
룩셈부르크	44.8076	9.96300
몰타	47.6604	9.60847
네덜란드	41.8809	10.23577
뉴질랜드	49.2903	10.43338
노르웨이	53.9445	9.61110
폴란드	54.0709	8.71798
러시아	48.9071	9.97024
슬로바키아	51.7852	9.10557
슬로베니아	50.8926	9.82572
스페인	52.3588	9.01277
스웨덴	50.6365	9.63225
스위스	47.5800	9.52281
영국	50.2443	10.27428
벨기에	46.0144	10.67182
합계	49.0119	10.19089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소속감" 관련 ICCS문항 (PARTSCHL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581.342,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45>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315341.493	6	52556.915	581.342	.000
집단내	3069290.948	33950	90.406		
합계	92861779.708	33957			
$R^2(\text{adj.}R^2)=.093$ (= .093)					

ICCS에 참여한 Latin America 국가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4277)은 합계 평균(M=51.3324)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atin America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6> 한국과 Latin America 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칠레	51.8984	8.63495
콜롬비아	52.9652	8.80604
도미니카 공화국	52.7856	10.14958
과테말라	55.2251	8.53318
한국	45.4277	11.09629
멕시코	49.4898	9.85013
파라과이	54.1854	8.86666
합계	51.3324	9.98384

3) Asia 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소속감" 관련 ICCS 문항 (PARTSCHL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Asia 국가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353.008,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47〉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32418.590	4	33104.648	353.008	.000
집단내	2189732.651	23350	93.779		
합계	58654424.267	23355			
$R^2(\text{adj.}R^2) = .057 (= .057)$					

ICCS에 참여한 Asia국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5.4277)은 Asia국가 합계 평균(M=49.1121)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sia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48〉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대만	49.9029	9.19715
홍콩	47.8561	10.09555
인도네시아	52.3629	8.57318
한국	45.4277	11.09629
태국	49.6218	9.39376
합계	49.1121	9.97159

7.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이민자에 대한 태도 “ 관련 ICCS문항(IMMRGHT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국가 간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293.799,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49>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 인식 집단 비교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995058.469	37	26893.472	293.799	.000
집단내	12471463.393	136245	91.537		
합계	360128442.122	136283			
$R^2(\text{adj.}R^2) = .074 (= .074)$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과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9.1531)은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M=50.4350)으로, ICCS 참여국가 합계 평균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교에서 이민자 권리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한국 학생들이 ICCS 참여국가 학생들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50> 한국과 ICCS 참여국가 집단 비교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한국	49.1531	8.80911
ICCS 참여국가 합계	50.4350	9.94051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이민자에 대한 태도 “ 관련 ICCS문항(IMMRGHT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99.467,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51> Europe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258362.428	27	9568.979	99.467	.000
집단내	8691506.205	90346	96.202		
합계	228673863.045	90374			
$R^2(\text{adj.}R^2) = .029 (= .029)$					

ICCS에 참여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9.1531)은 합계 평균(M=49.3080) 보다 유의하게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28개국 중에서 13위로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영국, 벨기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권리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태도는 Europe 학생들의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Ⅳ-52> 한국과 Europe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오스트리아	48.0297	11.11336
불가리아	51.8047	9.89218
키프로스	49.1464	10.70005
체코	48.0947	8.66723
덴마크	48.5824	9.33718
에스토니아	47.6185	8.81403
핀란드	48.0624	9.91318
그리스	50.9380	10.35131
아일랜드	49.8954	10.26418
이탈리아	48.4357	9.38708
한국	49.1531	8.80911
라트비아	46.9741	8.27184

리히텐슈타인	47.6281	10.72604
리투아니아	51.0437	8.64688
룩셈부르크	51.7065	10.64232
몰타	48.7497	10.18221
네덜란드	45.4066	9.06971
뉴질랜드	50.9597	10.51541
노르웨이	50.3693	10.82515
폴란드	50.1009	8.91552
러시아	48.9027	8.87856
슬로바키아	49.7340	8.33181
슬로베니아	50.3550	10.22399
스페인	50.6044	10.54574
스웨덴	52.2161	11.91318
스위스	48.7887	10.33662
영국	46.2848	10.70420
벨기에	45.9135	8.93754
합계	49.3080	9.95151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이민자에 대한 태도" 관련 ICCS문항 (IMMRGHT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241.836,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IV-53>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28045.943	6	21340.991	241.836	.000
집단내	2917229.331	33058	88.246		
합계	96551939.013	33065			
$R^2(\text{adj.}R^2) = .042 (= .042)$					

ICCS에 참여한 Latin America와 한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9.1531)은 합계 평균(M=53.1786)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이민자에 권리에 대한 태도가 Latin America 학생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54> 한국과 Latin Americ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칠레	54.1539	9.49102
콜롬비아	54.3095	9.21362
덴마크	51.6022	9.60192
파테말라	54.5004	9.44998
한국	49.1531	8.80911
멕시코	54.7080	10.02817
파라과이	53.3904	8.83879
합계	53.1786	9.59700

3) Asi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이민자에 대한 태도 “ 관련 ICCS문항 (IMMRGHT: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에 대한 Asia국가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F통계값이 911.267,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국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Ⅳ-55> Asia국가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261948.072	4	65487.018	911.267	.000
집단내	1675359.118	23313	71.864		
합계	61020725.778	23318			
$R^2(\text{adj.}R^2) = .135 (= .135)$					

ICCS에 참여한 Asia국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M=49.1531)은 Asia국가 합계 평균(M=50.3370)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한국은 인도네시아, 태국보다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낮고, 대만, 홍콩 보다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56> 한국과 Asia국가 비교분석 결과 (기술통계)

국가	평균	표준편차
대만	55.6367	9.94373
홍콩	53.2362	9.88063
인도네시아	46.9258	6.39004
한국	49.1531	8.80911
태국	47.9595	7.40738
합계	50.3370	9.11513

V. 요약 및 결론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논의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에서 영향력 진단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진단조사 결과 먼저 관계 지향성 영역에서는 경청능력에서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 여성이 경청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발달단계, 학업성적(국어, 영어, 사회)이 다음으로 영향을 미쳤다.

사람신뢰에서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람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중등기준-초등), 학업성적(사회, 영어), 성별이 다음으로 영향을 미쳤다. 발달단계(중등기준-고등)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사람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2차년도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친척들과의 접촉의 양과 질에서 발달단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입시위주의 교육이 친척과의 접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의 경제수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여부에서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서 여성이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와 학교별(남녀공학-여)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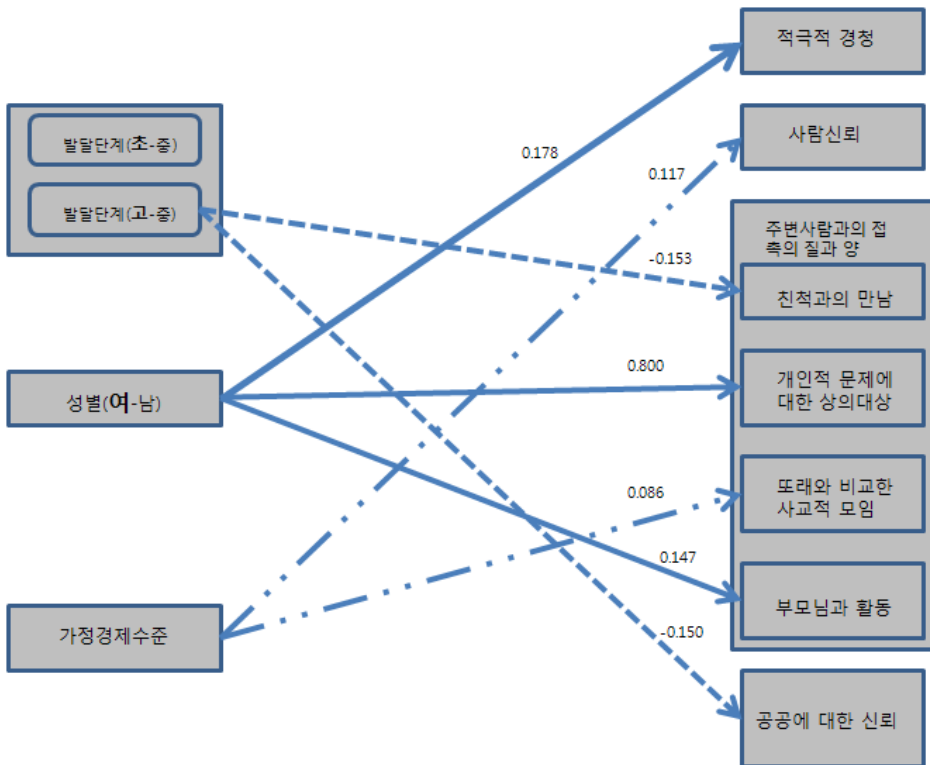
또래와 모임 및 활동참여에서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영어), 학교별(남녀공학-남)이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활동참여정도에서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 발달단계(중등기준-고등), 학업성적(사회)이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에 대한 신뢰에서 발달단계(중등기준-고등)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고등학생 일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2차년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과학, 영어)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지향성’ 영역에서 개인배경(발달단계, 성별), 가정배경(가정경제수준)이 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청능력’,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여부’, ‘부모님과 활동참여정도’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여성의 특성으로 ‘친화성’을 잘 대변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계지향성 역량을 위해서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중에서 사회성적이 경청능력, 사람신뢰, 부모님과 활동참여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관계지향 역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V - 1] 관계지향성’ 영역에 독립변인의 영향(요약)

사회적 협력 영역에서는 정치관심에서 학업성적(사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치관심이 높았다. 발달단계(중등기준_고등), 학업성적(국어)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이해에서는 성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여성이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 학업성적(국어)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에서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중학교_고등학교), 학업성적(국어)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자격과 투표권리에서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권리에서는 설립유형(사립_공립), 부학력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민주주의성에서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고 잘살게 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국어), 학교유형(남녀공학_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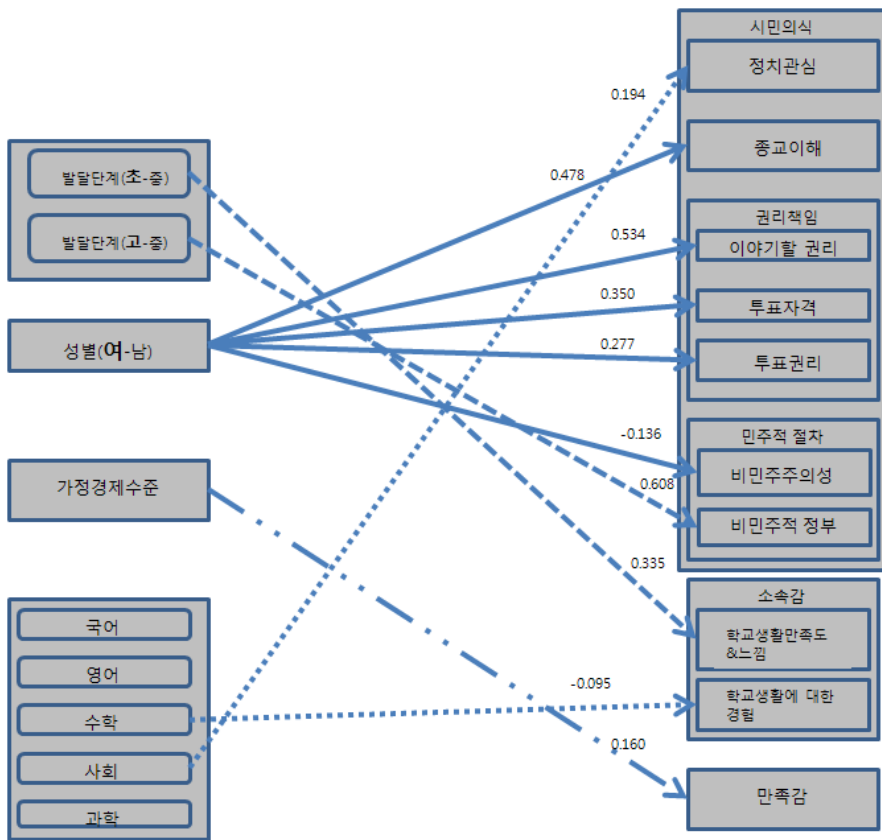
비민주의적 정부에서 발달단계(중학교_고등학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 부학력, 학업성적(국어)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에서 발달단계(중등기준_초등)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 고등학교로 갈수록 입시위주의 교육이 학교의 소속감을 낮추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에서 학업성적(수학)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업성적(사회)이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휴학, 지각, 무단결석 및 징계의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가정에 경제적 수준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중등기준_초등), 학업성적(국어, 영어, 수학, 사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협력 영역에서는 개인배경(성별, 발달단계), 가정배경(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사회, 수학)이 주로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정치관심에서는 학업성적(사회)이 높게 나타나, 사회성적과 정치관심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의식에서는 주로 성별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교이해와 권리책임과 같이 지식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에 가정배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사회적 협력’ 영역에 독립변인의 영향(요약)

갈등관리 영역에서는 문제인식 해결에서 학업성적(국어)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어과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국제사회문화이해, 정보처리능력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광우(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달단계(중등기준_고등), 학업성적(사회, 영어, 수학) 그 다음으로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에 허용, 이민자에 대한 영향에서 학업성적(국어)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어과에서는 국제사회문화이해가 나타난다는 이광우(2009)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평등에서 발달단계(중등기준_고등)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똑같은 원칙에 따르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평등에 관한 지식이 고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 학업성적(영어)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에서 성별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중등기준_고등), 학업성적(국어)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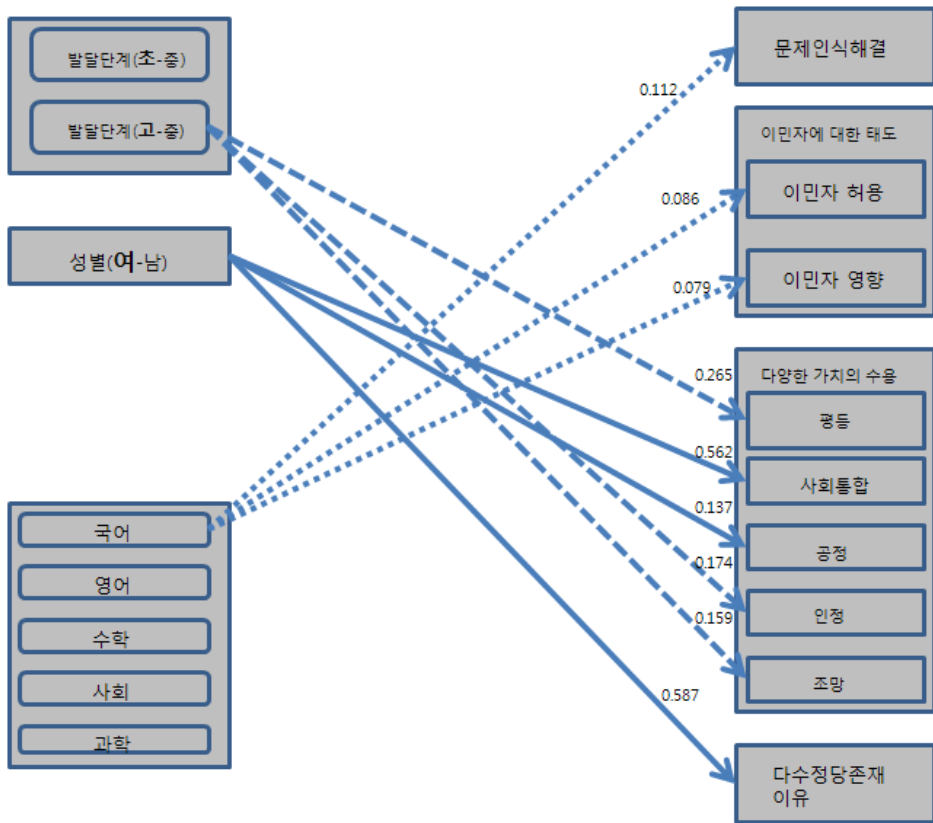
공정에서 성별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공정조망 변별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국어), 부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에서 발달단계(중등기준_고등)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정조망 변별력이 증가하는 2차년도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국어), 학교유형(남녀공학_남)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망에서 발달단계(중등기준_고등)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갈등상황에서 인정과 공정의 두 가지 대립된 가치 준거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다 가치 준거를 가지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2차년도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정당 존재이유에서 성별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유형(남녀공학_여)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 영역에서 개인배경(성별, 발달단계), 학업성적(국어)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인식해결,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서 학업성적(국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국어과에서 문제해결력, 국제사회문화이해가 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성별의 영향력에서 사회통합, 다수정당 존재이유 지식측정에서 지식을 측정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발달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 - 3] ‘갈등관리’ 영역에 독립변인의 영향(요약)

3차년도에서는 시민교육 국제비교연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비교문항을 활용하여 국제비교를 하였다.

〈표 V-1〉 ICCS 국제비교 결과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공공에 대한 신뢰	시민의식			소속 감	이민 자에 대한 태도
			정치관심		종교 이해		
			정치·사 회적 이슈 토의	합법적 항의 참여			
한국-유럽	▼	▼	▲	▼	▼	▼	▼
한국- 라틴아메리카	▼	▼	▼	▼	▼	▼	▼
한국-아시아	▼	▼	▼	▼	▼	▼	▼
한국-전체평균	▼	▼	▲	▼	▼	▼	▼

▲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음

▼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낮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지향성’ 영역에서 한국은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관계보다는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는 ICCS 참여국가보다 매우 낮았다. 한국에 만연한 공공기관 불신 풍조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협력’ 영역에서 정치관심에 대한 비교문항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 에서는 한국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 항의 참여’ 에서는 ICCS 참여국가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참여에서 부모, 친구들과 토론은 하지만 직접 참여하는 활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이해’, ‘소속감’ 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협력’ 영역에서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 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 영역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 는 ICCS 참여국가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국제평균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국내 조사결과와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심리적, 가정, 학교에서의 다양한 환경요인 인만큼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학과목 중심의 학습체제에서 역량중심의 학습체제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해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학습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안나 등(2003).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 (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주섭(2007).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역량 개발.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115-13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등(2002). 학습사회에서 성인의 생애능력설정 및 성인학습체제 질 관리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등(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문용린 등(2007). 생애역량,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점에서.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현정 등(2006). KEDI 종합검사도구 개발연구(Ⅱ): 가정특성과 학교특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신범석(2007). 조직수준에서 역량개발 및 활용방안.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95-11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신재철(2007). 고등교육의 역량모델의 탐색 및 개선방안.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37-6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광우 등(2009). 핵심역량 기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p.3-4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무근 등(1997).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 이석재 등(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수원, 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학연구, 4(1). 155-181.
- 이헌남(1992). 도움의 이원성: 공정지향과 관계지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언 등(2004).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조사연구: OECD ALL Project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등(2005a). 한국의 성인직업기초능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등(2005b).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OECD ALL Project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현숙 등(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 (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등(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 (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미라 등(2007). 영유아기 핵심역량 표준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정철영 등(1008).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대연(2007). 국가수준에서 역량개발 및 활용방안.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135-15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나라당(2007).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서울: 북마크.
- 한승희(2007). 지식경제 맥락에서의 성인교육 역량모델의 조건 탐색.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61-7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현주 등(2004). KEDI 종합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현주(2007). 초·중등 교육단계에서의 역량강화 모델 및 개선 방안.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15-3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Acemoglu, D och J Angrist(2000). "How large are Social Returns to Education? Evidence from Compulsory schooling Laws". NBER macroeconomics annual, vol 15, s 9-59.
- Andrews, C., Brown, R., Sargent, C.(2007). INCA comparative table: International review of curriculum and assessment internet archive. UK, London: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 DfES(2001). Education and skills: Delivering results - A strategy to 2006. London: DfES.
- EURYDICE(2002). Key competences: A developing concept in general compulsory education. Brussels, Belgium: Eurydice The information network on education in Europe.
- Goleman, D.(1996).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 Haste, H.(2001). Ambiguity, autonomy, and agency: Psychological challengers to new competence. In D.S. Rychen & L.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pp. 93-120). Go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 Hipkins, R, Boyd, S., & Joyce, C.(2005). Documenting learning of the key competencies: What are the issues? : A discussion paper. New Zealand, Wellington: New

-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Hipkins, R.(2006). The Nature of the key competency: A Background paper. Wellington, NZ: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ILO(2003). Learning and training for work in the knowledge society. Geneva: ILO.
- Knack, S. & Keefer. P.(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88.
- Lepsinger, R. and Lucia, A.(1999). The art and science of competency models. San Francisco: Jossey-Bass/Pfeiffer.
- Levy F., & Murnane, R.J.(2001). Key competencies critical to economic success. In D.S. Rychen & L.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pp. 151-173). Go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2). Pathways to the future: Nga Huarahi arataki: A 10 year strategic pla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Zealand, Wellington; Ministry of Education.
-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4).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National report of New Zea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8-11 September, 2004, Geneva, Switzerland.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6). The New Zealand curriculum: Draft for consultation 2006. New Zealand, Wellington; Ministry of Education.
- Oberhuemer, P.(2005).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arly childhood curricula.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37(1), 27-37.
- OECD & ONS(2002). Social capital : The challenge of international measuremen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ondon.
- OECD(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OECD.
- OECD(2002). Draft strategy paper in key competencies: A frame of reference for a coherent assessment program.
- OECD(2005). Learning a Living: First results of the Adults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OECD(2006). Start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rance, Paris: OECD.

- Perrenoud P. (2001). The key to social fields: Competencies of an autonomous actor. In D.S. Rychen & L.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pp. 151-173). Go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 Perris, L.(1998). Implementing education reforms in New Zealand: 1987-97. *The Education Reform and Management Series*, 1(2).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2007). *International review of curriculum and assessment internet archive*. UK, London: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 Ridgeway, C.(2001). Joining and functioning in groups, self-concept and emotion management. In D.S. Rychen & L.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pp. 205-211). Go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 Rychen, D. S. & Salganik, L. H.(eds)(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Hogrefe & Publishers: Seattle-Toronto-Bern-Gottingen.
- Rychen, D. S. & Salganik, L. H.(2002). *Strategy paper: An overarching frame of reference for a coherent assessment and research program on key competencies.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final report).
- Rychen, D. S. & Salganik, L. H.(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well-functioning society*. Hogrefe & Publishers: Seattle-Toronto-Bern-Gottingen.
-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2003). *Key competencies: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Policy and Research: Research Bulletin*(2). Glasgow, UK: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
- Stein, S.(2000a). *Equipped for the future content standards: What adults need to know and be able to do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
- Stein, S.(2000b). *What family life demands: A purposeful view of competent performance*.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 In D.S. Rychen, L.H. Salganik, & M.E. McLaughlin (Eds.), *Selected contributions to the 2nd DeSeCo symposium*. Neuchatel, Switzerland: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 Thompson, L., & Hastie, R.(1990). Social perception in negotiation.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7, 98-123.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and Schulz, W. (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s: IEA.
- Trier, U.P.(2003). Twelve countries contributing to DeSeCo: A summary report. In D.S. Rychen, L.H. Salganik, & M.E. McLaughlin (Eds.), Selected contributions to the 2nd DeSeCo symposium. Neuchatel, Switzerland: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 Turner, J. C.(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 concept: A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K. Lawlen(Ed.). Advances in group process: Theory and Research, Vol.2, Greenwich, JAI Press.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01). Defining and Assessing Learning: Exploring competency-based initiatives (by E. Jones, R. A. Voorhees, and K. Paulson for the Council of the National Postsecondary Education Cooperative Competency-based initiatives working group).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U.S. Department of Labor(1994). Employer-provided formal training. Washington, D.C.: Author.
- Walton, R. E., & Mckersie, R. B.(1965). A behavioral theory of labor relations. New York: McGraw-Hill.

<http://iccs.acer.edu.au>

www.europeansocialsurvey.org/

www.issp.org/

[www.ksg.harvard.edu/saguaro/measurement.htm# benchmark/](http://www.ksg.harvard.edu/saguaro/measurement.htm#benchmark/)

www.worldbank.org/

www.worldvaluessurvey.org

www.worldvaluessurvey.org



부 록

<부록1> 청소년 핵심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측정문항 분석표

<부표1>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하위문항 분석

하위요 소	분 석 번 호	문 항 내 용	초 등 용	중·고 등 용	종 속 변 수 (코딩)	분석법
적극적 정경	1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	☐	5점 척도	다중회귀 ※진체평 균으로 제코딩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	☐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한다.	☐	☐		
		나는 내가 관심 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	☐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바라본다.	☐	☐		
		나는 상대방의 말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들으며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다.	☐	☐		
사람 신 뢰	2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	☐	10점 척도	다중회귀
주변사 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3-1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	☐	7점 척도	다중회귀
	3-2	친척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나요?	☒	☐	예, 아니요	로지
	3-3	개인적인 비밀문제를 상의 할 사람이 있나요?	☒	☐	5점 척도	다중회귀
	3-4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나요?	☒	☐	5점 척도	다중회귀
공공에 대한 신뢰	4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하나요? 아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다고 생각하나요? (국회, 사법기관, 경찰서, 정당, 국제연합)	☒	☐	10점 척도	다중회귀 ※진체평 균으로 제코딩

<부표2>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하위문항 분석

하위요소	분석 번호	문항내용	초 등 용	중고등용	종속변수 (코딩)	분석법
시민의식	정치 관심	1-1 당신은 정치에 관심이 있나요?	○	○	5점 척도	다중회귀
	종교 이해	1-2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	거짓, 참	로지
	권리 책임	1-3.1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할 권리가 있다.	X	○	거짓, 참	로지
		1-3.2 나라에 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권리가 있다.	X	○	거짓, 참	로지
		1-3.2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X	○	거짓, 참	로지
	민주 적 절차	14.1 여럿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X	○	5점 척도	다중회귀 ※전체평 균으로 재코딩
		14.2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잘 살게만 하면 된다.	X	○	5점 척도	교차분석
소속감	14.2	정부가 가장 비 민주적인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X	○	명명척도	다중회귀 ※전체평 균으로 재코딩
	2-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	○	5점 척도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자신이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해 주세요.	○	○		
만족감	2-2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	○	4점 척도	다중회귀
	3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	○		다중회귀 ※전체평 균으로 재코딩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나요?	○	○	10점 척도	

<부표3>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하위문항 분석

하위요소	분석 번호	문항내용	초등 용	중·고등 용	종속변수 (코딩)	분석법
문제 인식 해결	1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	○	5점 척도	다중회귀 ※전체평 균으로 제코딩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생각한다.	○	○	5점 척도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	○	5점 척도	
이민자에 대한태도	2-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 우리민족이 아닌 외국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	○	4점 척도	다중회귀 ※전체평 균으로 제코딩
	2-2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X	○	10점 척도	다중회귀 ※전체평 균으로 제코딩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살기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X	○	10점 척도 10점 척도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3-1	다음 중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X	○	명명척도	로짓
	3-2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X	○	명명척도	로짓
	3-3	공정과 인정/ 조망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모른 척 눈감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X	○	7점 척도	회귀분석
다수정당 존재이유	4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X	○	명명척도	로짓

<부록2> 청소년기 생애 핵심역량 조사와 ICCS 문항 비교 분석표

<부표4>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하위영역과 ICCS문항 비교분석

청소년 핵심역량 하위요소	ICCS 항목내용	척도점수
적극적 경청	x [해당 문항 없음]	
사람신뢰	x [해당 문항 없음]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STUTREL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IS2G18A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 IS2G18B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과 잘 지낸다. IS2G18C 대부분의 선생님은 학생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IS2G18E 대부분의 선생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 IS2G18F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IRT 척도(WLE)로 평균 50, 표준편차10
공공에 대한 신뢰	INTRUST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 IS2P27A 중앙정부부처 IS2P27B 지방자치정부 IS2P27C 법원 IS2P27D 경찰 IS2P27E 정당 IS2P27F 국회	IRT 척도(WLE)로 평균 50, 표준편차10

<부표5>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 하위영역과 ICCS문항 비교분석

청소년 핵심역량 하위요소		ICCS 항목내용	척도점수
시민의식	정치 관심	POLDISC IS2G13A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IS2G13D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IS2G13F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IS2G13G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LEGPROT IS2G31A 신문사에 편지 보내기 IS2G31B 개인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벤티 달기 IS2G31C 산출적 공무원 접촉하기 IS2G31D 비폭력 집회 참여 IS2G31E 진정서 서명 모으기 IS2G31F 상품 판매 운동하기	IRT 척도(WLE)로 평균 50, 표준편차10
		RELINF: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 IS2P36A 종교는 나에게 국가정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IS2P36B 종교는 나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도록 한다. IS2P36C 종교지도자는 더 많은 사회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 IS2P36D 종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IS2P36E 종교에 기초한 삶의 규칙은 국내법보다 더 중요하다. x [해당 문항 없음] x [해당 문항 없음]	IRT 척도(WLE)로 평균 50, 표준편차10
		권리 책임	
		민주적 절차	
		소속감	PARTSCHL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IS2G15A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활동에 자발적 참여 IS2G15B 토론에 적극적 참여 IS2G15C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IS2G15D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IS2G15E 학생회 토론 참여 IS2G15F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만족감	x		

〈부표 6〉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하위영역 분석과 ICCS문항 비교분석

청소년 핵심역량 하위요소	ICCS 항목내용	척도점수
문제 인식 해결	×[해당 문항 없음]	
이민자에 대한 태도	IMMRGHT IS2P26A 이민자들이 그들 국가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S2P26B 이민자들의 자녀도 그 나라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IS2P26C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IS2P26D 이민자들에게 그들 국가의 관습과 생활양식을 허용해야 한다. IS2P26E 이민자들도 이민 국가의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IRT 척도(WLE)로 평균 50, 표준편차10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해당 문항 없음]	
다수정당 존재이유	×[해당 문항 없음]	

<부록 3> 청소년 핵심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국가 간 비교

1.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1) Europe 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 관계지향성: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 관련 ICCS문항(STUTREL: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키프로스와 라트비아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폴란드,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7>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오스트리아	-.7989	.20745	.972	-2.1129	.5151
한국-불가리아	-4.7197(*)	.21017	.000	-6.0509	-3.3886
한국-키프로스	1.1424	.21261	.367	-.2043	2.4890
한국-체코	-1.2640(*)	.18908	.018	-2.4616	-.0664
한국-덴마크	-5.6413(*)	.19203	.000	-6.8576	-4.4251
한국-에스토니아	-1.4140(*)	.22147	.043	-2.8168	-.0113
한국-핀란드	-2.0454(*)	.20883	.000	-3.3681	-.7228
한국-그리스	-3.1975(*)	.21179	.000	-4.5390	-1.8560
한국-아일랜드	-3.0464(*)	.20768	.000	-4.3618	-1.7310
한국-이탈리아	-5.3809(*)	.20740	.000	-6.6946	-4.0673
한국-라트비아	.7276	.22099	.998	-.6721	2.1273
한국-리히텐슈타인	-1.1207	.51436	1.000	-4.3786	2.1371
한국-리투아니아	-3.8233(*)	.19842	.000	-5.0800	-2.5665
한국-룩셈부르크	-1.2733(*)	.18732	.012	-2.4598	-.0869
한국-몰타	-6.4054(*)	.24078	.000	-7.9304	-4.8804

한국-네덜란드	-2.2190(*)	.25031	.000	-3.8044	-.6336
한국-뉴질랜드	-2.7807(*)	.19833	.000	-4.0369	-1.5245
한국-노르웨이	-6.4712(*)	.21596	.000	-7.8390	-5.1033
한국-폴란드	-1.0191	.20940	.648	-2.3454	.3072
한국-러시아	-5.0848(*)	.19310	.000	-6.3078	-3.8617
한국-슬로바키아	-1.7783(*)	.21544	.000	-3.1429	-.4137
한국-슬로베니아	-.9498	.21353	.840	-2.3023	.4027
한국-스페인	-4.3362(*)	.20863	.000	-5.6576	-3.0148
한국-스웨덴	-5.1718(*)	.20598	.000	-6.4765	-3.8672
한국-스위스	-3.6094(*)	.21665	.000	-4.9816	-2.2372
한국-영국	-2.3650(*)	.21723	.000	-3.7409	-.9892
한국-벨기에	-2.8943(*)	.21533	.000	-4.2582	-1.5305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 관계지향성: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 관련 ICCS문항(STUTREL: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Latin America 모든 국가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8>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칠레	-5.2732(*)	.19301	.000	-5.9581	-4.5883
한국-콜롬비아	-7.9230(*)	.18552	.000	-8.5814	-7.2647
한국-도미니카 공화국	-12.6049(*)	.20556	.000	-13.3343	-11.8754
한국-파테말라	-10.5279(*)	.20790	.000	-11.2656	-9.7901
한국-멕시코	-7.1680(*)	.18289	.000	-7.8170	-6.5189
한국-파라과이	-10.0591(*)	.22017	.000	-10.8404	-9.2778

(3) Asi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 관련 ICCS 문항(STUTREL: 학생-교사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Asia국가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Asia국가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9>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대만	-4.7265(*)	.17761	.000	-5.2736	-4.1794
한국-홍콩	-3.1718(*)	.21127	.000	-3.8226	-2.5210
한국-인도네시아	-8.2296(*)	.17915	.000	-8.7815	-7.6777
한국-태국	-6.3944(*)	.17668	.000	-6.9386	-5.8501

2.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 관련 ICCS 문항(INTRUST: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Europe 국가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10>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오스트리아	-9.5529(*)	.20616	.000	-10.8587	-8.2471
한국-불가리아	-5.0365(*)	.21029	.000	-6.3684	-3.7046
한국-키프로스	-2.1985(*)	.21307	.000	-3.5481	-.8490
한국-체코	-5.0444(*)	.18779	.000	-6.2338	-3.8550
한국-덴마크	-8.9178(*)	.19128	.000	-10.1293	-7.7063
한국-에스토니아	-4.8305(*)	.22034	.000	-6.2261	-3.4349
한국-핀란드	-10.2142(*)	.20699	.000	-11.5252	-8.9032
한국-그리스	-1.8791(*)	.21119	.000	-3.2167	-.5415
한국-아일랜드	-6.1007(*)	.20716	.000	-7.4128	-4.7886
한국-이탈리아	-9.0663(*)	.20599	.000	-10.3711	-7.7616
한국-라트비아	-1.4615(*)	.21944	.019	-2.8514	-.0717
한국-리히텐슈타인	-11.9098(*)	.51237	.000	-15.1550	-8.6645
한국-리투아니아	-4.7542(*)	.19696	.000	-6.0017	-3.5067
한국-룩셈부르크	-7.8648(*)	.18655	.000	-9.0464	-6.6832
한국-몰타	-8.7725(*)	.24031	.000	-10.2945	-7.2504
한국-네덜란드	-8.4488(*)	.24906	.000	-10.0263	-6.8714
한국-뉴질랜드	-7.2196(*)	.19788	.000	-8.4729	-5.9663
한국-노르웨이	-9.8393(*)	.21690	.000	-11.2130	-8.4655
한국-폴란드	-1.9027(*)	.20789	.000	-3.2195	-.5860
한국-러시아	-9.0369(*)	.19173	.000	-10.2513	-7.8225
한국-슬로바키아	-5.1829(*)	.21378	.000	-6.5369	-3.8288
한국-슬로베니아	-5.4135(*)	.21200	.000	-6.7562	-4.0707
한국-스페인	-6.6039(*)	.20779	.000	-7.9200	-5.2878
한국-스웨덴	-8.9228(*)	.20525	.000	-10.2228	-7.6228
한국-스위스	-7.7842(*)	.21565	.000	-9.1500	-6.4183
한국-영국	-7.6968(*)	.21633	.000	-9.0670	-6.3266
한국-벨기에	-6.4039(*)	.21399	.000	-7.7592	-5.0485

(2) Latin America 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 관련 ICCS 문항 (INTRUST: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Latin America 국가와 한국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Latin America 국가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11>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칠레	-6.6529(*)	.19787	.000	-7.3551	-5.9507
한국-콜롬비아	-6.3148(*)	.19154	.000	-6.9945	-5.6351
한국-도미니카 공화국	-11.0437(*)	.21674	.000	-11.8129	-10.2746
한국-파테말라	-4.0708(*)	.21441	.000	-4.8316	-3.3099
한국-멕시코	-5.5770(*)	.18853	.000	-6.2460	-4.9079
한국-파라과이	-6.5366(*)	.23116	.000	-7.3570	-5.7163

(3) Asia 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 관련 ICCS 문항 (INTRUST: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Asia 국가 사후비교분석 (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Asia 국가에 비해서 낮았다.

<부표 12>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대만	-4.8417(*)	.17321	.000	-5.3753	-4.3081
한국-홍콩	-8.1912(*)	.20621	.000	-8.8265	-7.5560
한국-인도 네시아	-15.7114(*)	.17518	.000	-16.2510	-15.1717
한국-태국	-12.6054(*)	.17246	.000	-13.1367	-12.0742

3.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관련 ICCS문항 (POLDISC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은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벨기에 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 라트비아보다는 유의하게 평균이 낮았다.

<부표 13>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오스트리아	-.5913	.21588	1.000	-1.9586	.7760
한국-불가리아	-.1821	.21939	1.000	-1.5717	1.2075
한국-키프로스	.2047	.22097	1.000	-1.1949	1.6043
한국-체코	2.5791(*)	.19715	.000	1.3304	3.8278
한국-덴마크	.1016	.19996	1.000	-1.1649	1.3680
한국-에스토니아	1.0486	.23061	.801	-.4121	2.5092

한국-핀란드	4.4636(*)	.21697	.000	3.0893	5.8379
한국-그리스	-.8450	.22057	.974	-2.2421	.5520
한국-아일랜드	1.9704(*)	.21617	.000	.6013	3.3396
한국-이탈리아	-1.9526(*)	.21576	.000	-3.3192	-.5861
한국-라트비아	-2.7723(*)	.23031	.000	-4.2310	-1.3136
한국-리히텐슈타인	-1.3148	.53415	1.000	-4.6980	2.0684
한국-리투아니아	-1.1120	.20660	.362	-2.4206	.1965
한국-룩셈부르크	.3629	.19488	1.000	-.8714	1.5971
한국-몰타	-.7834	.25061	.999	-2.3708	.8039
한국-네덜란드	3.9280(*)	.26061	.000	2.2773	5.5786
한국-뉴질랜드	-.0769	.20615	1.000	-1.3826	1.2288
한국-노르웨이	1.5152(*)	.22432	.014	.0944	2.9360
한국-폴란드	-.2655	.21810	1.000	-1.6470	1.1159
한국-러시아	.3059	.20158	1.000	-.9709	1.5827
한국-슬로바키아	.7033	.22430	.999	-.7174	2.1239
한국-슬로베니아	2.4039(*)	.22222	.000	.9965	3.8114
한국-스페인	2.4048(*)	.21716	.000	1.0293	3.7802
한국-스웨덴	3.2699(*)	.21452	.000	1.9111	4.6286
한국-스위스	-.4291	.22567	1.000	-1.8585	1.0002
한국-영국	2.5523(*)	.22605	.000	1.1206	3.9841
한국-벨기에	4.8352(*)	.22418	.000	3.4153	6.2551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관련 ICCS문항 (POLDISC: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은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파라과이보다 유의하게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4>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칠레	.7131(*)	.19367	.035	.0258	1.4004
한국-콜롬비아	-.6289	.18668	.078	-1.2914	.0336
한국-도미니카 공화국	-1.6836(*)	.20813	.000	-2.4222	-.9450
한국-과테말라	-2.9258(*)	.20964	.000	-3.6698	-2.1819
한국-멕시코	2.6170(*)	.18365	.000	1.9653	3.2687
한국-파라과이	-1.3667(*)	.22283	.000	-2.1575	-.5760

(3) Asi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 관련 ICCS문항(POLDISC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에 대한 Asia국가 간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은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만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5>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대만	.7534(*)	.18952	.003	.1696	1.3372
한국-홍콩	-1.0493(*)	.22550	.000	-1.7439	-.3546
한국-인도네시아	-4.4292(*)	.19133	.000	-5.0186	-3.8398
한국-태국	-5.0219(*)	.18865	.000	-5.6030	-4.4407

4. 합법적 항의에 참여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관련 ICCS문항 (LEGPROT 합법적 항의에 참여)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Europe국가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16>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오스트리아	-5.4324(*)	.21619	.000	-6.8017	-4.0631
한국-불가리아	-6.2534(*)	.22212	.000	-7.6602	-4.8465
한국-키프로스	-6.1854(*)	.22580	.000	-7.6155	-4.7552
한국-체코	-4.2332(*)	.19711	.000	-5.4816	-2.9847
한국-덴마크	-2.2167(*)	.20097	.000	-3.4896	-.9438
한국-에스토니아	-3.3673(*)	.23148	.000	-4.8334	-1.9011
한국-핀란드	-4.4737(*)	.21716	.000	-5.8491	-3.0983
한국-그리스	-6.5517(*)	.22268	.000	-7.9621	-5.1413
한국-아일랜드	-6.3742(*)	.21819	.000	-7.7561	-4.9922
한국-이탈리아	-3.5158(*)	.21621	.000	-4.8852	-2.1464
한국-라트비아	-5.0273(*)	.23024	.000	-6.4856	-3.5690
한국-리히텐슈타인	-3.4445	.54399	.050	-6.8900	.0010
한국-리투아니아	-6.5737(*)	.20674	.000	-7.8831	-5.2642
한국-룩셈부르크	-4.5646(*)	.19606	.000	-5.8064	-3.3228
한국-몰타	-3.4754(*)	.25342	.000	-5.0805	-1.8703
한국-네덜란드	-.5974	.26176	1.000	-2.2553	1.0606
한국-뉴질랜드	-4.5142(*)	.20822	.000	-5.8330	-3.1953
한국-노르웨이	-2.8387(*)	.22917	.000	-4.2902	-1.3872
한국-폴란드	-1.3862(*)	.21815	.047	-2.7679	-.0045
한국-러시아	-2.4944(*)	.20130	.000	-3.7694	-1.2194
한국-슬로바키아	-5.5048(*)	.22439	.000	-6.9260	-4.0835
한국-슬로베니아	-4.2166(*)	.22256	.000	-5.6262	-2.8069
한국-스페인	-4.7363(*)	.21823	.000	-6.1185	-3.3540

한국-스웨덴	-2.9613(*)	.21564	.000	-4.3271	-1.5956
한국-스위스	-2.7715(*)	.22687	.000	-4.2085	-1.3346
한국-영국	-4.9599(*)	.22744	.000	-6.4005	-3.5193
한국-벨기에	-2.0370(*)	.22439	.000	-3.4582	-.6157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관련 ICCS문항 (LEGPROT: 합법적 항의에 참여)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Latin America국가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17>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칠레	-8.4423(*)	.19511	.000	-9.1347	-7.7499
한국-콜롬비아	-9.8773(*)	.19018	.000	-10.5522	-9.2024
한국-도미니카 공화국	-12.3127(*)	.21645	.000	-13.0808	-11.5446
한국-파테말라	-8.4876(*)	.21256	.000	-9.2419	-7.7333
한국-멕시코	-7.9127(*)	.18683	.000	-8.5757	-7.2497
한국-파라과이	-7.4104(*)	.23209	.000	-8.2340	-6.5868

(3) Asi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정치관심" 관련 ICCS문항 (LEGPROT 합법적 항의에 참여)에 대한 Asia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

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Asia국가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18>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대만	-3.9801(*)	.18931	.000	-4.5633	-3.3969
한국-홍콩	-2.2510(*)	.22562	.000	-2.9460	-1.5559
한국-인도네시아	-6.9707(*)	.19231	.000	-7.5632	-6.3783
한국-태국	-4.0700(*)	.18874	.000	-4.6514	-3.4886

5.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

(1) Europe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종교이해 “ 관련 ICCS문항(RELINF: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체코를 제외한 나머지 Europe 국가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19>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오스트리아	-5.1440(*)	.20196	.000	-6.2984	-3.9895
한국-불가리아	-8.4767(*)	.21019	.000	-9.6782	-7.2753
한국-키프로스	-14.5190(*)	.21203	.000	-15.7310	-13.3070
한국-체코	.8748	.18478	.376	-.1814	1.9310
한국-덴마크	-1.5576(*)	.18888	.000	-2.6373	-.4779
한국-그리스	-10.2236(*)	.20930	.000	-11.4200	-9.0272

한국-라트비아	-4.9036(*)	.21514	.000	-6.1333	-3.6738
한국-리히텐슈타인	-3.0547(*)	.50550	.019	-5.9442	-1.1653
한국-리투아니아	-7.0389(*)	.19295	.000	-8.1419	-5.9360
한국-룩셈부르크	-2.7648(*)	.18335	.000	-3.8128	-1.7168
한국-몰타	-13.4813(*)	.23700	.000	-14.8360	-12.1266
한국-네덜란드	-3.3457(*)	.24495	.000	-4.7459	-1.9456
한국-뉴질랜드	-6.5071(*)	.19464	.000	-7.6197	-5.3945
한국-노르웨이	-3.5345(*)	.21572	.000	-4.7676	-2.3015
한국-폴란드	-11.5765(*)	.20405	.000	-12.7429	-10.4102
한국-러시아	-9.2822(*)	.18831	.000	-10.3586	-8.2058
한국-슬로바키아	-6.6891(*)	.20948	.000	-7.8865	-5.4917
한국-스웨덴	-2.6009(*)	.20207	.000	-3.7560	-1.4458
한국-스위스	-3.5253(*)	.21213	.000	-4.7378	-2.3127
한국-영국	-4.5578(*)	.21301	.000	-5.7754	-3.3402
한국-벨기에	-3.1640(*)	.21038	.000	-4.3665	-1.9614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종교이해 “ 관련 ICCS문항(RELINF: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Latin America국가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20>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칠레	-5.2732(*)	.19301	.000	-5.9581	-4.5883
한국-콜롬비아	-7.9230(*)	.18552	.000	-8.5814	-7.2647
한국-도미니카 공화국	-12.6049(*)	.20556	.000	-13.3343	-11.8754
한국-과테말라	-10.5279(*)	.20790	.000	-11.2656	-9.7901
한국-멕시코	-7.1680(*)	.18289	.000	-7.8170	-6.5189
한국-파라과이	-10.0591(*)	.22017	.000	-10.8404	-9.2778

(3) Asi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종교이해 “ 관련 ICCS문항(RELINF: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에 대한 Asia국가 간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Asia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21>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대만	-5.9112(*)	.15001	.000	-6.3733	-5.4491
한국-홍콩	-4.0762(*)	.17887	.000	-4.6272	-3.5252
한국-인도네시아	-18.2080(*)	.15308	.000	-18.6796	-17.7365
한국-태국	-15.6466(*)	.15000	.000	-16.1087	-15.1846

6.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1) Europe 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소속감" 관련 ICCS문항 (PARTSCHL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Europe 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은 네덜란드 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2>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오스트리아	-3.6903(*)	.21701	.000	-5.0648	-2.3158
한국-불가리아	-2.1852(*)	.22020	.000	-3.5799	-.7904
한국-키프로스	-6.5541(*)	.22232	.000	-7.9622	-5.1460
한국-체코	-2.3029(*)	.19807	.000	-3.5574	-1.0484
한국-덴마크	-2.7821(*)	.20105	.000	-4.0555	-1.5088
한국-에스토니아	-1.3145	.23189	.227	-2.7833	.1542
한국-핀란드	-2.9319(*)	.21848	.000	-4.3157	-1.5481
한국-그리스	-9.5306(*)	.22167	.000	-10.9346	-8.1266
한국-아일랜드	-4.6839(*)	.21739	.000	-6.0608	-3.3070
한국-이탈리아	-1.8728(*)	.21693	.000	-3.2468	-.4988
한국-라트비아	-3.4266(*)	.23136	.000	-4.8920	-1.9613
한국-리히텐슈타인	-3.3747	.53911	.061	-6.7893	.0399
한국-리투아니아	-3.4453(*)	.20773	.000	-4.7610	-2.1296

한국-룩셈부르크	.6200	.19593	.999	-.6209	1.8610
한국-몰타	-2.2327(*)	.25217	.000	-3.8299	-.6355
한국-네덜란드	3.5468(*)	.26192	.000	1.8878	5.2057
한국-뉴질랜드	-3.8626(*)	.20742	.000	-5.1764	-2.5489
한국-노르웨이	-8.5168(*)	.22531	.000	-9.9439	-7.0898
한국-폴란드	-8.6433(*)	.21923	.000	-10.0318	-7.2547
한국-러시아	-3.4794(*)	.20240	.000	-4.7613	-2.1975
한국-슬로바키아	-6.3575(*)	.22538	.000	-7.7851	-4.9300
한국-슬로베니아	-5.4649(*)	.22344	.000	-6.8801	-4.0497
한국-스페인	-6.9311(*)	.21834	.000	-8.3141	-5.5482
한국-스웨덴	-5.2089(*)	.21575	.000	-6.5753	-3.8424
한국-스위스	-2.1523(*)	.22674	.000	-3.5885	-.7162
한국-영국	-4.8167(*)	.22742	.000	-6.2571	-3.3762
한국-벨기에	-.5867	.22541	1.000	-2.0144	.8410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소속감" 관련 ICCS문항 (PARTSCHL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유의하게 Latin America 모든 국가에 비해서 낮았다.

<부표 23>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칠레	-6.4707(*)	.18668	.000	-7.1332	-5.8082
한국-콜롬비아	-7.5376(*)	.17958	.000	-8.1749	-6.9003
한국-도미니카 공화국	-7.3579(*)	.19924	.000	-8.0649	-6.6509
한국-과테말라	-9.7974(*)	.20147	.000	-10.5123	-9.0825
한국-멕시코	-4.0622(*)	.17687	.000	-4.6898	-3.4345
한국-파라과이	-8.7577(*)	.21369	.000	-9.5161	-7.9994

(3) Asi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소속감" 관련 ICCS문항 (PARTSCHL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Asia국가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Asia 모든 국가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부표 24>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대만	-4.4752(*)	.19011	.000	-5.0608	-3.8896
한국-홍콩	-2.4285(*)	.22634	.000	-3.1257	-1.7312
한국-인도네시아	-6.9353(*)	.19196	.000	-7.5266	-6.3439
한국-태국	-4.1941(*)	.18954	.000	-4.7780	-3.6103

7.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

(1) Europe 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이민자에 대한 태도 “ 관련 ICCS문항 (IMMRGHT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에 대한 Europe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그리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25>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오스트리아	1.1234	.21719	.477	-.2522	2.4991
한국-불가리아	-2.6516(*)	.22182	.000	-4.0565	-1.2466
한국-키프로스	.0067	.22504	1.000	-1.4187	1.4320
한국-체코	1.0584	.19814	.384	-.1966	2.3134
한국-덴마크	.5707	.20172	1.000	-.7069	1.8484
한국-에스토니아	1.5345(*)	.23238	.023	.0627	3.0064
한국-핀란드	1.0907	.21923	.588	-.2979	2.4792
한국-그리스	-1.7849(*)	.22325	.000	-3.1989	-.3709
한국-아일랜드	-.7424	.21857	.996	-2.1267	.6420
한국-이탈리아	.7174	.21745	.997	-.6599	2.0946
한국-라트비아	2.1790(*)	.23170	.000	.7114	3.6465
한국-리히텐슈타인	1.5250	.54007	1.000	-1.8957	4.9456
한국-리투아니아	-1.8906(*)	.20771	.000	-3.2063	-.5750
한국-룩셈부르크	-2.5534(*)	.19672	.000	-3.7994	-1.3074
한국-몰타	.4034	.25386	1.000	-1.2044	2.0113
한국-네덜란드	3.7464(*)	.26253	.000	2.0836	5.4093
한국-뉴질랜드	-1.8066(*)	.20874	.000	-3.1287	-.4844
한국-노르웨이	-1.2162	.22784	.386	-2.6593	.2269

한국-폴란드	-.9478	.21946	.882	-2.3378	.4422
한국-러시아	.2504	.20237	1.000	-1.0314	1.5321
한국-슬로바키아	-.5809	.22547	1.000	-2.0090	.8472
한국-슬로베니아	-1.2019	.22366	.367	-2.6186	.2147
한국-스페인	-1.4513(*)	.21929	.022	-2.8403	-.0624
한국-스웨덴	-3.0630(*)	.21614	.000	-4.4320	-1.6941
한국-스위스	.3644	.22744	1.000	-1.0761	1.8049
한국-영국	2.8683(*)	.22808	.000	1.4238	4.3129
한국-벨기에	3.2396(*)	.22572	.000	1.8100	4.6693

(2) Latin Americ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이민자에 대한 태도 “ 관련 ICCS문항 (IMMRGHT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에 대한 Latin America국가와 한국 간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Latin America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부표 26>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칠레	-5.0008(*)	.18464	.000	-5.6561	-4.3456
한국-콜롬비아	-5.1564(*)	.17837	.000	-5.7894	-4.5234
한국-도미니카 공화국	-2.4491(*)	.20135	.000	-3.1636	-1.7346
한국-파테말라	-5.3473(*)	.20017	.000	-6.0576	-4.6370
한국-멕시코	-5.5549(*)	.17565	.000	-6.1783	-4.9316
한국-파라과이	-4.2373(*)	.21542	.000	-5.0017	-3.4728

(3) Asia국가와의 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이민자에 대한 태도 “ 관련 ICCS문항 (IMMRGHT: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에 대한 Asia국가 간의 사후비교 분석(Scheffe)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의 평균은 대만 홍콩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인도네시아, 태국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높았다.

<부표 27> 사후 비교분석 결과

국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상한값	하한값
한국-대만	-6.4836(*)	.16647	.000	-6.9964	-5.9708
한국-홍콩	-4.0831(*)	.19821	.000	-4.6937	-3.4725
한국-인도네시아	2.2273(*)	.16834	.000	1.7087	2.7459
한국-태국	1.1936(*)	.16583	.000	.6828	1.7045

<부록 4> 청소년 핵심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교차분석 결과

1) 사회적 협력의 “민주적 절차”

사회적 협력의 하위항목 중 “민주적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학교급, 성별, 학교유형, 경제적 여건, 부모님 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떤 경우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는 응답이 올바른 답안으로 나머지 응답은 “오답”으로 설정하였다.

정부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부표 28> 학교급에 따른 정부가 비 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중학교	1690	61.9	1040	38.1	2730	100.0	104.491* **
고등학교	1747	49.0	1821	51.0	3568	100.0	
전체	3437	54.6	2861	45.4	6298	100.0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04.491로 유의확률 .00유의수준에서 학교급에 따라 정부를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에 따르면, 중학생(38.1%)에 비하여 고등학생(51.0%)들은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

지 않거나 금지될 때”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표 29> 성별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남	1898	56.8	1441	43.2	3339	100.0	14.778***
여	1539	52.0	1420	48.0	2959	100.0	
전체	3437	54.6	2861	45.4	6298	100.0	

정부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한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X2통계값은 14.778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정부를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보다 여학생들은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남 : 1441명, 43.2%, 여 : 1420명, 48.0%)가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함으로 남학생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비율이 높았다.

<부표 30> 수도권여부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수도권	1478	54.5	1236	45.5	2714	100.0	0.024
비수도권	1959	54.7	1625	45.3	3584	100.0	
전체	3437	54.6	2861	45.4	6298	100.0	

학생들의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0.024로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정부의 비민주적인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1〉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남녀공학	2226	56.9	1687	43.1	3913	100.0	24.824 ***
남학교	629	52.9	559	47.1	1188	100.0	
여학교	582	48.6	615	51.4	1197	100.0	
전체	3437	54.6	2861	45.4	6298	100.0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 정부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되는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24.824로 유의확률 .000 유의수준에서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 정부를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정부가 비민주적일 때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하지 않거나 금지될 때” 라는 정답을 51.4%가 인식하고 있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는 남녀공학(43.1%) 혹은 남학교(47.1%)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응답을 보였다.

<부표 32> 설립유형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사립	1090	51.3	1036	48.7	2126	100.0	14.123 ***
공립	2347	56.3	1825	43.7	4172	100.0	
전체	3437	54.6	2861	45.4	6298	100.0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4.123으로 유의확률 .000유의수준에서 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라 정부를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생들의 경우,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고 응답한 비율(48.7%)이 공립학교 학생(43.7%)들에 비하여 높은 반면, 공립학교 학생들의 경우, 오답에 응답한 비율이 사립학교 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부표 33> 아버지학력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고등이하	237	59.0	165	41.0	402	100.0	24.170 ***
고졸	1597	56.6	1224	43.4	2821	100.0	
대학이상	1418	50.8	1373	49.2	2791	100.0	
전체	3252	54.1	2762	45.9	6014	100.0	

부모의 학력 중 아버지 학력에 따라 정부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되는 인식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24.170으로 확률 .00유의수준에서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정부를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인 정답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4> 어머니학력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고등이하	256	58.0	185	42.0	441	100.0	4.681
고졸	1882	54.5	1569	45.5	3451	100.0	
대학이상	1103	52.7	990	47.3	2093	100.0	
전체	3241	54.2	2744	45.8	5985	100.0	

부모의 학력 중 어머니학력에 따라 정부의 비민주적인 이유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표 35> 아버지 직업 유무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140	55.8	111	44.2	251	100.0	0.188
없음	3218	54.4	2699	45.6	5917	100.0	
전체	3358	54.4	2810	45.6	6168	100.0	

부모 직업유무 중 아버지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 통계값은 0.188로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6>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1109	53.9	949	46.1	2058	100.0	0.304
없음	2242	54.6	1862	45.4	4104	100.0	
전체	3351	54.4	2811	45.6	6162	100.0	

부모 직업유무 중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 통계값은 0.304로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표 37>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1 매우 못 산다	54	56.8	41	43.2	95	100.0	2.515
2	188	57.5	139	42.5	327	100.0	
3	488	54.0	416	46.0	904	100.0	
4 보통 수준	1808	54.7	1498	45.3	3306	100.0	
5	683	53.2	601	46.8	1284	100.0	
6	130	54.4	109	45.6	239	100.0	
7 매우 잘 산다	40	56.3	31	43.7	71	100.0	
전체	3391	54.5	2835	45.5	6226	100.0	

정부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해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X2통계값은 2.515로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민주적, 비민주적인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부표 38> 성적(국어)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국어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2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188	69.9	81	30.1	269	100.0	106.016 ***
못하는 수준	761	64.0	428	36.0	1189	100.0	
중간	1657	53.4	1448	46.6	3105	100.0	
잘하는 수준	672	48.5	713	51.5	1385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135	43.4	176	56.6	311	100.0	
전체	3413	54.5	2846	45.5	6259	100.0	

학생들의 성적여부에 따라 정부의 비민주적 이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국어성적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X2통계값은 106.016으로 유의확률 .00에서 국어성적에 따라 비민주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정부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가장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표 39> 성적(영어)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영어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504	61.2	319	38.8	823	100.0	39.073***
못하는 수준	969	58.0	702	42.0	1671	100.0	
중간	1128	51.5	1062	48.5	2190	100.0	
잘하는 수준	579	51.3	549	48.7	1128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205	50.0	205	50.0	410	100.0	
전체	3385	54.4	2837	45.6	6222	100.0	

학생들의 성적여부에 따라 정부의 비민주적 이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영어성적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X2통계값은 39.073으로 유의확률 .00에서 영어성적에 따라 비민주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성적이 높을수록 정부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가장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표 40> 성적(수학)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수학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686	59.5	467	40.5	1153	100.0	22.012
못하는 수준	1001	55.8	792	44.2	1793	100.0	
중간	1015	52.6	915	47.4	1930	100.0	

잘하는 수준	527	52.2	482	47.8	1009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181	49.2	187	50.8	368	100.0
전체	3410	54.5	2843	45.5	6253	100.0

학생들의 성적여부에 따라 정부의 비민주적 이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수학성적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X² 통계값은 22.012으로 유의확률 .000에서 수학성적에 따라 비민주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성적이 높을수록 정부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가장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표 41> 성적(사회)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사회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389	64.6	213	35.4	602	100.0	82.939***
못하는 수준	1014	61.0	648	39.0	1662	100.0	
중간	1252	52.0	1157	48.0	2409	100.0	
잘하는 수준	513	48.1	554	51.9	1067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177	48.2	190	51.8	367	100.0	
전체	3345	54.8	2762	45.2	6107	100.0	

학생들의 성적여부에 따라 정부의 비민주적 이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성적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X2통계값은 82.937로 유의확률 .00에서 사회성적에 따라 비민주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성적이 높을수록 정부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가장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표 42> 성적(과학)에 따른 정부가 비민주적인 이유(교차분석)

과학	오답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439	59.0	305	41.0	744	100.0	24.502
못하는 수준	1011	57.6	745	42.4	1756	100.0	
중간	1235	54.0	1051	46.0	2286	100.0	
잘하는 수준	482	50.9	465	49.1	947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185	47.9	201	52.1	386	100.0	
전체	3352	54.8	2767	45.2	6119	100.0	

학생들의 성적여부에 따라 정부의 비민주적 이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과학성적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X2 통계값은 24.502로 유의확률 .00에서 과학성적에 따라 비민주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성적이 높을수록 정부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가장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갈등관리 중 “다양한 가치의 수용”

최근에 철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남의 집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석방된 후 철수는 영희라는 사람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영희는 “철수가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1) 평등에 대한 인식

Q) 다음 중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옥에서 석방된 철수가 영희의 옆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4지선다형으로 질문을 유도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 중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는 정답으로 나머지 “철수가 옆집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은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응답내용을 정답과 오답으로 나누어 종속변수(명명척도)로 하고, 각 학교급, 성별, 가정의 경제력,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급에 따라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가 무엇인지의 응답에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표 43〉 학교급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중학교	1838	66.5	924	33.5	2762	100.0	17.511***
고등학교	2203	61.5	1382	38.5	3585	100.0	
전체	4041	63.7	2306	36.3	6347	100.0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²통계값은 17.511로 유의확률 .00유의수준에서 학교급에 따라 평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중·고등학생들의 모두 정답인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라는 응답은 30%대의 응답률을 보여 다소 낮은 정답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철수는 자신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부표 45〉 성별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남	2103	62.4	1268	37.6	3371	100.0	5.115*
여	1938	65.1	1038	34.9	2976	100.0	
전체	4041	63.7	2306	36.3	6347	100.0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²통계값은 5.115로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평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남학생(37.7%)은 여학생(34.7%)에

비하여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라는 응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됨.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좀 더 평등한 인식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부표 46〉 수도권여부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수도권	1712	62.5	1027	37.5	2739	100.0	2.819
비수도권	2329	64.6	1279	35.4	3608	100.0	
전체	4041	63.7	2306	36.3	6347	100.0	

수도권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표 47〉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남녀공학	2556	64.7	1396	35.3	3952	100.0	6.991*
남학교	724	60.5	473	39.5	1197	100.0	
여학교	761	63.5	437	36.5	1198	100.0	
전체	4041	63.7	2306	36.3	6347	100.0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에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 통계값은 6.991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비하여 남학교나 여학교 학생들이 정답에 응답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교 학생보다 남학교 학생들의 정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표 48〉 설립유형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사립	1332	62.3	806	37.7	2138	100.0	2.603
공립	2709	64.4	1500	35.6	4209	100.0	
전체	4041	63.7	2306	36.3	6347	100.0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교차분석 결과, X2통계값은 2.603으로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표 49〉 아버지학력에 따른 정부가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고등이하	269	66.1	138	33.9	407	100.0	11.883**
고졸	1852	65.3	985	34.7	2837	100.0	
대학이상	1720	61.1	1094	38.9	2814	100.0	
전체	3841	63.4	2217	36.6	6058	100.0	

부모학력 중 아버지학력이 높을수록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에 대한 분석은 X2통계값이 11.883으로 유의확률 .01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아버지 학력이 높아질수록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표 50> 어머니학력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고등이하	292	65.9	151	34.1	443	100.0	4.207
고졸	2233	64.1	1248	35.9	3481	100.0	
대학이상	1302	61.9	803	38.1	2105	100.0	
전체	3827	63.5	2202	36.5	6029	100.0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X2통계값은 4.207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수준에서 응답자의 특별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부표 51> 아버지 직업 유무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168	66.4	85	33.6	253	100.0	0.964
없음	3780	63.4	2185	36.6	5965	100.0	
전체	3948	63.5	2270	36.5	6218	100.0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X2통계값은 0.964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수준에서 응답자의 특별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부표 52〉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1337	64.4	738	35.6	2075	100.0	0.792
없음	2618	63.3	1519	36.7	4137	100.0	
전체	3955	63.7	2257	36.3	6212	100.0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X2통계값은 0.792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수준에서 응답자의 특별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부표 53〉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1 매우 못 산다	65	68.4	30	31.6	95	100.0	6.355
2	229	69.0	103	31.0	332	100.0	
3	568	62.8	337	37.2	905	100.0	
4 보통 수준	2117	63.6	1214	36.4	3331	100.0	
5	818	63.1	479	36.9	1297	100.0	
6	150	62.5	90	37.5	240	100.0	
7 매우 잘 산다	43	58.9	30	41.1	73	100.0	
전체	3990	63.6	2283	36.4	6273	100.0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가 무엇인지의 응답에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6.355로 응답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철수는 죄 값을 치렀으므로”의 정답에 대한 응답비율은 점점 높게 나타나는 확인할 수 있었다.

〈부표 54〉 성적(국어)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국어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170	63.4	98	36.6	268	100.0	21.765* **
못하는 수준	810	67.3	394	32.7	1204	100.0	
중간	2014	64.5	1110	35.5	3124	100.0	
잘하는 수준	851	60.9	546	39.1	1397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173	55.3	140	44.7	313	100.0	
전체	4018	63.7	2288	36.3	6306	100.0	

성적(국어)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21.765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응답내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분석결과, 성적이 높아질수록 정답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표 55〉 성적(영어)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영어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523	62.8	310	37.2	833	100.0	1.638
못하는 수준	1074	64.1	601	35.9	1675	100.0	
중간	1407	63.7	801	36.3	2208	100.0	
잘하는 수준	731	64.1	409	35.9	1140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252	61.2	160	38.8	412	100.0	
전체	3987	63.6	2281	36.4	6268	100.0	

성적(영어)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638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표 56〉 성적(수학)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수학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754	64.9	408	35.1	1162	100.0	10.301
못하는 수준	1177	65.0	634	35.0	1811	100.0	
중간	1225	63.1	717	36.9	1942	100.0	
잘하는 수준	649	63.9	367	36.1	1016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209	56.6	160	43.4	369	100.0	
전체	4014	63.7	2286	36.3	6300	100.0	

성적(수학)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0.301로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응답내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분석결과, 수학성적이 매우 잘하는 수준일 경우, 정답에 응답할 확률은 확연히 높아지고 있었다.

〈부표 57〉 성적(사회)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사회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382	63.0	224	37.0	606	100.0	15.395**
못하는 수준	1092	65.0	589	35.0	1681	100.0	
중간	1591	65.7	831	34.3	2422	100.0	
잘하는 수준	648	60.4	424	39.6	1072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216	58.1	156	41.9	372	100.0	
전체	3929	63.9	2224	36.1	6153	100.0	

성적(사회)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5.395로 유의확률 .01수준에서 응답내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성적이 높아질수록 정답 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표 58〉 성적(과학)에 따른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교차분석)

과학	오답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474	63.6	271	36.4	745	100.0	17.182**
못하는 수준	1150	64.9	622	35.1	1772	100.0	
중간	1524	65.9	787	34.1	2311	100.0	
잘하는 수준	575	60.5	375	39.5	950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222	57.2	166	42.8	388	100.0	
전체	3945	64.0	2221	36.0	6166	100.0	

성적(과학)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7.182로 유의확률 .01수준에서 응답내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분석결과, 다른 과목 성적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높아질수록 정답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Q)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감옥에서 석방된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은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중요한 질문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응답했을 경우를 정답, 그렇지 않을 경우를 오답으로 재분류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표 59〉 학교급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중학교	925	33.5	1834	66.5	2759	100.0	31.302***
고등학교	969	27.1	2611	72.9	3580	100.0	
전체	1894	29.9	4445	70.1	6339	100.0	

학교급에 따라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²통계값은 31.302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학교급에 따라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고등학생(72.9%)들은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는 비율이 중학생(66.5%)에 비하여 높아 사회통합에 대해 더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표 60> 성별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남	1157	34.4	2204	65.6	3361	100.0	70.561***
여	737	24.7	2241	75.3	2978	100.0	
전체	1894	29.9	4445	70.1	6339	100.0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70.561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사회통합에 대한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여학생(75.3%)들은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65.5%)에 비하여 높아 여학생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에 비하여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표 61> 수도권여부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수도권	774	28.3	1960	71.7	2734	100.0	5.644*
비수도권	1120	31.1	2485	68.9	3605	100.0	
전체	1894	29.9	4445	70.1	6339	100.0	

수도권 거주여부에 따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5.644로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수도권 거주여부에 따라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는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학생(71.7%)들의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수도권 학생(68.9%)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62>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남녀공학	1252	31.7	2693	68.3	3945	100.0	23.826***
남학교	349	29.2	845	70.8	1194	100.0	
여학교	293	24.4	907	75.6	1200	100.0	
전체	1894	29.9	4445	70.1	6339	100.0	

남녀공학 등 학교특성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23.826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남녀공학여부에 따라 사회통합에 대한 응답결과에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남녀공학(68.3%)에 비하여 남학교(70.8%)나 여학교(75.6%) 등 한 성만으로 이루어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사회통합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학교의 경우 남학교 학생보다 사회통합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비율이 높았다.

〈부표 63〉 설립유형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사립	571	26.7	1564	73.3	2135	100.0	15.090**
공립	1323	31.5	2881	68.5	4204	100.0	
전체	1894	29.9	4445	70.1	6339	100.0	

학교설립 유형에 따라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5.090으로 유의확률 .01 수준에서 학교 설립 유형에 따라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는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사립학교 학생들은(73.3%) 공립학교 학생(68.5%) 보다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부표 64〉 아버지학력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고등이하	149	36.6	258	63.4	407	100.0	21.963***
고졸	884	31.2	1951	68.8	2835	100.0	
대학이상	759	27.0	2050	73.0	2809	100.0	
전체	1792	29.6	4259	70.4	6051	100.0	

부모 학력 중 아버지 학력에 따라 사회통합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21.963으로 확률 .00유의수준에서 아버지 학력에 따라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는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으로 높을수록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영희는 자신과 철수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 “에 대한 응답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표 65> 어머니학력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고등이하	169	38.1	274	61.9	443	100.0	18.823***
고졸	1024	29.4	2455	70.6	3479	100.0	
대학이상	584	27.8	1516	72.2	2100	100.0	
전체	1777	29.5	4245	70.5	6022	100.0	

부모 학력 중 어머니 학력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8.823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어머니 학력에 따라 사회통합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통합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비율이 높았으며, 어머니 학력이 고졸이하일 경우와 고졸 이상의 경우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권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응답비율이 확연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표 66〉 아버지 직업 유무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89	35.5	162	64.5	251	100.0	4.114*
없음	1757	29.5	4202	70.5	5959	100.0	
전체	1846	29.7	4364	70.3	6210	100.0	

아버지 직업여부에 따라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4.114로 아버지 직업이 없는 경우 오히려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67〉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586	28.3	1485	71.7	2071	100.0	2.944
없음	1257	30.4	2877	69.6	4134	100.0	
전체	1843	29.7	4362	70.3	6205	100.0	

어머니 직업여부에 따라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2.94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부표 68〉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1 매우 못 산다	37	38.9	58	61.1	95	100.0	25.296** *
2	118	35.8	212	64.2	330	100.0	
3	262	29.0	643	71.0	905	100.0	
4 보통 수준	998	30.0	2329	70.0	3327	100.0	
5	343	26.5	951	73.5	1294	100.0	
6	78	32.5	162	67.5	240	100.0	
7 매우 잘 산다	33	45.2	40	54.8	73	100.0	
전체	1869	29.8	4395	70.2	6264	100.0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25.296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규칙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력이 3~6수준의 중간인 학생들의 경우 사회통합관련 질문에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는 올바른 응답을 하는 비율이 ” 매우 못 산다 “나 ” 매우 잘사는 “학생들에 비하여 높았다.

〈부표 69〉 성적(국어)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국어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137	50.9	132	49.1	269	100.0	159.106***
못하는 수준	473	39.4	727	60.6	1200	100.0	
중간	885	28.3	2239	71.7	3124	100.0	
잘하는 수준	306	22.0	1087	78.0	1393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76	24.3	237	75.7	313	100.0	
전체	1877	29.8	4422	70.2	6299	100.0	

학교성적 중 국어성적에 따른 응답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²통계값은 159.406로 유의확률 .00유의수준에서 국어성적에 따른 사회통합에 대한 응답에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교성적이 높으면, 못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올바른 응답을 할 비율이 높은 반면, 국어를 매우 못하는 수준의 학생들은 사회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경우가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표 70> 성적(영어)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영어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317	38.1	516	61.9	833	100.0	62.041***
못하는 수준	545	32.6	1128	67.4	1673	100.0	
중간	623	28.3	1582	71.7	2205	100.0	
잘하는 수준	270	23.7	869	76.3	1139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100	24.3	311	75.7	411	100.0	
전체	1855	29.6	4406	70.4	6261	100.0	

학교성적 중 영어성적에 따른 응답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62.041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영어성적에 따른 사회통합에 대한 응답에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교성적이 높으면, 못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올바른 응답을 할 비율이 높았다.

〈부표 71〉 성적(수학)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수학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420	36.1	743	63.9	1163	100.0	43.928***
못하는 수준	557	30.8	1250	69.2	1807	100.0	
중간	555	28.6	1385	71.4	1940	100.0	
잘하는 수준	240	23.7	774	76.3	1014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100	27.1	269	72.9	369	100.0	
전체	1872	29.7	4421	70.3	6293	100.0	

학교성적 중 수학성적에 따른 응답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43.928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수학성적에 따른 사회통합에 대한 응답에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교성적이 높으면, 못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올바른 응답을 할 비율이 높았으며, “매우 잘하는 수준” 보다는 “잘하는 수준”의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72〉 성적(사회)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사회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261	43.1	345	56.9	606	100.0	102.723***
못하는 수준	570	33.9	1109	66.1	1679	100.0	
중간	699	28.9	1719	71.1	2418	100.0	
잘하는 수준	231	21.5	842	78.5	1073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95	25.6	276	74.4	371	100.0	
전체	1856	30.2	4291	69.8	6147	100.0	

학교성적 중 사회성적에 따른 응답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02.823으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수학성적에 따른 사회통합에 대한 응답에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교성적이 높으면, 못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올바른 응답을 할 비율이 높았으며, 수학과 마찬가지로 “매우 잘하는 수준” 보다는 “잘하는 수준”의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73〉 성적(과학)에 따른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교차분석)

과학	오답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265	35.6	480	64.4	745	100.0	27.226***
못하는 수준	569	32.1	1201	67.9	1770	100.0	
중간	660	28.6	1650	71.4	2310	100.0	
잘하는 수준	258	27.3	688	72.7	946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93	24.0	295	76.0	388	100.0	
전체	1845	30.0	4314	70.0	6159	100.0	

마지막으로 학교성적 중 과학성적에 따른 응답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27.226로 유의확률 .00수준에서 수학성적에 따른 사회통합에 대한 응답에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교성적이 높으면, 못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올바른 응답을 할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수정당의 존재이유

Q)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청소년 역량분석 중 갈등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정당의 존재이유를 확인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라고 생각하나요?”로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급, 성별, 가정의 경제력, 부모님 학력, 부모 직업유무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답안의 내용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는 정답으로, “정치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시위하거나 데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는 오답으로 설정하여 다수정당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학교급에 따라 다수정당의 존재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²통계값은 0.096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교급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표 74> 학교급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중학교	925	33.5	1834	66.5	2759	100.0	0.096
고등학교	969	27.1	2611	72.9	3580	100.0	
전체	1894	29.9	4445	70.1	6339	100.0	

<부표 75> 성별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남	1157	34.4	2204	65.6	3361	100.0	120.750***
여	737	24.7	2241	75.3	2978	100.0	
전체	1894	29.9	4445	70.1	6339	100.0	

성별에 따른 다수정당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20.750으로 유의수준 .00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다수 정당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응답은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남학생(65.6%)보다 여학생(54.6%)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라는 응답이 높아 다수정당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표 76> 수도권여부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수도권	774	28.3	1960	71.7	2734	100.0	0.241
비수도권	1120	31.1	2485	68.9	3605	100.0	
전체	1894	29.9	4445	70.1	6339	100.0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0.241로 수도권여부에 따른 다수정당의 존재이유는 수도권이 비수도권 학생에 비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77>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남녀공학	1252	31.7	2693	68.3	3945	100.0	40.599***
남학교	349	29.2	845	70.8	1194	100.0	
여학교	293	24.4	907	75.6	1200	100.0	
전체	1894	29.9	4445	70.1	6339	100.0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분석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40.599로 유의수준 .00수준에서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남녀공학에 비하여 남학교와 여학교의 학생들의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라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았다. 특히, 남학교에 비하여 여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인식이 더 높았다.

<부표 78> 설립유형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사립	571	26.7	1564	73.3	2135	100.0	3.428
공립	1323	31.5	2881	68.5	4204	100.0	
전체	1894	29.9	4445	70.1	6339	100.0	

학교설립 유형에 따라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3.428로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사립과 공립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79〉 아버지학력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고등이하	149	36.6	258	63.4	407	100.0	4.515
고졸	884	31.2	1951	68.8	2835	100.0	
대학이상	759	27.0	2050	73.0	2809	100.0	
전체	1792	29.6	4259	70.4	6051	100.0	

부모학력 중 아버지 학력에 따라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4.515로 아버지 학력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부표 80〉 어머니학력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고등이하	169	38.1	274	61.9	443	100.0	6.335*
고졸	1024	29.4	2455	70.6	3479	100.0	
대학이상	584	27.8	1516	72.2	2100	100.0	
전체	1777	29.5	4245	70.5	6022	100.0	

부모학력 중 어머니 학력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6.335로 유의

수준 .05에서 어머니 학력에 따라 응답패턴에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81> 아버지 직업 유무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89	35.5	162	64.5	251	100.0	0.086
없음	1757	29.5	4202	70.5	5959	100.0	
전체	1846	29.7	4364	70.3	6210	100.0	

부모직업 중 아버지 직업유무에 따라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0.086으로 아버지의 직업유무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표 82>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586	28.3	1485	71.7	2071	100.0	0.050
없음	1257	30.4	2877	69.6	4134	100.0	
전체	1843	29.7	4362	70.3	6205	100.0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라 다수정당의 필요성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0.050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표 83>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1 매우 못 산다	37	38.9	58	61.1	95	100.0	8.754
2	118	35.8	212	64.2	330	100.0	
3	262	29.0	643	71.0	905	100.0	
4 보통 수준	998	30.0	2329	70.0	3327	100.0	
5	343	26.5	951	73.5	1294	100.0	
6	78	32.5	162	67.5	240	100.0	
7 매우 잘 산다	33	45.2	40	54.8	73	100.0	
전체	1869	29.8	4395	70.2	6264	100.0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8.754로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표 84〉 성적(국어)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국어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137	50.9	132	49.1	269	100.0	21.983***
못하는 수준	473	39.4	727	60.6	1200	100.0	
중간	885	28.3	2239	71.7	3124	100.0	
잘하는 수준	306	22.0	1087	78.0	1393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76	24.3	237	75.7	313	100.0	
전체	1877	29.8	4422	70.2	6299	100.0	

학업성적(국어)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21.983으로 국어성적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수정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85〉 성적(영어)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영어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317	38.1	516	61.9	833	100.0	8.548
못하는 수준	545	32.6	1128	67.4	1673	100.0	

중간	623	28.3	1582	71.7	2205	100.0
잘하는 수준	270	23.7	869	76.3	1139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100	24.3	311	75.7	411	100.0
전체	1855	29.6	4406	70.4	6261	100.0

학업성적(영어)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8.548로 영어성적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표 86〉 성적(수학)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수학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420	36.1	743	63.9	1163	100.0	1.163
못하는 수준	557	30.8	1250	69.2	1807	100.0	
중간	555	28.6	1385	71.4	1940	100.0	
잘하는 수준	240	23.7	774	76.3	1014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100	27.1	269	72.9	369	100.0	
전체	1872	29.7	4421	70.3	6293	100.0	

학업성적(수학)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163으로 수학성적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표 87〉 성적(사회)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사회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261	43.1	345	56.9	606	100.0	15.782**
못하는 수준	570	33.9	1109	66.1	1679	100.0	
중간	699	28.9	1719	71.1	2418	100.0	
잘하는 수준	231	21.5	842	78.5	1073	100.0	
매우 잘하는 수준	95	25.6	276	74.4	371	100.0	
전체	1856	30.2	4291	69.8	6147	100.0	

학업성적(사회)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2통계값은 15.782로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사회성적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수정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88〉 성적(과학)에 따른 민주국가에서 하나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교차분석)

과학	오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못하는 수준	265	35.6	480	64.4	745	100 .0	5.478
못하는 수준	569	32.1	1201	67.9	1770	100 .0	
중간	660	28.6	1650	71.4	2310	100 .0	
잘하는 수준	258	27.3	688	72.7	946	100 .0	
매우 잘하는 수준	93	24.0	295	76.0	388	100 .0	
전체	1845	30.0	4314	70.0	6159	100 .0	

학업성적(과학)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X²통계값은 5.478로 과학성적에 따른 다수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록5>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설문지(초등용)¹⁾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제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
도록 통제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초등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후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6.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담당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박사	실사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조 사 문 의 처: 02-2017-181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mpi.re.kr>

1) 이 조사지는 세가지 역량 모두를 진단하기 위한 NYP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 사지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배경변인 및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 문항은 설문지 상에서 음영 표시 하였음.

8. 반에서의 학업성적(2009년 1학기)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세요.

※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음'에 ○표 해 주세요.

성 적	매 우 못하는수준	못하는 수 준	중간	잘하는 수 준	매 우 잘하는수준	배우지 않 음
(1) 국 어	①	②	③	④	⑤	
(2) 영 어	①	②	③	④	⑤	⑥
(3) 수 학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영역	①	②	③	④	⑤	
(5) 과학영역	①	②	③	④	⑤	

9. 지금 집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장소)들이 얼마나 있나요?

9-1) 자동차

___① 없음 ___② 1대 ___③ 2대 ___④ 3대 이상

9-2) 자기방 (혼자사용)

___① 예 ___② 아니오

9-3) 책(잡지·신문·만화·교과서·참고서 등은 제외)

___① 0~10권 ___② 11~25권 ___③ 26~100권
___④ 101~200권 ___⑤ 201~500권 ___⑥ 501권 이상

10.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구분	거의 하지 않는다	일주일 1-2회	일주일 3-4회	일주일 5-6회	매일
(1)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5) 함께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6) 함께 저녁식사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___① 매우 나쁘다 ___② 나쁘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좋다 ___⑤ 매우 좋다 ___⑥ 모르겠다

12. 학교 체육 수업시간 외에 30분 이상 지속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요?

- _____ ① 거의 하지 않는다 _____ ② 일주일에 1~2회 _____ ③ 일주일에 3~4회
_____ ④ 일주일에 5~6회 _____ ⑤ 매일

13. 매일 교과서나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읽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_____ ① 전혀 없다 _____ ② 30분 이내 _____ ③ 30분~1시간
_____ ④ 1시간~2시간 _____ ⑤ 2시간 이상

I. 다음은 학교 생활에 관한 결론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4.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 _____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_____ ② 불만족스럽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스럽다 _____ ⑤ 매우 만족스럽다

15.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 그렇지 않다	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구분	없었다	한 두 번	서너 번	다섯 번 이 상
(1) 휴학 경험	①	②	③	④
(2) 지각 경험	①	②	③	④
(3) 무단결석 경험	①	②	③	④
(4) (교내·외) 사회봉사 혹은 동교정지 등의 징계	①	②	③	④

24.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매 우 불만이다	◀=====▶										매 우 만족한다	모르겠다 ☐	
	0	1	2	3	4	5	6	7	8	9			10

25.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매 우 불행하다	◀=====▶										매 우 행복하다	모르겠다 ☐	
	0	1	2	3	4	5	6	7	8	9			10

IV.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검색에 관한 결론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26.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나요?

구분	전 혀 사용안함	한 달에 1회 이상	일주일 에 1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
(1) 한글프로그램(한글 등)을 이용한 문서 작성 및 편집	①	②	③	④
(2) 엑셀 등을 이용한 계산표 작성	①	②	③	④
(3)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을 이용한 그림자료 및 발표용 자료의 작성	①	②	③	④
(4)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만들기	①	②	③	④
(5) 나의 일정 및 스케줄 관리하기	①	②	③	④
(6) CD나 DVD를 시청하거나 정보 얻기	①	②	③	④
(7) 컴퓨터 게임하기(인터넷 게임은 제외)	①	②	③	④

27.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나요?

구분	전혀 사용안함	한 달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
(1) 친구, 선생님 등과 전자우편(이메일) 주고 받기	①	②	③	④
(2) 채팅, 메신저, 게시판 및 댓글 작성, 또는 온라인 토론에 참여(학급게시판 참여 포함)	①	②	③	④
(3)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사거나 관련정보 검색	①	②	③	④
(4) 인터넷 학습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	①	②	③	④
(5) 음악(노래) 듣기 또는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듣기 포함)	①	②	③	④
(6) 인터넷 게임(게임 관련 자료 다운로드 포함)	①	②	③	④
(7) 영화, 동영상 보기 또는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한 TV 시청 포함)	①	②	③	④
(8) 신문, 잡지, 전자책(e-book) 읽기 또는 다운로드	①	②	③	④
(9) 숙제 및 학교 수업을 위한 인터넷 정보 검색	①	②	③	④
(10)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검색 (학습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 검색은 제외)	①	②	③	④
(11) 동호회활동(카페·커뮤니티 포함)	①	②	③	④
(12)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운영	①	②	③	④
(13)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업그레이드	①	②	③	④

28.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컴퓨터(또는 인터넷)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컴퓨터와 인터넷은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컴퓨터와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5)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학습능력이나 재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6) 컴퓨터와 인터넷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7) 컴퓨터와 인터넷은 나의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32.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어느 정도 듣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친구들로부터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아래에 제시된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원(정보)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혼자 힘으로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인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장 격렬한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 **백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6>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설문지(중등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
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중등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후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6.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담당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박사	실사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조사문의처: 02-2017-181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8. 반에서의 학업성적(2009년 1학기)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세요.

※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음'에 ○표 해 주세요.

성 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배우지 않음
(1) 국 어	①	②	③	④	⑤	
(2) 영 어	①	②	③	④	⑤	⑥
(3) 수 학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영역	①	②	③	④	⑤	
(5) 과학영역	①	②	③	④	⑤	

9. 지금 집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장소)들이 얼마나 있나요?

9-1) 자동차

___① 없음 ___② 1대 ___③ 2대 ___④ 3대 이상

9-2) 자기방 (혼자사용)

___① 예 ___② 아니오

9-3) 책(잡지·신문·만화·교과서·참고서 등은 제외)

___① 0~10권 ___② 11~25권 ___③ 26~100권
___④ 101~200권 ___⑤ 201~500권 ___⑥ 501권 이상

10.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구분	거의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1)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5) 함께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6) 함께 저녁식사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___① 매우 나쁘다 ___② 나쁘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좋다 ___⑤ 매우 좋다 ___⑥ 모르겠다

17.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 그렇지 않다	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구분	없었다	한 두 번	서너 번	다섯 번 이상
(1) 휴학 경험	①	②	③	④
(2) 지각 경험	①	②	③	④
(3) 무단결석 경험	①	②	③	④
(4) (교내·외) 사회봉사 혹은 동교정지 등의 징계	①	②	③	④

19.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창업포함)을 정해 놓았나요?

- _____ ① 아직 정해 놓은 직업이 없다
_____ ②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_____ ③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II. 다음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20.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본인의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
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 그렇 지 않다	허 그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말을 들으 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관심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 을 바라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상대방의 말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들 으며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절대로 안된다	아주 약간만	어느 정도	가능한 많이	모르겠다
(1)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민족이 아닌 외국인	①	②	③	④	⑤
(3)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2. 다음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22-1)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	◀=====▶										좋은 영향을 미친다	모르겠다 ☐
	0	1	2	3	4	5	6	7	8	9	10	

- 22-2)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문화 수준을 떨어뜨린다	◀=====▶										문화를 풍성하게 만든다	모르겠다 ☐
	0	1	2	3	4	5	6	7	8	9	10	

- 22-3)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살기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더 살기 힘들게 만든다	◀=====▶										더 살기 좋게 만든다	모르겠다 ☐
	0	1	2	3	4	5	6	7	8	9	10	

23.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한다	◀=====▶										사람들은 정당하게 나를 대우한다	모르겠다 ☐
	0	1	2	3	4	5	6	7	8	9	10	

25.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 ☐ ① 전혀 관심없다 ☐ ② 거의 관심없다 ☐ ③ 약간 관심있다
☐ ④ 매우 관심있다 ☐ ⑤ 모르겠다

26. 아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믿지 않는다									
----	-----------	--	--	--	--	--	--	--	--	--

27.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음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진술들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각각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표시해 주세요(각 질문에는 '참' 혹은 '거짓'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거짓	참
(1)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②
(2)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①	②
(3)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①	②
(4)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①	②

29.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 ② 정치적 부패를 막기 위해
☐ ③ 사람들이 시위하거나 데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 ④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30.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①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 ② 정당들이 항상 서로를 비판할 때
☐ ③ 사람들이 세금을 아주 많이 내야만 할 때
☐ ④ 모든 시민들이 어떤 직업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을 때

31.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매우 불만이다	◀=====▶										매우 만족한다	모르겠다 □	
	0	1	2	3	4	5	6	7	8	9			10

32.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매우 불행하다	◀=====▶										매우 행복하다	모르겠다 □	
	0	1	2	3	4	5	6	7	8	9			10

33. 친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나요?

- ☐ ① 전혀 만나지 않는다 ☐ ② 한달에 한번이 안된다
☐ ③ 한달에 한번 정도 ☐ ④ 한달에 여러 번
☐ ⑤ 일주일에 한번 정도 ☐ ⑥ 일주일에 여러 번
☐ ⑦ 매일 ☐ ⑧ 모르겠다

34.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나요?

- ☐ ① 없다 ☐ ② 있다

35. 같은 나이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나요?

- ☐ ① 훨씬 적게 참여한다 ☐ ② 적게 참여하는 편이다
☐ ③ 비슷하게 참여한다 ☐ ④ 많이 참여한다
☐ ⑤ 매우 많이 참여한다 ☐ ⑥ 모르겠다

37-2)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모든 적 눈감아 준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3	-2	-1	0	+1	+2	+3	
사적이다								공적이다
나쁘다								좋다
비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물인정하다								인정있다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너그럽지 않다								너그럽다
무원칙적이다								원칙적이다

IV.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검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38.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나요?

구분	전혀 사용안함	한 달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
(1) 한글프로그램(한글 등)을 이용한 문서 작성 및 편집	①	②	③	④
(2) 엑셀 등을 이용한 계산표 작성	①	②	③	④
(3)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을 이용한 그림자료 및 발표용 자료의 작성	①	②	③	④
(4)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만들기	①	②	③	④
(5) 나의 일정 및 스케줄 관리하기	①	②	③	④
(6) CD나 DVD를 시청하거나 정보 얻기	①	②	③	④
(7) 컴퓨터 게임하기(인터넷 게임은 제외)	①	②	③	④

42. 영화는 다음 달에 가족과 함께 경주를 여행하고자 합니다. 경주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는지 찾고자 할 때, 검색 사이트에서 어떠한 키워드(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 ① 경주 or 문화재
___ ② 경주 not 문화재
___ ③ 경주 nor 문화재
___ ④ 경주 and 문화재
___ ⑤ 경주 near 문화재

43. 철수는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서핑을 하다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웹사이트를 다음에 다시 활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 ① 그때마다 검색하여 해결한다.
___ ② 즐겨찾기에 추가 또는 폴더를 만들어 북마크 한다.
___ ③ 따로 기록하여 둔다.
___ ④ 웹사이트의 주소를 기억해 둔다.
___ ⑤ 따로 파일을 만들어 저장한다.

44. 형석이는 얼마전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자료를 올려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 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비밀번호는 자주 바꾸도록 한다.
___ ② 자신의 비밀번호를 남에게 쉽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___ ③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만들 때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___ ④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는 함부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다.
___ ⑤ 여러 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모두 같은 비밀번호로 통일한다.

45.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구분	전 그렇지 않다	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컴퓨터(또는 인터넷)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컴퓨터와 인터넷은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컴퓨터와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5)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학습능력이나 재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6) 컴퓨터와 인터넷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7) 컴퓨터와 인터넷은 나의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Ⅴ.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46.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 | | | |
|-------------|-------------|-------------|----------|
| 1) 노인인구 | ___ 증가하고 있다 | ___ 감소하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 2) 출산율 | ___ 증가하고 있다 | ___ 감소하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 3) 평균수명 | ___ 길어지고 있다 | ___ 짧아지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 4) 학생수 | ___ 늘어나고 있다 | ___ 줄어든다 | ___ 모르겠다 |
| 5) 결혼연령 | ___ 늦어지고 있다 | ___ 빨라지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 6) 여성의 경제활동 | ___ 증가하고 있다 | ___ 감소하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 7) 다문화가정 | ___ 증가하고 있다 | ___ 감소하고 있다 | ___ 모르겠다 |

47.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 ? → 내가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

- | | |
|--------------------|------------------|
| ___ ① 가정의 지출이 줄어든다 | ___ ② 학생들이 줄어든다 |
| ___ ③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 ___ ④ 아동인구가 줄어든다 |

48. 다음은 노래 음반을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각의 방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음반을 구매하는 방법	장점	단점
음반가게나 온라인 매장에서 정품을 구입한다	품질이 보장된다 문제가 있으면 보상 받는다	비용이 많이 든다 원하는 노래만 구입하기 어렵다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	비용이 절감 된다 빨리 구매할 수 있다	(1)

48-1) (1)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모두 √표 해 주세요.

- ___ ① 음질이 나쁘거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
- ___ ② 양심에 걸린다
- ___ ③ 좋은 음악을 만드는 가수들이 줄어든다
- ___ ④ 비용이 많이 든다
- ___ ⑤ 얻는데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 ___ ⑥ 음반 시장이 축소된다
- ___ ⑦ 고소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8-2)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음반을 사지 않고 불법다운로드를 한다 → ? → 좋은 노래가 들어온다
 _____ ① 음반 판매량이 줄어든다 _____ ② 파일 공유 업자가 늘어난다
 _____ ③ 불법복제 방지 기술이 발전한다 _____ ④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커진다

VI.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49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그 렇 지 않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비교한 후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앞날을 내다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행동을 할 때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결과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0.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어느 정도 듣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매 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친구들로부터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51. 아래에 제시된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원(정보)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혼자 힘으로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인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2.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 매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Ⅰ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가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Ⅰ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Ⅲ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Ⅴ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Ⅴ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Ⅴ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Ⅴ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Ⅴ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Ⅴ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Ⅴ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Ⅰ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Ⅱ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Ⅱ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운정·안소연·윤소운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Ⅰ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운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Ⅰ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이상훈·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이승현·권수진·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유영준·이명희·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최수정·이간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장근영·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김민성·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조아미·정경은·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중·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김성경·남미애·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박제일·이은경·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권해수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운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운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Ⅱ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Ⅲ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Ⅱ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Ⅰ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Ⅳ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
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 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연구보고 10-R17-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청송문화인쇄사 전화 02)2676-4573 대표 한상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06-6(93330)

978-89-7816-903-5(세트)

